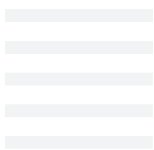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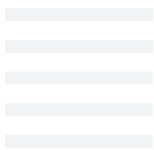




제6편

목포의 주요 인물



| 일러두기 |

목포의 주요 인물은 다음의 기준 및 과정을 거쳐 선정·수록하였다.

- 기존의 『목포시사』 및 목포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1차 선정을 하였다.
- 목포 출생 및 목포 출생은 아닐지라도 목포에서 활동하거나 목포와 관련이 깊은 인물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 『목포시사』의 서술 하한 시기인 2015년 12월 현재 생존자는 제외하였다.
- 분야별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95명을 선정하였다.
- 주요 인물이지만 서술할 내용이 미흡한 경우 금번 시사에서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 수록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 원고를 쓴 집필위원은 해당 인물의 원고 끝에 명시하였다.

번호	분야 ⁰¹⁾	주요 인물	번호	분야 ⁰¹⁾	주요 인물
1	역사	강상철(1963~1986)	49	조각	장 덕(1910~1976)
2		강석봉(1890~1956)	50		허 건(1908~1987)
3		고연우(1897~?)	51		손양동(1916~2015)
4		김대중(1924~2009)	52		김정재(1932~1998)
5		김면수(1855~?)	53	서예	서희환(1934~1995)
6		김성규(1863~1936)	54		손재형(1903~1981)
7		김익진(1906~1970)	55		곽종선(1910~1950)
8		김정수(1910~?)	56		김상육(1917~1977)
9		김철진(1905~1971)	57	사진	이승모(생몰년 미상)
10		문재철(1883~1955)	58		이영원(1919~2011)
11		박상렬(1897~1981)	59		정종기(1924~2010)
12		박승희(1971~1991)	60	체육	강세철(1926~2007)
13		박애순(1896~1969)	61		법 정(1932~2010)
14		박태영(1967~1987)	62	종교	유진벨(1868~1925)
15		배치문(1890~1942)	63		박연세(1883~1944)
16		서병인(1896~1948)	64	교육	김병한(1925~2001)
17		서상봉(1870~1927)	65		이복주(1919~1997)
18		서화일(1881~1936)	66	정치·행정	김영하(1903~1959)
19		안 철(1946~2003)	67		이남규(1901~1976)
20		윤기현(1900~?)	68		임기봉(1905~1982)
21		이기동(1906~?)	69		임종기(1926~2007)
22		이인형(1914~1934)	70		하동현(1903~1969)
23		장병준(1893~1972)	71		김문옥(1897~1966)
24		장병조(1879~1970)	72		김상두(1911~?)
25		조국환(1887~1966)	73	경제·기업	김상섭(1876~1945)
26		조점환(1907~1940)	74		김준형(1914~2008)
27		천귀례(1903~?)	75		나달수(1917~2010)
28		최 섭(1905~2000)	76		손용기(1898~?)
29		김 현(1942~1990)	77		이훈동(1917~2010)
30	문학	김우진(1897~1926)	78		임광행(1919~2002)
31		김진섭(1903~6.25 때 납북)	79		전태홍(1937~2005)
32		박화성(1904~1988)	80		장인영(1920~2006)
33		조희관(1905~1958)	81		차남진(1893~1970)
34		차범석(1924~2006)	82		천득근(1905~1959)
35		차재석(1925~1983)	83		현준호(1889~1950)
36		최하림(1939~2010)	84		홍순기(1929~2012)
37	대중문화	강대진(1935~1987)	85	언론	손수겸(생몰년 미상)
38		문일석(생몰년 미상)	86		조효석(1922~1998)
39		이남영(1916~1965)	87		최병우(1924~1958)
40	무용	조미미(1947~2012)	88	복지·의료	윤치호(1909~1951 실종)
41		이매방(1926~2015)	89		윤학자(1912~1968)
42		최진열(1926~2012)	90		이방호(1914~1993)
43	국악	홍정화(1934~1997)	91		정재현(1906~1998)
44		인항렬(1944~1981)	92		차남수(1903~1990)
45		장월중선(1925~1998)	93		최찬열(1906~2006)
46	미술	김암기(1932~2013)	94	터전	박길수(1928~1994)
47		김영자(1922~2015)	95		이생연(1938~2005)
48		김용구(1933~2015)			

01)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짓기 어려운 인물들도 있으나 편의상 구분하였다.

강대진(姜大振, 1935~1987)

영화감독. 1935년 12월 20일 신안군 비금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성장하였다. 출생 연도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목포에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라벌예술대학(중앙대 예술대학의 전신)에 진학하여 연극영화를 전공하였다. 근대 예술문화가 발달한 목포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예술과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목포는 1897년 통상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후 근대적인 문화예술이 타 도시보다 발달해 있었다. 특히 목포극장과 평화관을 중심으로 영화가 상영되면서 극장이 있는 도시로도 명성을 얻었다. 예향 목포에서 성장한 강대진에게 영화라는 장르는 자연스럽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가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영화 「파시」를 촬영하러 목포에 온 최인규 감독이 메가폰을 들고 있는 포즈에 반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서라벌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신상옥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로 3년간 일하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1959년 영화 「부전자전」으로 데뷔하였고, 이후 한국적인 정서를 영화화 하는 데 앞장섰다. 강대진 감독의 대표작이자 한국영화 발전에 가장 공헌한 작품은 1961년 작 「마부」이다. 당시 이 작품에는 김승호, 신영균, 황정순, 조미령, 황해, 엄앵란, 김희갑 등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고, 1961년 제1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한국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최초의 사례이다. 영화 「마부」는 말을 끌며 거리에서 손님의 짐을 실어다 주는 짐꾼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버지와 네 남매의 고달픈 삶을 통해 6·25전쟁 이후 피폐해진 한국사회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부」의 베를린영화제 수상은 한국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강대진의 작품들은 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삶과 평범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드라마의 성격이 강했다. 초기 대표작인 「박서방」(1960), 「마부」(1961), 「어부들」(1961)은 한국의 3대 서민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는 「사랑의 원자탄」을 시작으로 종교성이 짙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중 「사랑의 뿌리」는 1979년 대중상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 희귀사례이지만 액션영화를 만든 적도 있다. 1979년 「석양의 10번가」는 당시 개성 강한 액션연기로 인기 몰이를 하던 이대근을 캐스팅하여 만든 액션영화이다. 또한 강대진 감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인 동양텔레비전방송(TBC-TV)의 제작위원을 맡기도 했다. 영화감독으로서 강대진의 마지막 작품은 1987년 작 「몽마르트 언덕의 상투」이다. 이 작품을 유작으로 남긴 채 1987년 3월 31일 서울 강남구 방배동 자택에서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결식은 영화진흥공사 후원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되었고, 장지는 충남 풍산공원묘지에 마련되었다. 강대진은 30여 년 동안의 감독생활 중 총 48편의 작품을 남겼다. 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삼

았으며, 된장국 냄새 진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스크린에 옮긴 대표적인 영화감독으로 기억되고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최성환, 『천사섬 신안 섬사람 이야기』, 크레펜,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s.com/>).]

강상철(姜相喆, 1963~1986)

민주열사. 1963년 3월 2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태어났다. 해남산이동초등학교, 산이중학교를 거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85년 목포전문대학(현 목포과학대학) 건축과에 입학했으나 미등락으로 2학년 때 제적되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 입학 이후부터이다. 군부독재와 불합리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목포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안철을 만나고 난 뒤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안철의 소개로 광재구를 만나게 되었고,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이하 목청련)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현희와의 학습을 통해 의식을 일깨우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해서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은 사소한 일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5년 12월 민주협을 중심으로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면서 1986년 새해부터 소위 '개헌 정국'이 시작되었다. 목포에서도 민주회복국민회의와 목청련을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과 개헌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개헌 정국이 한참이던 1986년 3월 강상철은 목청련 사무차장에서 목포민주회복국민회의 청년국 2부 차장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개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상수도세 지역차별 중지하라' 등의 일상생활의 투쟁부터 민주화운동, 개헌투쟁 등 적극적인 투쟁을 지속하였지만 민주화의 길은 요원하였다. 그는 현 시국의 혼란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그가 물려나는 것만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를 이룩할 수 없다며 군부독재 타도, 민주화, 민족통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라는 최후의 투쟁을 결심하였다. 그가 유서로 남긴 안철과 친구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5월 초에 이러한 결심을 하였으며, 남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혼자만의 결심을 계속 되뇌어 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6월 6일 강상철은 그간의 고민을 실행에 옮겼다. 12시 작은 손가방을 들고 목포역 광장에 도착한 그는 직접 작성한 「양심선언」을 낭독하였다. 자신의 죽음이 '정의의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이며 '승리의 죽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들이 에워싸자 온 몸에 석유를 뿌리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우리의 주장’을 살펴보면 ‘각 민중, 민주화 단체 탄압을 중지하라’, ‘각 민주인사 사면복권 및 석방하라’,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라’, ‘상수도세 지역차별 중지하라’, ‘5·18을 규명하라’,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는 물러가라’, ‘하수도세 폐지하라’ 등이었다.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민정당사를 향해 50~60m 뛰어가다가 역전육교 밑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강상철은 급히 성골롬반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신에 95%의 화상을 입었고 고통 속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분신 이후 목포의 민주인사들은 강상철구명위원회(위원장 안동해)를 조직하고 강상철의 뜻과 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경찰의 방해공작도 끊이지 않았는데 경찰들은 6월 19일부터 병실을 통제하고 최소한의 간병마저 봉쇄하였다. 생사를 오가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6월 25일 오전 4시 37분 강상철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을 탈취하여 몰래 매장하려는 만행을 계획했다. 이에 안철, 김청수 등이 해남군 옥천면까지 추적해 시신을 되찾아 경찰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장하였다. 후일 그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묘지번호 355-7)으로 이장되었다. 한편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비롯한 목포 민주화세력들은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민주열사 강상철 목포민주시민장’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한 6월 27일 오후 2시 경찰이 평강교회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원천봉쇄하기 시작했다. 항의의 표시로 도로에서 영결예배를 보기로 했으나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방해공작을 계속해 나갔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강상철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1989년 목포전문대 제12대 총학생회에서는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으며, ‘강상철열사추모사업회’가 결성되어 매년 광주 5·18민족민주열사묘역과 목포과학대 추모비 앞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의 뜻을 기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강종학은 ‘호남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곽재구)

강석봉(姜錫奉, 1890~1956)

애국지사. 목포에서 출생하여 1900년 아버지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 박용만 등이 주도한 국민회에 참여했으며, 귀국하여 광주와 목포 지역에서 교회와 청년들 속에서 활동했다. 장일환 등이 1917년 하와이의 국민회에 호응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무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조선국민회에 참여하였다가 1918년 구속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목포의 시위 준비에 참여했다. 서화일(徐化一), 박여성(朴汝成), 곽우영(郭宇英) 등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1919년 4월 8일의 시위를 준비하고 주도했다. 체포되지 않아 궐석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3년 1월 대

구에서 체포되어 목포경찰서로 압송,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였다. 1927년 8월에는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6년 대통령 표창, 17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병인, 「1920년대 광주지역 청년운동가 강해석(姜海錫) 연구」, 『호남문화연구』26,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998; 신주백, 「1925~1928년 시기 전남 지방 사회운동 연구」,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호남편-』, 역사문제연구소, 1993.]

강세철(康世哲, 1926~2007)

권투 선수. 1926년 2월 28일에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태어나 1942년 전라남도 목포로 이사했다. 정광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권투 선수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타이틀을 가졌다. 1943년 정봉현(鄭鳳鉉)의 복싱 경기를 구경한 뒤 복싱에 빠졌고, 해방 후 정봉현이 목포 권투 구락부를 만들자 나이 18세 때 복싱에 입문했다. 강세철은 이곳에서 권노갑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복싱 훈련을 했다. 힘이 넘치는 펀치를 주무기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정복수(鄭福壽), 박형권(朴炯權), 송방헌(宋芳憲), 김계윤(金桂潤) 등을 모두 꺾고 복싱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며 무적의 중량급 복서로 활동했고 인기를 얻었다. 1960년 10월 한국 미들급 5대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1960년 11월 20일 서울운동장 야구장 야외 특설 링에서 필리핀의 러시 메이온을 5회 1분 52초 만에 KO로 눕히고 당시 신설된 동양복싱연맹(OBF) 주니어 미들급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다. 이 날 경기는 수많은 화제를 뿌렸다. 당일 경기는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지만 아침부터 관중이 몰려들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특등석 1,500환, 일반 1천 환, 중소학생 600환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입장객이 야구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이 경기는 한국 프로복싱이 국제무대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1960년대 초반 강세철의 인기는 당대 최고 인기 영화배우 도금봉 씨와의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로 하늘을 찔렀다. 슬하에 장남 강춘수, 차남 강춘식, 삼남 강춘영, 막내 강명희 등 3남 1녀를 두었다. 영어를 구사했던 강세철은 1962년에 『서울신문』 특파원 자격으로 소니 리스틴과 패터슨 간에 열린 세계복싱 헤비급 타이틀전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에 가기도 했다. 강세철은 1962년 10월 5일자 『서울신문』에 기행문을 실었다. 은퇴 후에는 1960년대 명동과 서울역 주변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 복서로 이름을 날린 차남 허버트 강(강춘식)의 매니저로 활약하기도 했다. 한보영 한국권투위원회 부회장은 “강세철은 한국 프로복싱 초창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가

있었기에 김기수도 있었고, 세계 챔피언 시대가 열렸다.”며 “복서로서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최고의 몇쟁이 스타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전호문)

[참고자료 : 노기창, 『사각 링에 펼친 인생들』, 국민체육진흥공단, 2002; 『경남신문』 2007. 05. 24. 「국내 첫 프로복서 강세철씨 별세」;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고연우(高蓮宇, 1897~?)

여성운동가. 근우회 목포지회 집행위원장. 경남 밀양 출신으로 숙명여학교 졸업 후 경북 영천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3년간 근무하였다고 한다. 1926년 1월 창립한 목포여자청년회 집행위원이었으며 1927년 12월 3일 창립된 근우회 목포지회의 창립 회원이다. 목포청년동맹회관에서 열린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교양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9년 4월 4일의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근우회 목포지회는 창립 당시부터 두 파벌로 나뉘어 대결을 벌였는데, 고연우가 한 파벌의 중심이었다. 1928년 7월 근우회 전국대회에서 목포지회의 파벌 대결이 쟁점이 되었고, 근우회 중앙과 목포지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1929년 4월 30일 고연우가 이끄는 근우회 목포지회는 중앙의 해체 명령을 불신임하고 항의문을 발송했으며, 1929년 7월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에서 중요 의안으로 논의되어 양 파벌을 대표하여 고연우와 한국혜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지회를 재조직하기로 했다. 1930년 4월 목포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된 근우회 목포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사회를 보았으나 임석 경관에 의해 임원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금지당했다. 1930년 10월 『삼천리』 제9호에 목포지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되었으며, 1930년 12월 18일 근우회 중앙위원확대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이기훈)

[참고자료 : 윤선자, 「호남 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 『삼천리』9, 1930. 10.; 『동아일보』 1930. 12. 20.]

곽종선(郭鍾善, 1910~1950)

사진작가. 1920년대 일본 동경미술전문학교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포에서 지물상을 경영하던 부친이 미술공부하는 것을 반대해 ‘부친 위독’이라는 거짓 전보를 보내 불러들이는 바람에 1년 정도 머물다 다시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 오리엔탈사진전문학원에서 사진 수업을 받았다. 당시 같

이 공부를 하던 친구 임홍수와 함께 만주 하얼빈과 봉천에서 본격적인 사진 공부를 하다가 귀국하여 목포 남교동 백운당약국 2층에 OK사진관을 열었다. 광복 이전에는 일본에서 미술 전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양화에 몰두하여 선전에 입선하는 등 미술 보급에도 힘썼으나 사진술을 배운 이후로는 인상사진의 일가를 이루었다. OK사진관을 경영하던 당시에는 항도여학교 앨범사진을 맡았는데 목포의 인쇄술은 앨범을 만들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쇄하여 제작했다 한다. 그 무렵에는 사진재료가 부족하여 배급제로 구입을 했는데 광종선은 감광 재료를 손수 처방해서 사용하는 등 다방면에 기술이 월등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샀다. 일본인 사토[佐藤]가 광종선과 겨루기 위해 인근에 사진관을 개업했으나 결국 광종선을 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름이 알려지자 많은 여자 손님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었는데 손님들 중에는 카페의 여급이나 기생들이 많았다. 당시 미인선발대회에서 광종선이 찍은 사진으로 김영희가 뽑혔다고 알려졌다. 그때의 미인선발은 지금처럼 무대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사진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미모도 중요했지만 광종선이 찍은 사진은 예술적 표현이 월등했다고 전해진다. 광종선은 사진술은 물론 사진예술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중 목포에서 사진예술 활동에 공헌했던 정규봉(丁奎奉, 1915~1977), 박종선, 신영세 등이 그 문하에서 공부했다. 정규봉은 1938년 목포극장 앞에서 조광사진관을 경영하다가 무안동 오거리 부근에 천연당이란 사진관 겸 재료점을 운영했는데 목포에서는 유달사우회, 사예클럽 등 사진동호회를 만들어 지도해 온 사람이다. 광종선이 OK사진관을 그만 두고 쉬고 있을 때 만주 봉천 등지에서 사진을 배운 조남기(趙南基, 1920~1991)가 1942년 일본인이 경영했던 오에사진관을 인수하고 광종선을 초빙해 본격적인 영업을 했는데 그 사진관이 목포사진관이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목포의 사진계는 세대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발전해 왔는데, 이렇게 목포의 사진 문화가 초창기부터 전국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광종선을 비롯한 그의 문하에서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박종길)

김대중(金大中, 1924~2009)

정치가, 제15대 대통령. 전남 무안군(현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나 하의공립보통학교와 목포제일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 1943년 목포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남기선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해방 직후 목포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고 1946년 2월 신민당 목포지부에 입당했으나 탈당하고 해운 사업에 종사했다. 6·25전쟁 중에는 북한군에 체포되었다 탈출했다. 이후 해운 사업을 재개하고 『목포일보』를 운영하다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정계 진출을 결심,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상경하여 한국노동문제연구소 주간 등으로 활동했다. 1956

년 6월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으며 대부는 장면 박사였다. 9월 민주당에 입당하여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 강원도 인제에서 입후보했으나 자유당의 방해로 등록이 무효화되어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59년 6월 인제에서 재선거를 실시했으나 낙선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7월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 인제군에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0년 9월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했고, 1961년 5월 13일 인제군 민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등원조차 하지 못했다. 1963년 2월까지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 1963년 민주당 재건에 참여하여 대변인이 되었으며 11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목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4년 4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폭로한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으며, 1965년 민주당이 창당되자 대변인과 정책심의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1967년 2월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한 신민당의 대변인이 되었다. 6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는데, 정권은 특히 김대중을 낙선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목포에 내려와 여당 후보 지원 연설을 하고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지만, 김대중이 승리했다. 1968년 6월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하여 전국 각지의 집회에서 개헌 반대 연설을 하고 원내 반대 투쟁에도 참여했다. 1970년 김영삼 등과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 경쟁에 뛰어 들어 신민당 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0월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소·중·일 4대국 보장, 비정치적 남북 교류 허용, 평화 통일, 예비군 폐지’ 등을 제창했다. 이후 1971년 2월에는 방미 기자회견에서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김대중 씨의 대중 경제 100문 100답』을 출간하여 대중경제론을 제시했다. 1971년 4월 18일의 장충단 공원 등 선거 유세에 많은 청중이 운집하여 정권 교체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4월 27일 선거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부정 선거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100만 표 이내의 차이로 낙선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야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다니다 5월 24일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전국구로 8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인 1972년 7월 1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이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반 유신 운동을 벌였다. 국제적 명성을 쌓은 만큼 정권의 표적이 되어 1973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교에서 납치, 수감될 뻔 했으나 생환하여 동교동 자택에 연금되었다. 재야의 반 유신 투쟁에 참여하여 1974년 11월 17일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일원이 되었다. 1976년 3월 1일에는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여 구속되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접견 제한에 항의 단식 투쟁을 전개했으며, 1977년 12월 서울대학병원에서 형 집행 정지로 가석방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가택 연금에

서 해제되고 1980년 3월 1일 사면 복권되어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해 연행되어 9월 17일 군사 재판에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으나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로 인정되어 1981년 11월 수감 중에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석방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했다. 미국으로 출국하여 2년여 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벌였다. 1985년 1월 신민당이 창당되자 2월 8일 전격 귀국했다.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3월 6일 정치 활동 규제에서 벗어났다. 1985년 3월 15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공동 의장이 되었으며, 1986년 2월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에는 김영삼과 같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6·29선언 이후 1987년 7월 사면·복권되었고, 9월 8일 광주를 방문하여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 김영삼과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1987년 11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재 겸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여소 야대 국면을 이끌어 5공 비리 청문회, 광주 학살 청문회 등 성과를 거두었다. 1989년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으며,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 민자당이 창당되자 반대 투쟁을 벌였다. 1991년 4월 신민주연합당(신민당)을 창당했으며 10월 이기택 등의 민주당과 통합했다. 1992년 민주당의 14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994년 1월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창립했으며 1995년 7월 정계에 복귀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7년 10월 김종필 총리와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으며,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IMF 위기에 빠져 있던 국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의문사진상규명, 민주화운동 보상, 4·3 사건 진상규명 등 민주 개혁법을 제정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03년 대통령에서 퇴임했으며 2004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많은 평화상과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09년 8월 서거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원택, 『김대중을 생각한다』, 프레시안, 2011;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1·2, 삼인, 2010; 김삼웅, 『김대중 평전』1·2, 시대의 창, 2008.]

김면수(金冕秀, 1855~?)

무안감리서 감리서리. 수필가 김진섭의 아버지이다. 1855년 8월 8일에 태어났고, 본관은 풍산(豊

山) 호는 청산(聽山)이다. 1894년 8월부터 부산항감리서 서기관을, 1895년 8월~1898년 6월 동래관찰부 주사를 지냈다. 1898년 6월~1899년 5월 동래감리서 주사로 근무하면서 동래감리 서리를 겸했다. 1899년 5월 창원감리서 주사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동래감리서 주사에 임명되어 1901년 5월까지 근무했다. 이 시기 동래감리 서리와 동래항재판소 판사 서리 업무를 겸했다. 1900년 5월에는 동래감리서 주사로서 울릉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01년 5월부터 목포에 설치된 무안감리서 주사를 지냈으며, 무안감리 서리와 무안항재판소 판사 서리 업무를 겸했다. 1904년 2월에 무안감리서 주사에서 면관되었다. 목포 재직 시 목포부 남교동에 살았으며, 무안감리서를 퇴직한 후에는 1907년 11월부터 목포상업보습학교(木浦商業補習學校) 명예 한문교사를 지내는 등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08년 12월 무안부 주사로 복직해 1909년 7월까지 무안부에서 근무했다. 1909년 7월 군수로 승진 임명되어 합병되기까지 전라남도 정의군수(제주도)를 지냈으며, 1910년 2월부터는 전라남도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장을 지냈다. 합병 후, 1910년 10월 전라남도 정의군수에 유임되어 1914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2월에 정의공립보통학교에 20원을 기부한 공로로 같은 해 8월 목배(木杯)를 받았다.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1년 4~5월경 각 도 참여관과 군수들로 구성된 '내지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나가사키, 가고시마, 오이타, 도쿄 등지의 관공서와 신사를 시찰했다. 1922년 6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23년 3월 문관분한령에 따라 휴직했다가 그해 12월 의원면관 했다.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72, 145쪽. ; 박찬승·고석규, 『무안보첩(務安報牒)』, 목포문화원, 2002;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1, 민족문제연구소, 2012, 342쪽.]

김문옥(金文玉, 1897~1966)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 본관은 김해, 목포에서 태어났다. 목포공립보통학교와 목포간이상업고등학교(목상의 전신인 목포공립상업학교인지 2년제 목포공립간이상업학교인지 확실하지 않음)를 졸업하고 곡물·정미업으로 성공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목포의 조선인 미곡상 단체인 인접업동지회(靑摺業同志會), 목포 곡물이출상조합, 목포곡물상조합 등에서 활동하였다. 1931년 남교동에 설립한 대성상회 사장과 1938년 광주에 설립된 전남산업(주)의 감사를 지냈다. 1939년 일본인이 세운 전남정미(주)의 대표전무이사를 거쳐 해방 후 사장을 지냈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1935년 목포부회 의원, 1938년 목포상공회의소 의원을 지냈다. 해방 후 전남곡물협회를 만들어 회장을 지냈고, 1948년 대한식량공사 전남지사를 맡았다. 1949년 국민회 전라남도본부 결성추진위원이었으며, 1952년 『목포일보』를 인수하였다. 『목포일보』는 1959년 4월 1일부터 타블로이드 배판 4면으로 증면, 발행하였다. 김문옥은 이러한 기업·언론 활동 외에 1955년 민주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목포시당 위원장을 거쳐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구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김문옥이 목포시당 위원장이던 1959년 10월 전남도경 수사과에서 목포일보사의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해 가고, 1960년 1월에는 괴한들이 신문사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그의 부인을 구타하는 등 당시 야당지로 평가받던 『목포일보』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5·16군사정변으로 1962년 공보부에서 전국의 신문사 16곳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목포일보는 인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중앙위원에 선출된 김문옥은 정치활동 포기를 선언, 사퇴하였다. 정계를 은퇴한 그는 1965년 1월 1일자부터 『목포일보』의 제호를 『호남매일』로 바꾸고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7월 향년 70세로 타계하였고, 부인 장기순이 호남매일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오래지 않아 타인에게 넘어갔다. 김문옥과 관련된 일화로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아래쪽에 있던 조부의 묘지에 일제 강점기에 비석을 세웠다가 해방 후 시민들의 쫓기로 없앴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의 동서가 삼학양조 사장 김상두이고, 아들이 가수 남진이다.(정기영)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정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김방한(金芳漢, 1925~2001)

언어학자, 교육자. 전남 목포시 북교동에서 아버지 김우진과 어머니 정점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우진은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영문학도로서, 시대의 아픔을 적절히 희곡 속에 투영하여 당시 계몽적 민족주의나 인도주의 내지 감상주의에 머물렀던 기성문단을 훨씬 뛰어넘은 선구적 극작가였으며, 특히 표현주의를 직접 작품으로 실험한 유일한 극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해박한 식견과 선구적 비평안을 가지고 당대 연극계와 문단에 탁월한 이론을 제시한 평론가이며, 최초로 신극운동을 일으킨 연극운동가로 평가된다. 할아버지 김성규는 한말의 관료로서 25세 때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5개국 전권공사관의 서기관으로 홍콩에서 상당 기간 머무른 적이 있었던 당시로서는 드물게 해외 체류 경력을 갖춘 개화파 관료였다. 장성군수, 무안

감리 등을 역임하였고 이후 목포에 정착하였다. 아버지 김우진의 갑작스러운 타계 후 홀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으며, 목포 북교초등학교와 광주 서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본과 1년을 마친 후 영어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1956년 서울대학교 전임강사가 된 이후 34년 동안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서 한국 언어학의 기초를 쌓는 데 기여하였다. 언어학자 김방한은 역사언어학, 비교언어학, 몽골어학, 국어계통론 등의 분야에서 한국언어학의 기초를 닦아 놓은 1세대 학자이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경향은 유럽 언어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며, 유럽 가운데서도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언어학 전통에 많이 의지하였다. 또한 유럽 언어학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므로 일본 언어학의 전통이나 학풍에 영향을 받은 바도 크다. 1세대 학자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탓에 새로운 언어학 이론을 수립하기보다는 주로 유럽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일에 이바지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소쉬르는 19세기의 언어학 전통인 역사언어학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가리키는 ‘공시태(synchrony)’의 개념과 공시태 안에서 언어 요소들이 상호 간에 맺고 있는 관계인 ‘구조(structure)’의 개념을 발견하여 ‘구조주의(structuralism)’라는 인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천재적인 언어학자였다. 일찍이 소쉬르의 학문에 매료되었고, 생을 다할 때까지 소쉬르 연구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도유럽어족의 연구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비교언어학 연구는 우리말과 계통적 관계를 갖고 있는 알타이어에 대한 연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몽골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향 전환은 스승인 김선기 교수의 영향을 받은 탓이기도 하였다. 1959년에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몽골어 전문학자들의 접촉을 통해 몽골어 연구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알타이어에 대한 연구는 마침내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한국어를 몽골어, 통구스어, 터키어 등이 속한 알타이어족의 하나로 간주하였던 점을 반성하면서 알타이어족이 아닌 언어와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가 한국어와의 계통적 관련성을 제기한 언어로는 고시베리아어의 하나인 길리야크어를 들 수 있다. 물론 길리야크어에 대해 김방한 교수가 독자적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채집한 적은 없지만 러시아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계통의 한 가능성으로서 길리야크어의 존재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어 계통에 대한 김방한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한국어 계통』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서울대학을 퇴임한 후 저술 활동에 몰두하다가 폐암의 발병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나 폐암과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역사언어학 개설서인 『언어의 역사』, 자서전인 『한 언어학자의 회상』, 그리고 그의 평생의 관심사였던 『소

쉬르』 등을 집필하면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불사르기도 하였다. 2001년 혹독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재발하여 삶을 마쳤을 때 그의 나이 76세였다. 중학교 시절에 앓아 2년을 휴학하게 만들었던 ‘폐문임파선염’, 그리고 지독히도 좋아하였던 담배 등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평생 모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생전에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가 타계한 후 가족들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가족묘지 한쪽, 자신을 끔찍하게 아꼈던 할아버지 곁에 나란히 묘소를 마련하였다.(이기갑)

[참고자료 : 김방한, 『언어학논고』, 서울대 출판부, 1970;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83; 김방한, 『일반언어학』, 형설출판사, 1985; 김방한·김현권·신익성, 『언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85; 김방한,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 1986; 김방한, 『역사비교언어학』, 민음사, 1988; 김방한, 『어원론』, 민음사, 1990;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2; 김방한, 『언어와 역사』, 서울대 출판부, 1994;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김방한, 『소쉬르』, 민음사, 1998.]

김상두(金相斗, 1911~?)

기업가, 삼학양조 사장. 전북 진안 출신, 본관은 경주. 김상두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에 와서 정착한 뒤 전일정미소를 경영하였다. 1947년께부터 목포지역 유지들과 함께 목포양주(주) 경영에 참여한다. 목포양주는 1929년 김상섭(사장), 차남진(전무이사) 등이 설립하여 탁주·소주·약주 등을 생산하였다. 남교동에 있던 목포양주를 1950년(혹은 1952년) 김상두가 인수하면서 호남동으로 이전 확장하였고, 이때부터 상표를 ‘삼학’으로 고쳐 소주를 생산했다. ‘삼학’은 삼학도에서 따왔다. 해방 후 목포양주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김상두와 동서지간인 김문옥 목포일보사 사장도 경영에 참여했던 듯 『목포사감(木浦史鑑)』(1955)에 목포양주 사장은 김문옥, 김상두는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흔히 목포양주는 차남진, 김철진, 김문옥 등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철진은 1935년부터 대주주로서 이사 중 한 명으로 참여했고, 김문옥은 적어도 일제 강점기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소주만 생산하던 김상두는 청주도 만들기 시작했고, ‘삼학청주’는 1962년 4월 제3회 전국 주류 품평회에서 청주부문 최고우등상인 재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해 봄부터 ‘삼학소주’를 병에 넣어 전국 판매를 개시했다. 목포양주의 본사를 호남동에 두고 1957년부터 서울에 진출한 김상두는 1964년 3월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춘 삼학산업(주)을 자매회사로 설립하였고, 여기에서 생산한 술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판매되었다. 이때 목포양주를 ‘삼학양조(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호남지방에 판매되었다. 1965년 정

부의 양곡관리 정책에 따라 곡물을 이용한 재래의 증류식 소주 제조가 금지되고 주정을 이용한 희석식으로 제조법이 바뀌면서 삼학은 희석식 소주의 선발업체가 되었다. 1966년 3월 삼학양조·삼학산업은 주류심의회에서 특급주로 선정된 삼학청주의 상표명을 현상 모집하여 '대왕표 삼학청주'로 상표를 개칭했다. 이후 삼학의 대왕표 청주는 백화의 수복표, 보해의 김천표와 함께 3대 메이커였다. 1966년 6월 현재 삼학은 목포에 삼학양조, 서울에 삼학산업, 광주에 삼화주조 등 3개의 법인과 대전·대구·전주·광주·순천·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있었다. 당시 양조업계는 백화, 진로, 삼학의 3파전이었는데, 소주시장은 삼학의 독무대였다. 1960년대 말까지 전국적인 명성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삼학은 양조업계의 지나친 출혈 경쟁과 경제 불황 속에서 허덕이다 1970년 부도가 났다. 정부의 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으나 경영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1971년 삼학산업의 납세필증 위조로 인한 탈세사건이 터지면서 문을 닫았다. 삼학산업은 1970년 맥주 등 모든 주류를 통틀어 다섯 번째로 많은 주세를 납부한 기업이었으며, 삼학양조는 삼학산업의 절반 규모였다. 한때 법인세 납부 20위를 기록한 대기업체 삼학은 김상두가 1973년 8월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 판결 받고, 삼학양조·삼학산업은 공매 처분되면서 사라졌다. 김상두의 삼학이 사라진 후 광주의 삼원물산에서 '삼학'상표의 소주를 시판하여 삼학소주의 명맥을 이었다. 삼원물산은 김상두의 사위 박만영이 1972년 4월 설립하여 이듬해 1월 김석두에게 인계한 회사로 1980년까지 운영되었다. 김상두의 몰락을 정치보복과 연관 짓는 말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정기영)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광주일보』2004. 4. 21.; 『월간조선』2012. 4.]

김상섭(金商燮, 1876~1945)

기업가, 정치인. 전남 완도 출신으로 1926년 목포로 본적을 옮긴다. 1900년 전라남도 관찰부 주사로 관직생활을 시작 경무관, 완도군수, 경북 칠곡군수, 1908년경에는 검사로 광주지방 재판소, 부산지방 재판소, 대구지방 재판소 등에 재직하고 1911년 사직, 이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1913년경 목포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목포보호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 기업인으로서는 1919년 목포창고금융 주식회사 전무취체역, 호남은행 발기인 등으로 참여한다. 1925년에는 동아고무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지역 경제 및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외 목포양조, 전남신탁의 경영에도 참여한다. 1920년 이전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1920년 전후 많은 기업에 투자한다. 1923~1928년 목포상업회의소 부회두를 역임한 일제 강점기 목포의 대표적인 조선인 자본가였다.

다. 1910~1920년대 초까지 임명직 부협의회 의원 7명 가운데 조선인 대표로 참가했으며 이후 일제 식민통치가 끝날 때까지 정·재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거쳐 전라남도 평의원으로 진출하게 된다.(정기영)

김상육(金相六, 1917~1977)

사진작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로 이주해 해방을 맞았으며 해방 직후 남선전기회사(현재의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면서 사진에 몰두하다가 1957년 11월 25일 사진을 좋아하는 직장 동료들과 남전사우회를 창립하고 총무직을 맡았다. 그 뒤 1959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 입회하여 11월 1일부터 회원전에 출품을 한 계기로 1960년 4월 20일~27일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작품의 내용은 주로 '백로(白鷺)'를 소재로 한 특별한 주제전으로 관심을 받았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진에 대한 인식이 사진관 인상사진으로 알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개인전, 더구나 백로를 주제로 한 전시였기 때문에 놀라워 했다. 같은 해 12월 3일부터는 목포예술동인회 창립전에 참여했는데 목포예술동인회는 시, 사진, 회화, 서예 작가들의 모임으로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전시를 했다는 것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목포사진예술연구회는 후에 목포문화협회가 됐고 다시 한국사진협회로 소속을 바꾼 이후로 김상육이 1967~1968년, 1972년 두 차례 목포지부장직을 맡아 공헌했으며, 당시 남전에 근무한 뒤 1950년대 말 퇴사해서 오거리에 쌍미사(雙美舍)라는 DPE점을 경영하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당시의 사진 작품 제작은 오늘날과 같이 현상소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처방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업을 했던 일은 생활과 작품 제작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육은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개인전을 열었고, 1973년 3월 25일~31일 밀물다방에서 '학(鶴)을 위한 앤솔리지'라는 작품전을 끝으로 오랫동안 전시를 열지 못했다. '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백로를 좋아해 사진의 소재로 삼았으며 단순한 생태 사진에 그치지 않고 시적(詩的)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출했는데, 1980년대 자신의 생업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난 이후 목포의 동호인들과 소식이 끊기고 여생을 제주도에서 보냈으며 타계한 후 한참 만에 목포에 소식이 알려졌다.(박종길)

김성규(金星圭, 1863~1936)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관료. 호는 초정(草亭), 자(字)는 보형(寶衡),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농업 개혁 정책을 지닌 사상가이자 지방 관료로, 퇴임 후 목포에 자리를 잡고 활동했다. 1863년 충청북도

연풍군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원래 경북 문경 지역에 세거하다가 조부인 석근(稾根)대에 전라남도 무안군 해전면 석룡리로 이주했다. 아버지 병옥(炳昱)이 현 충북 괴산군에 해당하는 연풍현감을 지낼 당시 김성규가 출생했다. 1887년 광무국(礦務局) 주사(主事)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유럽 국가에 대한 전권 공사의 서기관이 되어 홍콩에 가서 체류한 이색적인 경력이 있다. 이후 고창군수, 장성군수, 무안감리를 거쳐 1905년 강원도순찰사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약 18년간 공직에 종사하였다. 목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은 1903년 무안감리서 감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감리서란 개항장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설치한 관청의 이름이다. 무안감리서는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개항장 내에서의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위해 설치되었다. 당시까지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서의 명칭이 무안감리서로 붙여지게 되었다. 김성규는 6대 무안감리로 약 1년 정도 재임하였다. 이때 지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른 관리들이 일본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상황임에도 주체적 신념을 가지고 조선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상황이 『무안보첩』 기록에 잘 남아 있다. 특히 1903년 일본 상인들의 횡포에 대한 조선인 부두노동자들의 노동쟁의 시 일본 낭인들이 감리서에 난입하여 갖은 행패를 부린 큰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때도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조선 노동자들 편에 서서 조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주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목포 지역의 대표적인 유지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퇴임 후 김성규는 목포와 장성을 오가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우거나 그 시기에 설립된 민족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가로 변모하였다. 전남 최초로 생긴 농업은행(1906년)과 현준호가 주축이 된 호남은행(1920년)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목포에서는 목포창고금융, 동아고무공업, 목포양주 등에 투자하였다. 또한 '상성합명회사(祥星合名會社)'를 직접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부동산 매입, 농업, 임업, 금전 대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회사를 기반으로 1934년에는 조정 김씨 종중재단(宗中財團)인 보은사(報恩社)를 창립하였다. 안동 김씨에서 분파해서 조정 김씨의 시조가 된 것이다. 지역 유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유달산에 있는 목포시사(木浦詩社)의 전신인 유산시사(儒山詩社)의 건립과 운영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시사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1921년 목포청년회 발기 시 고문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김성규는 현 북교동성당 일대에 '성취원(成趣園)'이라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목포 사람들은 이곳을 '김장성 댁'이라고 불렀다. 무안감리를 하기 전에 장성군수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김성규는 슬하에 김우진, 김철진, 김익진 세 아들을 두었다. 김우진은 국내 근대 극작가의 효시이자 가수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투신한 인물로 유명하다. 둘째인 김철진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공산당, 목포신간회 운동에 참여했으며, 1935년 발간되었던 『호남평론(湖南評論)』의 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목포부회, 전남도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셋째인 김익진은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본

인은 평생을 야인으로 사회봉사를 하며 천주교인의 삶을 살았다. 김성규의 묘는 무안군 해제면 옛 임치진 터에 있고, 그의 유품은 목포문학관 김우진실에 전시되어 있다. 영정을 비롯해서 전권공사관의 서기관, 전라남도 양무감리 임명장, 무안감리 임명장, 무안항 재판소 판사 임명장, 강원도 순찰사 임명장 등과 관복, 관직에 있을 때 사용하던 인장함, 나전칠기 내사장, 홍콩에서 구입한 사물함 등이 있다. 관련 기록으로는 문집인 『초정집』이 남아 있으며, 목포시사에는 김성규가 쓴 ‘유산정(儒山亭)’ 편액이 남아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전남대 호남학연구단, 『호남인물 기초자료』, 전남대 출판부, 2006; 최성환 외, 『목포의 역사와 이야기 100선』, 목포시, 2009; 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 11 -조선생활관 3-』, 사계절, 2004;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 사이트(<http://historycontents.net>) 「서해안인물열전 -무안감리 김성규-」.

김암기(金岩基, 1932~2013)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서 출생하여 목포에서 유치원부터 목포사범학교까지 마쳤다. 1970년대에서 1995년에 이르도록 목포의 모든 예총 행사가 오거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시절, 진정한 오거리의 터줏대감이었다. 목포에서 자라 목포를 지키며 단 한 번도 목포를 떠난 적 없이 오직 화필 하나만 들고 목포의 미술과 문화예술계를 지켜온 최후의 감시원이라고 해서 그 누가 반대할 것인가! 김암기의 존재는 바로 예향 목포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요, 산증인인데 그 누가 그의 앞에 서서 목포의 미술을 이야기 할 것인가? 아침 배들이 떠나가고 저녁 배가 돌아오는 배경으로 용머리를, 그리고 유달산을 눈부신 빛으로 표현해 온 목포의 대표적인 화가 김암기, 그는 불사초처럼 그 날갯짓을 펴리며 병마와 싸우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의 예술세계를 정리했다. 필자는 어느 날 유달산 자락에 있는 그의 화실을 방문했다. 흰색과 청회색이 주조를 이룬 환상적 분위기, 독창적인 나이프 기법, 저 밑 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깊이와 무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작품소재, 이런 것들이 필자로 하여금 범상치 않은 화격을 느끼게 한다. 샤갈의 그림과 루오의 그림이 합쳐지는 이미지랄까? 유달산의 바위와 달빛, 고향바다, 입춘 무렵, 동화시대의 연작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그의 그림세계는 깊은 종교적 심성과 맞닿아 가고 있는 듯 보였다. 1959년 목포에서 서양화에 관심 있는 십대들의 모임인 ‘네오나르전’을 창립하여 서양미술을 개척해 왔으며, 1991년에는 한국예총도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앞장섰다. 서울, 제주, 광주, 목포 등에서 12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프랑스 르싸롱전 등 국제전 출품을 비롯해 수 많은 단체전 및 초대전에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전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전국무등미술대전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목

포시민상, 남농예술문화상, 성옥문화대상, 전남예술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3년 11월 4일에 타계하였다. 2016년 그의 작품 및 소장품 543점을 목포시에 기증하였다. 「삼학도이야기」, 「유달산초기」, 「N화백과 죽동골목」 등을 비롯한 유화 158점과 크로키 95점을 비롯해 소장품인 도자기, 수석 등 245점이 포함되어 있다.(김병고)

[참고자료 : 목포시·목포백년회,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1997; 「목포시민신문」 2013.11.08.]

김영자(金英子, 1922~2015)

무아의 경지도 단숨에 그려내는 영감의 화가, 목포 최초의 여성화가 등 술한 별칭이 뒤따라 붙는 화가이다. 1943년 일본 도쿄 우에노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배웠다. 귀국 후 천경자와 함께 한국 여류화단을 이끌었으며, 크로키 분야에서 독보적인 일가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다. 젊은 시절에는 나무를 즐겨 그렸고 노년에는 농악과 유달산, 삼학도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농악시리즈」, 「군무」, 「탈춤」 등으로 ‘김영자 화풍’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화 크로키도 독특한 경지를 보여주는 화풍으로 꼽힌다. 서양화지만 작품은 한국적인 풍경과 풍속화를 그려 ‘김영자 화풍’을 이뤘다. 1938년 제17회 선전에서 ‘반찬의 재료’라는 그림으로 입선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니, 입상 경력으로 본다면 호남 최초의 여성 화가이기도 하다. 그는 자연과의 대화로 고독을 이겨내곤 했다. 유달산과 항구, 시장터 아낙네 등의 모습에서 찾아낸 토속적인 작품들, 향토성이야 말로 붓의 터치와 색채적 실험, 자신의 사상을 담는 새로운 방법 등을 시도하는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 그의 삶에서 눈여겨 봐야 할 또 다른 아름다움은 해방정국, 6·25전쟁 등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현실 속에서 슬픔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3년부터 목포토박이 모임 ‘예목회’를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고, 목포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1945년에 목포공보관에서 제1회 유화개인전, 서울롯데화랑 오픈 기념전으로 제35회 유화개인전, 1990년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55회 유화개인전, 목포MBC 초대로 제65회 개인전을 열었다. 1988년에는 ‘Salon de Paris’ 특별 초대작가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015년 1월에 최근 20여 년 동안 작업한 유화 크로키 작품을 선보였는데 생전 마지막 전시로 남게 되었다. 2013년 자신이 아끼던 작품들을 목포시에 기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남여성플라자 내에 ‘김영자미술기념관’을 건립하여 대표 작품을 전시해 놓았다. 목포시민의 상, 전라남도 예술문화상,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하였다.(김병고)

[참고자료 : 목포시·목포백년회,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1997; 김영자미술기념관; 재봉틀의 국어방

김영하(金永廈, 1903~1959)

목포시 초대 시장. 호는 해봉(海峰). 광산 김씨. 김희현의 5남 중 3남으로 태어나 유년기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1921년 장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3월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0일 조선 독립 만세 사건으로 종로서에 수감되었다. 1929년 6월 10일 6·10만세운동 3주년 기념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퇴학당했다가 1932년 3월 복학하여 1933년 연희전문대학 상과 4년을 15회로 졸업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33년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에 사재를 털어 형설학원을 설립하고 농촌의 무산 아동과 20세 이상 무필자를 대상으로 야학을 실시하였으며 1938년에는 주간 교육도 실시하면서 지역의 문맹퇴치에 앞장섰는데 형설학원은 8년 동안 운영되었다. 1934년 장성금융조합장에 취임하였고 1936년 월평공립보통학교 위원, 1937년 장성산업조합 평의원, 1938년 장성군농회 평의원, 1939년 장성군 황룡면장, 1946년 3월 영광군수, 10월 화순군수, 1947년 2월 해남군수, 5월 전라남도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10월 내무국 공보과장, 1948년 6월 해남군수, 12월 나주군수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949년 6월에는 목포부윤에 임명되었다. 1949년 8월 15일에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목포부가 목포시로 개칭되면서 초대 목포시장이 되었다. 목포부에 근무 당시 목포시립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각 동 회장 회의를 통한 소통 행정을 실시하였다. 목포시 유달산 입구에 있는 해봉사는 그의 호를 따서 설립된 사찰로서 사찰의 편액은 한학에 능한 그가 직접 쓴 것이었는데 2005년 태풍 사라호에 의해 파손되었다. 6·25전쟁을 맞이하여 해군의 구조로 시민들과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1950년 8월 15일 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제주도 총무과장에 임명되었고, 9월엔 다시 전라남도 내무국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51년 충청북도 산업국장, 1954년 전라북도 문교사회국장, 1955년 전라남도 문교사회국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에는 농과계인 황룡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농사 관계 과목을 가르치게 하였다. 학생 수는 100~120명 정도였고 동화, 삼계 등 외지의 학생들도 통학하였다. 그는 농민가를 지어 계몽의식을 고취하였는데 학교에서도 마을 연극 공연 때에는 같이 불렀다. 1959년 6월 장성 황룡에서 지병으로 56세에 생을 마쳤다. 장성군 문화원에서는 행정관료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2014년에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원황룡에 기적비를 세웠다.(김병록)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6. 15. 「6월 사건과 6·10만세」; 『동아일보』, 1935. 05. 10. 「형설학원 낙성」; 『전남일보』 1975. 01. 06. 「광복 30년 6·25 동란」.]

김용구(金容九, 1933~2015)

무안군 현경면 출생으로 1947년 목포상업중학교를 거쳐 1958년 광주사범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하였다. 2008년 그의 개인전에서 최재환 시인은 “그의 그림은 노적봉, 백양사, 윤림산방, 가거도에 서 보듯이 성실하고 착하다. 그의 그림은 항상 만족하지 않고 불만투성이며, 사물을 단순화 시킨다고 하지만 화면에 너무 욕심이 많다. 남에게 신세를 지면 10분의 1이라도 신세를 갚아야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견문을 넓혀 명작을 남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애정을 느끼는 작품과 이유는 1979년작 「정답」이며 국전에 처음 출품하여 첫 입선된 작품으로 인물의 표정, 동작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며, 그 어느 작품보다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으로 정감이 간다. 우리는 그의 인간성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평소에 겸허하면서도 말이 없고 묵묵히 실천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특히 작품 제작에 꾸준한 인간성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은유하면서도 내면에 숨어 있는 섬세하게 떨고 있는 감수성이 명석하고 강한 의지력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도 진실함과 소박함이 드러나 보이며, 마치 고향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하고 따스하며 서정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고 한 바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전라남도 미술대전·전국 남농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한국 미술협회 자문위원, 목포예총 고문, 목포미술협회 고문, 삼목회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2008년까지 모두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1969년부터 2014년까지 오송우미술관 초대전에 120회에 걸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생업」(1978), 「정답」(1979), 「추석전날」(1980), 「가을의 여심」(1980), 「목화 따는 아가씨들」(2007), 「평화」(2011) 등이 있다. 1983년 송암창작대상, 1996년 남농예술문화상, 2013년 전라남도 예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10월 3일에 소천하였다.(김병고)

[참고자료 : 박석규 교수 제공 자료; 목포시·목포백년회,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1997; 최재환, 「점선과 성실로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 화가 -김용구 화백의 『우리들의 고향 사랑전』에 부쳐-」, 2008.]

김우진(金祐鎭, 1897~1926)

한국 근대극의 선구자. 1897년 전남 장성에서 김성규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호는 초성(焦星) 혹은 수산(水山)이다. 1903년 장성 군수였던 아버지가 무안(현 목포) 감리로 발령을 받으면서 목포시 북교동 46번지 성취원(成趣園)으로 이주하였다.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목포북교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구마모토농업학교에 입학하였고, 1924년 와세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26년 가정·

사회·애정 문제로 빈민하다가 당시 「사의 찬미」로 유명했던 가수 윤심덕(본명 윤수선)과 함께 29세의 젊은 나이로 현해탄에 동방 투신자살했다. 한마디로 그는 전근대와 근대의 해협을 항해하다 침몰한 난파선이자,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비운의 천재였다. 김우진은 와세다대학교 재학시절부터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논치오, 보들레르, 브라우닝, 하이네 등 독일과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시작(詩作)을 하였고,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마르크스 등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고 냉철한 서구적 교양과 인격을 갖추었으며, 본과인 영문과 재학시절에는 종합예술인 연극에 심취했다. 그리하여 1920년 조명희, 홍해성, 고한승, 조춘광 등 유학생들과 함께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였고, 1921년에는 ‘동우회순회연극단(同友會巡廻演劇團)’을 조직하여 국내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한 김우진은 아버지가 물려준 ‘상성합명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는 한편, 1925년 목포 지역 최초의 문학동인회인 ‘Socie Mai(5월회)’를 조직하여 리더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구마모토농업학교 시절부터 습작활동을 통해 문학을 향한 꿈을 키워오던 그는 대학에 들어간 1920년부터 1926년 8월 사망하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정오」, 「이영녀(李永女)」, 「두더지 시인의 환멸」, 「난파」, 「산돼지」 등 희곡 5편을 비롯하여 시 50편, 소설 3편, 번역 3편, 연극 및 문학평론 20편 등 문학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표현주의에 입각한 희곡 「이영녀」는 당시 유달산 밑 사창가(현 양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근대극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우진은 한국 최초의 자유시인 주요한의 「불놀이」(『창조』, 1919)보다 앞서 근대시를 실험했고(미발표 습작시),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당대 비평계의 허구성을 비판했으며,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근대극다운 희곡작품을 썼다. 그리고 서구를 풍미했던 표현주의 문예사조를 받아들여 문단에 소개하고, 그것을 직접 창작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표현주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우진은 비록 목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11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목포에 살면서 일본 유학을 통해 배운 근대사상과 근대문학의 씨앗을 뿌린 ‘목포 최초의 근대 지식인이자 근대 문인’이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꼬트머리에 자리한 항구도시 목포는 어느 도시보다 일찍 근대도시로 깨어났으며, 훗날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다수 배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목포 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만하다. 김우진이 살았던 집터이자 상성합명회사가 있었던 방대한 대저택 성취원은 현재 북교동 성당이 들어서 있으며, 입구 쪽에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이라고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있다. 또한 그의 시신이 없는 초혼묘는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몰피산에 있으며, 목포문학관 ‘김우진관’에는 육필 원고를 비롯한 유품 141점이 보관·전시되어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

김익진(金益鎭, 1906~1970)

사상가이자 언어학자.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호는 야인(野人)이다. 1906년 유달산 아래 북교동에서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우진, 김철진의 동생이다. 훗날 대구로 이전하여 생을 마쳤기 때문에 목포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성규의 아들로서 목포 도시 1세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며, 한국 천주교와 번역 작가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18년 3월 25일 목포공립보통학교(9회)를 졸업한 후 대전중학교,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중국 북경대학교에 진학하여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언어에 대한 재능이 특출하여 영어를 비롯해서 6개 언어에 능통했다. 1930년대 초반 중국 북경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던 모택동[마오쩌둥]과 친교를 갖고 공산당에 입당하여 홍군에 가담하였다. 일본 유학 도중 중국으로 건너간 것 자체가 아시아 대륙에서 일제를 몰아내는 혁명대열에 참여한다는 신념이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모택동의 예하 부대인 홍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목숨을 겨우 연명했는데, 1년 반만에 북경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김성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김익진은 강제 귀국하게 되었다. 중국 혁명군에 참여하면서 극심한 사회주의 사상가의 길을 가고 있던 김익진은 한 권의 책을 계기로 천주교에 몰입하게 되었다. 1935년 어느 날 도쿄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접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전기』라는 책을 읽고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토마스 데 아퀴노의 『가톨릭과 경제문제』라는 책을 독파하고, 어려운 사회경제문제 해결은 희생이 뒤따르며 기약조차 없는 혁명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포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성직자 프란치스코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맹세의 의미로 세례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했다. 그는 광복이 되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목포와 장성 일대의 소작인을 불러다가 “이제 나는 지주 행세하며 토지세 받던 어제의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소유권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양도해 주었다. 토지는 경작하는 자의 소유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천주교를 접하면서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실천한 것이다. 1940년 장성으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장성성당을 건립하였고, 가산을 정리하여 광주교구에 헌납하였다. 1948년 대구로 이주하여 왜관의 순심중학교 교장, 김천성의중학교 교감을 역임하였고, 6·25전쟁 중에는 『가톨릭 시보』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경주근화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기도 하였지만, 1955년부터는 문필생활에만 전념하여 여러 번역서와 저술을 남겼다. 그 후 종교인이자 번역 작가로서의 삶은 ‘한국의 성 프란

치스코'로 불리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딸인 김화영(김익진의 7남매 중 3녀)씨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들이 다니던 성당에 교무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자식들의 불만이 컸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어머니 덕분에 견딜 수가 있었다. 김익진 인품의 고귀함은 구상 시인의 회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상 시인은 6·25전쟁 시 대구로 피난을 갔다가 김익진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나눴다. 구 시인은 김익진과 만남의 시간을 '영혼의 놀이터'라고 표현하였으며, "선생과의 추억들을 생각하면 불과 엇그제같이 내가 몸소 체험한 일인데도 천 년 전 신라시대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의 일화나 설화를 회상하는 느낌이다. 이렇듯 선생은 각박한 현존에서부터도 초월된 삶을 사시다 가셨다."라고 회고하였다. 김익진은 1970년 1월 6일 고혈압으로 사망하여 대구 범어동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주요 저서로 『동서저편』(1971), 『민속과 서학』(유고집, 1971)이 있으며, 번역서 『레지오 마리에 직무수첩』(1956), 『동서의 피안(彼岸)』(1961), 『동방문화와 공교(公敎)』(1965), 『내심낙원(內心樂園)』(1966) 등을 남겼다.(최성환)

[참고자료 : 김화영,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야인 김익진」, 『경향잡지』95-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 사이트(<http://historycontents.net>) 「서해안 인물열전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야인 김익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정수(金正洙, 1910~?)

노동운동가. 전남 해남군 계곡면 출신으로 영암 계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휘문고등보통학교 4년을 마친 다음 도쿄 와세다대학 고등학원에서 유학했다. 1928년 도쿄에서 1928년 9월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선동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국내로 보내어 배포하게 하여 구속되었으며 192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석방된 이후 해남과 목포에서 사회주의 운동자들을 결집하여 노동자, 농민 조직을 건설하고자 했다. 1931년 목포로 이주한 이후 1932년 7월 이기동, 조점환 등과 함께 비밀결사 레닌주의자동맹(이후 공산주의자동맹으로 개칭)을 조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결성과 공산주의자 그룹의 통일을 목표로 활동했다. 목포공산주의자동맹은 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을 총괄하는 지도부로 동맹을 조직하고 그 아래 대중단체들을 결성하려 했다. 여러 공장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려 했으며, 1933년에는 산하에 목포노동조합을, 1934년 1월에는 목포적색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목포 지역 학생들로 독서회를 만들었으며 학교마다 조직을 결성했다. 김정수는 해남에서 농민조직의 결성에도 주력했는데, 마을에 야학회, 농민계, 소비조합 등 합법적 조직을 기반으로 비합법 농민조합을 결성하려 했다. 무안군의 여러 섬에서

어민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4년 해남에서 조직이 탄로나 조직활동을 주도한 김정수를 비롯하여 목포와 해남, 강진, 완도, 영암에서 수십 명의 청년이 체포되었으며 1936년 목포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영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이종률 등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9(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398).]

김정재(金正財, 1932~1998)

서예가. 1930년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 도고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신안교육청 장학사, 영암 용당초등학교 교장, 신안교육청 학무과장, 교육장 직무대리를 거쳐 목포산정초등학교 교장으로 1997년 2월 퇴임하였다. 1998년 전라남도 교육위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12월 12일 타계하였다. 교육계에서 올곧은 공직자였고 서예계에서는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진도 출신 소전 손재형의 제자였던 남정 최정균에게 사사받았다. 여러 차례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1974~1975, 1977~1978, 1980~1981)과 1978년 제14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82년 국전에서 특선을 하여 초대 작가가 된 후 전남도전 운영위원·심사위원과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중앙 서단과 목포 서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목포와 한국 서예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79년 개인 서예전에 이어 1986년 6월 목포 황실다방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 서예미의 아름다움을 보여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1992년과 1996년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목포 서단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시 측후동 자택에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서법을 지도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청목회라는 서예 모임을 만들어 1991년 목포MBC 전시실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격년으로 전시를 개최하였다.(강수남)

김준형(金浚炯, 1914~2008)

기업가. 1942년 목포시 산정동에 부친 김창훈과 함께 행남사(杏南社)란 이름으로 처음 창업,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과 꾸준한 기술개발로 거듭되는 성장을 이루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본차이나 제품을 자체 개발했고, 1972년에는 제2공장, 1978년에 제3공장을, 1984년에 제4공장, 1985년에 제5공장을 준공하여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였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아 전통적인 사기그릇에서 1957년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본차이나 제조기술과 첨단 울트라 파인 제조 기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과거 수출 불모의 시절인 1963년, 홍콩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수출 2억 5천만 불의 실적을 올려 국내 도자기 업계 수출 1위 업체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준형 창업주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국내 최대 도자기 수출 공로로 1994년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1998년까지 경영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장남인 김용주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신소재 개발과 제품 품질관리 개선 등에 힘써왔다. 또한 전남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 중앙위원, 국제라이온스 309-C지구 총재, 목포시자연환경보호협회의회장, 목포 개항100주년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목포백년회 이사장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70~1980년대에 이르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기가 생활 자기로 교체되면서 커피 문화도 자리 잡게 되던 시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화된 공장이 많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IMF 위기도 겪었지만 그 후 중국 등지에서 저가의 제품이 공급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정기영)

김진섭(金晋燮, 1903~ 6·25 때 납북)

한국 수필문학의 비조(鼻祖). 김진섭은 1903년 목포시 남교동(현 죽동) 135번지에서 당시 무안감리서 관리 김락현(경북 안동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청천(聽川)이다. 7세 때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 제주 정의(旌義)로 이주하여 정의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무렵 다시 나주로 이주하였다. 1916년 서울로 이주하여 양정고보(현 양정고등학교)를 1920년에 졸업하였다. 1921년 일본 호세이대학 전문부 법과에 입학하였으나 독문과를 선택, 1927년에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8·15 광복 후에는 서울대·성균관대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6년에는 『독일어 교본』을 엮어내기도 했다. 1950년 6·25 때 논문집 『교양의 문학』 원고를 출판사에 남겨놓고 납북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애초 김진섭의 문학적 관심은 수필 창작이 아니라 연극 활동을 위한 해외 문학작품 번역에 있었다. 1926년 일본유학시절 손우성, 이하운, 정인섭 등과 ‘해외문학연구회’를 결성하여 1927년 귀국 후 『해외문학』 창간에 참여하였으며, 카프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결하여 해외문학 소개에 진력하였고, 평론 「표현주의 문학론」을 비롯하여 독일 문학을 번역·소개하였는데, 서항석, 이현구, 유치진 등과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1930년 『중외일보』에 최초의 수필 「인간문학론」을 발표하면서부터 수필가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때부터 약 20년 동안 200여 편에 달하는 수필과 평론을 남긴 그는 1947년 첫 수필집 『인생예찬』과 1948년 수필가로서 위치를 굳힌 『생활인의 철학』, 1950년 『교양의 문』을 발간함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 김진섭의 수필은 일상의 생활을 철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렸으며, 또 그것을 유려하고도 꾸밈없는 문체로 표현

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餘技) 정도로나 여겨왔던 수필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 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로 불린다. 대표작으로는 「백설부」, 「주부송」, 「모송론」, 「교양에 대하여」, 「수필의 문학적 영역」 등이 있는데, 이 중 「수필의 문학적 영역」은 한국 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이자 그의 문학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글로 꼽힌다. 그러나 김진섭은 출생 사실만 제외하면 목포 출신 문인이라기보다 고향인 안동 출신에 더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목포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어린 시절의 한때를 조부모의 고향 안동에서 보냈으며, 7살 때 제주도로 이주하여 목포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 스스로 「없는 고향 생각」이라는 수필에서 “나는 불행히도 고향에 대해서는 극히 산만한 인상 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향에 두고 온 이야기 역시 기억할 바이없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안타깝지만 목포에 관한 글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포에는 김진섭의 문학 기념비가 두 개나 서 있다. 향토문화관(현 목포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앞뜰(1990, 우리문학기림회)과 갯바위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는 도로변 우측 언덕(1998, 한국문인협회)에 세워졌다가 목포문화관 뜰로 옮겨진 것이 그것이다. 거기엔 ‘청천 김진섭 선생의 고향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비문의 명칭은 목포가 그의 출생지일 뿐 고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당하다. ‘고향’이란 원래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이라는 뜻이다. 아니면 ‘태어나서 자라난 곳’, 그것도 아니면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s.com/>).]

김철진(金哲鎭, 1905~1971)

사회운동가, 언론인. 1905년 무안감리를 역임한 대지주 김성규의 둘째 아들이며, 극작가 김우진의 동생, 사회주의자 김익진의 형이다. 일본 구마모토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도시샤(同志社) 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다(일부 기록에는 중퇴했다고 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27년 2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졸업했다). 1927년 6월에는 신간회 목포지회가 설립되자 상무간사가 되었다. 1927년 여름 신간회 하기 강좌, 전남청년연맹의 하기 강좌의 강사로 활약했으며, 8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고려공청 목포 책임자로 활동했다. 전남청년연맹, 목포청년연맹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1928년 조선공산당 조직이 발각되면서 구속되었으며, 192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옥한 이후 사회운동에서 손을 떼고 목

포창고금용회사, 동아고무, 목포양주, 호남제탄 등 기업의 임원으로 사업을 벌였고, 1930년 『호남 평론』의 책임자가 되어 지역 현안과 시사, 문예 등이 실린 종합잡지를 계속 발간했으며 1935년에는 주식회사 호남평론을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1937년 동아약업회사를 창립하고 사장이 되었으며, 1936년 목포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목포 지역 유지 좌담회’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3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1935년 목포부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36년 1월 무안 지역 전남 도의회 보궐선거에 의원으로 당선되어 연임했다. 해방 직후 『목포신보』를 인수해 『목포일보』로 바꾸고 경영에 참여했으며 1951년에는 목포상과대학 2대 학장에 취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1971년 사망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동아일보』 1930. 12. 23.; 『동아일보』 1936. 08. 06.; 『동아일보』 1937. 08. 01.; 『동아일보』 1937. 11. 17.]

김현(金炫, 1942~1990)

불문학자, 문학평론가. 1942년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광남(光南)이다. 진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같은 해 7월에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의 아버지는 목포 공설시장 앞에서 구세약국(救世藥局)을 열어 양약 도매업을 했는데, 충청 이남의 양약 공급을 장악할 만큼 사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목포중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문태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곧바로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경복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및 동대학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60년대 초반 김지하, 최하림 등과 함께 목포 오거리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익혀 나간 김현은 1962년 서울대 불문학과 재학시절에 『자유문학』에 문학평론 「나르시스의 시론 -시와 악의 문제-」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했다. 같은 해 여름 김승옥, 최하림 등과 함께 동인회 ‘산문시대’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주도했다. 2호부터 강호무·김산초·김성일·염무웅·김치수·서정인 등이 가세한 이 동인회는 1968년 이른바 4·19 세대가 대거 참여한 동인회 ‘68그룹’ 결성과 1970년 가을 김현·김병익·김치수·김주연 등이 창간한 문학 계간지 『문학과 지성』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그는 『문학과 지성』(약칭 ‘문지’)의 문학적 이념과 편집·기획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평론을 발표해 한국 평론문학의 독보적 존재로 군림하다가, 1990년 6월 48세라는 짧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현은 죽은 뒤 “1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평론가였다.”(시인 황지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대의 한국 문학에 넓

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또래가 4월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민주정신을 승계한 적자라고 굳게 믿으며 식민지 언어가 아니라 한글로 사유하고 한글로 글을 쓴 제1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엄청난 독서량과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 분석, 인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드넓은 지적 관심, 그리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비평을 창작에 기생하는 장르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끌어올린 최초의 비평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의 비평 문체는 이른바 ‘김현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들이 즐겨 읽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비평의 영역에 있어서 먼 훗날까지도 뛰어넘기 어려운 봉우리로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으며, 이 땅에서 가장 독창적인 언어 세계를 보여준 비평가였다. 김현은 살아생전 240여 편에 달하는 문학평론과 저서를 남겼다. 김윤식과 함께 『한국문학사』(1973)를 펴냈으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경향들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존재와 언어』(1964)·『한국문학의 위상』(1977)·『분석과 해석』(1988) 등의 저서를 펴냈다. 또한 그는 불문학자로서 좀 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우리 문학을 읽어내고 거기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외국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보여 『바슐라르 연구』(곽광수와 공저, 1976), 『현대비평의 혁명』(1977), 『문학사회학』(1980),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1989), 『시칠리아의 암소』(1990) 등을 펴내기도 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평론집 『말들의 풍경』(1990), 유고일기 『행복한 책 읽기』(1992) 등이 나왔으며, 1993년에는 문학과지성사에서 『김현문학전집』 전 16권이 집대성되었다. 외국문학 논문상(1988), 제1회 팔봉비평문학상(1989) 등을 받았다. 그러나 김현은 목포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은(10년 미만) 데다가, 평소 지방색(전라도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로 가급적 전라도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고, 전라도 출신 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김현 문학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고인과는 문학적 성향이 다른 목포작가회의라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1995년 김현문학비건립위원회가 세운 김현 문학비가 목포문학관에 있으며, 2011년 목포문학관에 ‘김현관’이 들어섰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com/>).]

나달수(羅達洙, 1917~2010)

기업가. 조선면화주식회사(朝鮮棉花株式會社) 사장 역임. 일제 강점기의 조선면화주식회사가 해방 이후 나달수의 관리 하에 경영되었다. 당시 조선면화의 공장은 나주·이리·목포 세 곳에 농림부 산

하의 조면공장이 있었고, 목포 해안동에는 상공부 관할의 직포공장이 있었다. 공청자본은 2천만 원, 운영자금은 1억 원이었다. 당시 조선면화는 원동기 460마력, 조면기 200대, 직포기 158대를 갖추고 있었다 한다. 1952년 12월 「상공회의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53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및 24개 지방상공회의소가 법인체로 인가받았다. 이후 1954년부터 38개 지방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으며, 나달수가 목포상공회의소의 초대회장(1954. 1. 20~1957. 11. 9)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정기영)

문일석(文一石, 생몰년 미상)

작사가이자 문인. 1935년 이난영이 불러 국민가요로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는 가요 「목포의 눈물」의 작사자이다. 이 노래는 1935년 오케레코드에서 실시한 ‘조선 10대 도시 찬가모집’에 응모된 작품이다. 공모 취지에 맞게 항구도시 목포의 향토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라는 가사가 주목을 받았다. 3백 년 전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면서 활약하던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노래로 더 사랑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사전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삼백년 원앙봉’이라는 다소 의미가 모호한 가사로 바뀌서 음반 가사지가 취임되었지만, 실제 부르는 사람은 모두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으로 불렀다. 구전에 문일석은 이 가사말로 인해 일본 경찰에 끌려가 호된 문초를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문일석은 「목포의 눈물」을 발표한 후 요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목포 향토사학자 이생연의 증언에 의하면 문일석은 “이난영의 오빠 이봉룡 씨와는 친구였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목포의 눈물」 이외의 작품이나 행적은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목포에 전해오는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목포의 눈물」 외에도 문일석이 작사한 대중가요가 꽤 여러 편 남아 있다. 현재 작사자 문일석의 이름이 들어 있는 작품으로 확인된 것은 총 8편이다. 「목포의 눈물」(작곡 손목인, 노래 이난영, 1935년 8월), 「홍등야화」(작곡 태평레코드, 노래 최남용, 1938년 7월), 「사나이 걷는 길」(작곡 김송규, 노래 김해송, 1938년), 「목포의 추억」(작곡 이봉룡, 노래 이난영, 1939년 1월), 「향수의 휘파람」(작곡 이봉룡, 노래 이인권, 1939년 2월), 「뒷골목 청춘」(작곡 이봉룡, 노래 남인수, 1939년 8월), 「그 여자의 눈물」(작곡 이봉룡, 노래 이화자, 1940년), 「가로등 일기」(작곡 이봉룡, 노래 성일, 1941년) 등이다. 이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문일석의 작품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목포의 눈물」과 함께 문일석이 만든 목포 관련 대표 노래는 1939년에 발표된 「목포의 추억」이다. 작곡자는 목포 출신이며 이난영의 친오빠인 이봉룡이고, 노래는 이난영이 불렀다. 목포 사람이 작사, 작곡, 노래를 함께한 의미 있는 일제 강점기 대중가요이다. 가사 중에는 ‘고하도’, ‘갯바위’ 등 향토 지명이 등장하며, 마지막 소

절 ‘남쪽의 저 하늘가 고향 목포에 가고파’라는 이난영의 애잔한 목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오는 곡이다. 문일석은 주로 이난영 일가인 김해송(이난영 남편), 이봉룡과 협력하여 대중가요 노랫말을 만들었다. 그는 대중가요 작사 외에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1937년에 발행된 『호남평론』 8월호에 「바닷가에서」라는 시가 ‘일석(一石)’이라는 필명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문일석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목포 출신 수필가인 차재석은 “호남평론의 편집실은 목포문단의 사랑방이었고, …… 「목포의 눈물」을 작사했던 문일석 씨 등이 호남평론의 단골손님이었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문일석의 실체에 접근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목포 문인 박화성이 남긴 단편적인 기록들이 거의 유일하다. 박화성은 자신의 애창곡인 「목포의 눈물」과 관련된 1974년 3월 24일자 한 신문 인터뷰에 “특히 노래의 작사가 문일석 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집안끼리 아는 분의 아들로 나보다 몇 살 아래인데, 가끔 시를 써서 나한테 보이고 평을 요구하기도 했다. 험잡한 용모에 문재(文才)가 뛰어난 문학청년이었다. 그는 작가로서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일찌감치 요절하고 말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그의 자서전적 작품집인 『눈보라의 운하』에도 “저 유명한 「목포의 눈물」의 노래를 지은 문일석 군은 꽤 영롱한 시를 쓰더니 요절했”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박화성이 1940년 시기를 언급한 부분에 문일석 요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 목포문화원에서 발행한 향토지(『마파지』)에 문일석의 원래 이름이 ‘윤재희(尹在熙)’라는 글이 소개 된 이후 지금까지 문일석의 본명이 ‘윤재희’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원래 ‘해남 윤씨’인데 집안의 반대로 문일석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며, 목포북교초등학교, 전주 고,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 후 목포에서 살다가 요절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집안 족보에 윤재희가 1920년생으로 되어 있어 나이상으로 활동 시기가 맞지 않고, 목포 북교 졸업생 명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최성환)

[참고자료 : 화성, 「잔인한 구월들」, 『눈보라의 운하』(박화성 문학전집 14), 2004, 223쪽; 차재석, 「세 마리의 학은 아직도 -목포문학의 발자취-」, 『다목동 차재석 유고집』, 세종출판사, 1991, 57쪽; 목포문화원, 「목포의 눈물 노래와 이난영 -‘노래말을 지었던 윤재희’」, 『마파지』(목포향토지 10), 1994, 244쪽.]

문재철(文在喆, 1883~1955)

사업가, 교육자. 본관은 남평. 1883년 12월 24일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문태현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재철의 집안은 한말~일제 강점기 암태도의 대표적인 지주였다. 암태도에서 염전 경영, 남강나루를 활용한 소금 판매, 암태도 공장도 관리 등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하였다. 소작료

인상을 통한 지주 경영으로 그의 토지는 암태, 도초, 자은, 지도 등 현 전남 신안군 일대는 물론 전남 북, 충남북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문재철의 가혹한 소작료로 인해 암태도 소작쟁의를 시초로 1920년대 중반 전남의 여러 섬 지역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1930년대 들어 문재철은 농업회사나 농장과 같은 상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또한 간척지 개간사업을 추진하여 1940년대 조선인을 대표하는 대지주로 성장했다. 목포가 1897년 개항된 이후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재철은 사업가로서도 여러 분야에서 수완을 발휘했다. 은행, 운수 창고, 인쇄업, 제조 공업, 금융 신탁, 양조업, 상업, 농림업 등에 참여하였다. 상업부문으로 목포창고금융(이사, 1919), 남일운수(사장, 1924), 전남백화점(이사, 1920), 경일상고(사장, 1931), 선일척산(사장, 1935), 목포해운회사(이사, 1940), 금융부문에 호남은행(이사, 1920), 전남신탁(이사, 1929), 산업부문에 동아고무(이사, 1925), 목포양주(이사, 1929), 전남면화(이사, 1933), 남성정미공장(사장, 1939) 등에 투자하였다. 사회 활동도 활발했다. 1920년 목포청년회 창립 시 평의원을 맡았고, 1922년 9월 2일 목포청년회 임시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23년 4월 목포청년회가 이사제로 개편되면서 회장과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전남도평의회 의원(무안군), 목포부의회 의원, 목포부 학교평의원 등을 지냈다. 지역사회에서 문재철의 최대 공로는 1941년 문태중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그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법인 문태학원을 설립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친일행적도 남아 있다. 그는 흥아보국단 설립준비회 전라남도 도위원(1941), 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 참가 및 평의원(1941)을 지냈다. 문재철은 1955년 사망했으며, 1993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교육 유공자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받았다. 일제 강점기 신문자료에 목포 인물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가 문재철이다. 소작쟁의 관련 '악덕지주'라는 표현과 학교 설립 관련 '목포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공존한다. 그에 따라 문재철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친일지주적 측면과 민족주의자라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박천우, 「한말 일제하 지주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박찬승,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전개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5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정병준, 「암태도소작쟁의 주역의 세 가지 길 - 서태석·박복영·문재철-」, 『한국민족운동사연구』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장시원,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박길수(朴吉洙, 1928~1994)

역무원. 펠라콩 박길수는 1928년 전남 장흥군 대정면 평촌리에서 박권섭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

는 선천적인 소아마비와 손발이 떨리는 증상, 입이 틀어져 어눌한 말투에다 왜소한 체격 등 중복장애를 타고 났지만 천성이 긍정적이고도 부지런했다. 박길수가 열두 살 때 큰형의 오랜 병환으로 살림이 기울자, 그의 가족은 고향인 장흥을 떠나 목포로 나와 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목포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며 틈틈이 부모 일을 돕던 박길수는 자발적으로 역내 청소를 열심히 하는 등 근면성실함을 인정받아 목포역 정모의 조수로 고용된다. 정모는 기차에 실어 온 화물을 대합실의 손님에게 운반해 주는 짐꾼으로, 보통 빨간모자[赤帽]를 쓰고 근무하여 아까보(あかぼう)라고 불렸다. 박길수가 ‘멜라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모습이 사무라이 영화의 등장인물 멜라콩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목포역은 1913년 5월 15일, 호남선의 목포-학교 간으로 개통되었다. 호남선 부설 당시 약 10만 평의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된 역사 주변은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이 차고 빠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현재 목포 구도심은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곳으로, 일제 강점기 금융가가 밀집되어 있는 선창을 위시하여 목포역을 중심으로 주요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역사 주변에는 하수로와 갯벌이 그대로 있어 안쪽으로 물이 들어왔다. 남교동 수문통으로 뻗어 있던 갯고랑이 한국통신 앞에서 역전 광장을 돌아 동명동 앞바다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까지도 목포역 옆길(역전파출소에서 우성마트 방향)은 복개되지 않은 넓고 긴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인근 사람들이 목포역으로 가려면 5백여 m가량을 돌아서 가야 했다. 특히 하천 건너편인 동명동 어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해산물을 팔아서 먹고사는 보따리 장수들이 기차를 놓쳐 발을 동동 구르거나, 기차 통학생들은 지각을 빈번히 하게 되고, 목포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과 직접 기른 농산물을 새벽녘에 나와 팔다, 아침이 되면 파장하는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불편도 뒤따랐다. 이를 보다 못한 박길수는 직접 목포시청을 방문하여 다리를 놓아줄 것을 애원하지만 예산문제로 거절당하면서 정신이상자 취급까지 받게 된다. 이후 그는 직접 다리를 놓기로 결심하고 모금운동에 나선다. 자기 몸도 성치 않은 주제에 꼴값을 떠나는 비웃음과 비난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역사 주변 상인들은 다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네 상가를 지나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박길수를 집단 폭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길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비를 털어 다리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시멘트를 직접 구하러 다녔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이들이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다. 영화필름 배달 일로 안면이 있는 남일극장 김제형 사장을 비롯해서, 목포역 근처 사창가 아가씨들도 성금을 보냈다. 마침내 그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인 1964년 4월 20일, 다리가 완공된다. 박길수가 자비 60만 원을 털어 만든 다리를 사람들은 ‘멜라콩 다리’라고 불렀다. 통나무를 세우고 구멍 뚫린 철판을 깐 게 전부였지만 지름길로 날듯이 목포역을 드나들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다리였다. 그로부터 한 해에 착한 일을 하나씩 하는, 일년일선(一年一善)을 다짐한 박길수의 선행은 쪽 이어진다. 당시 목포역을 이용

하는 승객들은 화물보관소가 없어 장 보따리와 짐 꾸러미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았다. 박길수는 이들을 위해 사채 4만 원과 기부금 1만 2천 원을 들여, 1965년 3월 31일 무료 화물보관소를 만들고, 1967년에는 20평 규모의 무료 숙박소도 완공한다. 여기에는 박길수의 사비 5천 원도 들어갔다. 목포역의 보안관을 자처한 멜라콩. 평소 그는 역사를 배회하는 떠돌이 소년들이 깡패들에게 구타를 당하면 이들을 데려다 치료해 주고, 무작정 고향을 등지고 나온 섬 처녀들이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히면 필사적으로 구출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추위에 떨며 대합실에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떠돌이 소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박길수는 그들을 무료합숙소에 재우며 국수를 삶아 주기도 했다. 심지어 부랑아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놀다 화물을 불태웠을 때도 자기가 화물주에게 대신 변상해 주며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멜라콩다리 완공과 함께 대통령과 목포시장, 역장, 인권옹호회 등으로부터 많은 상장과 부상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때의 화재로 불타버렸다. 1986년 7월, 박길수는 소화물을 운반하던 중 실수로 다리가 골절돼 기존의 업무를 못하게 되지만 목포역 소화물 취급소 노조원(박영순 분회장 등 32명)들의 배려로 화물포장 등 가벼운 일을 맡게 된다. 평소 그는 몸이 불편해 수입이 적어도 고객에게 팁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지갑을 발견하면 꼭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40여 년 동안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목포역을 지켜 온 박길수는 2남 3녀의 자식들을 보란 듯이 잘 키워냈으며, 그의 지난 삶은 목포문화원 추천으로 KBS논픽션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1989년 1월 7일 밤 10시 30분부터 60분간 전국에 방송된 「멜라콩을 아시나요」는 윤홍식 PD가 연출했는데, 그는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했다. 퇴직 후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내던 박길수는 1994년 67세의 일기로 작고했으며, 멜라콩다리는 1970년대 복개되면서 자취를 감췄으나 표지석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다. ‘목포역 정모 박길수, 멜라콩 다리. 서기 1964년 4월 20일’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처럼 멜라콩 박길수는 불편함을 넘어선 노동의 신성함을 자부심으로 안고 살다 갔다.(정경진)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목포시 보도자료]

박상렬(朴相烈, 1897~1981)

애국지사. 목포 3·1운동 주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미곡상을 하고 있던 박상렬은 오랫동안 친교가 있던 남궁혁(南宮爌)이 목포에 와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논하자, 목포의 청년·학생들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박상렬의 회고에는 남궁혁이 일본 유학생이라고 했으나, 광주 3·1운동을 주도했던 남궁혁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1882년생인 남궁혁은 배재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세관원으로 재직하다 목포 영흥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광주 송일학교로 옮겨 재직 중이

었다. 남궁혁은 2·8 독립선언문을 국내에 반입한 김마리아의 큰형부였는데, 김마리아가 도쿄에서 서울로 가기 전 광주를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언문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남궁혁과 박상렬은 동생 박상순, 박상오, 권영례, 오재복, 이금보 등을 규합하여 시위운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던 기독교인들과 협력하여 3월 중순에 거사하기로 했으나 3월 10일 광주의 시위 이후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 4월로 늦췄다. 박상렬과 박상오는 태극기와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쌀가게에 보관했다. 박상렬은 거사를 위한 준비자금도 조달했고, 4월 7일 독립선언서와 경고문을 목포 시내에 배포했으며, 4월 8일 아침에는 목포상업학교 학생 150여 명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박상렬과 상업학교 학생들의 행렬은 남교동 공설시장 앞에서 일제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고, 박상렬도 체포되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1919년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문백란, 「남궁혁의 신학사상 연구 -1930년대 신학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영례 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743).]

박승희(朴勝熙, 1971~1991)

민주열사. 전북 전주에서 박심배, 이양순의 1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어릴 적 목포로 이사하여 목포북교초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 목포와 무안을 오가며 무안초, 무안북중을 졸업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쟁이였다고 한다. 그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당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사회의 모순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87년 목포정명여고에 입학한 후 담임인 구신서 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구신서 교사가 참여하는 목포 지역 고교생 YMCA(이하 고교Y)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고교Y는 풍물강습, 독서토론, 노래 배우기, 시사토론 등을 하는 목포 지역 사회봉사활동 단체였다. 이 활동은 이후 그녀의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되었고 고 정부와 학교는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해 부당징계를 내리게 된다. 정명여고에서는 구신서 교사를 비롯해 김대중, 고윤혁 등 10명의 교사가 해직되었으며, 목포 전체로는 총 41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되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의 징계철회 투쟁이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목포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생회 중심의 ‘목포 지역 고등학생 연합’과 ‘자주교육쟁취 고등학생연합’(이하 자고연)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녀는 자고연 지도부로 선출되어 해직교사 복직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1990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였고, 교지 『용봉』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편

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일 편집실 청소를 도맡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또 외국산 커피와 콜라는 마시지도 않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샴푸와 린스 대신 세탁비누와 식초로 머리를 감는 등 생활 속 운동 실천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혼란스러웠던 정치상황은 그녀에게 가혹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게끔 흘러갔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6월 항쟁을 이루어 냈던 학생과 시민들은 큰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국을 타개하고자 노태우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였고 전국을 공포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1990년 새해 벽두에 놀랄 만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노태우가 김영삼, 김종필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선언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1991년 4~6월에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으며, 노태우 정권은 이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1991년 4월 20일 전남대 5·18 광장에서 열린 ‘민중탄압 분쇄와 4·19 계승제’에 참석했던 전남대 학생 최강일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왼쪽 눈을 실명했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위해 시위에 참가했던 명지대 강경대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였다. 연이어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에 박승희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등교를 할 만큼 큰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녀는 시대의 불감증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과 사랑도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군상들에 대해 한탄하며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또 1987년 목포대학교에서 분신 항거했던 박태영 열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녀는 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진 열사들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유서에 의하면 4월 27일 분신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때와 같은 나날을 보내었다. 1991년 4월 29일 전남대 5·18 광장에서 ‘강경대 살인 만행 규탄 및 살인 정권, 폭력 정권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승희는 이 대회에 참석하여 ‘민족해방가 2’를 불렀다. 이후 자리를 빠져나온 그녀는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몸에 불을 붙였고, 불길에 몸을 감싸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쓰러졌다. 분신 후 그녀는 곧바로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에서도 ‘노태우 정권 퇴진, 미국 놈들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쓰며 사투를 벌였지만 5월 19일 12시 50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991년 5월 25일, 전남도청에서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고(故) 박승희 열사 민족국민장’이 거행되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박승희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이 시기를 이른바 ‘분신 정국’이라 부른다. 강경대의 죽음을 시작으로 박승희,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5월 10일 노동자 윤용하 등이 잇따라 분신하여 이른바 ‘분신 정국’이 조성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분신 정국을 타개하고자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했다는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하였다. 이 조

작 사건으로 인해 노태우 정권은 운동권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고,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이었던 1992년 5월은 사그라지게 되었다. 1998년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 열사 추모사업회’가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2004년 11월 27일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 정신 계승사업회’로 명칭과 정관이 변경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전남대학교 일원, 광주5·18민족민주열사묘역과 목포정명여고 후문 홍상 앞에서 그녀를 추모하고 있다.(곽재구)

박애순(朴愛順, 1896~1969)

3·1운동 지사. 목포 출신으로 정명여학교를 거쳐 1915년 광주수피아여학교를 1회로 졸업했다. 1회 졸업생은 박애순과 표재금 2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모교 수피아여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다. 1919년 박애순은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읽어 주며 독립 사상을 고취했으며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광주에서 만세 시위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강의 부탁을 받고, 학생들에게 “만국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승인하여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도 참여하여 만세를 불려야 한다.”고 참여를 설득했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독립선언서 문치를 학생들에게 분배하게 하고 양림리부터 광주 작은 시장 집결지, 광주 시내를 누비는 만세 시위에서 학생들을 이끌었다.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윤선자, 「한말 전남지역 종교단체의 애국계몽운동」, 『역사학연구』21, 전남사학회, 2003; 이기훈, 『일제하 광주 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박연세(朴淵世, 1883~1944)

목사. 1883년 전북 김제시 용지에서 농사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군산에서 활동하던 전킨(W. M. Junkin, 전위렴)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전킨이 있는 군산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김제 신명학당에서 후배들을 가르쳤으며 이때 김신애와 결혼하였다. 이후 모교인 영명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구암교회 교인으로서 그곳에서 1916년 안수집사, 1918년 10월 35세에 장로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때 군산 지역 거사를 준비하던 중 사전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2년 6개월 복역하였다. 형기를 마치고 39살이던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25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익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으며, 1926년 9월 목포양동교회에 10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의 사역 시기 목포 지역 사회도 근

대화 바람에 팽창·발전하였고, 교회도 성장하며 커지자 지역별로 나뉘어 교회를 분립하였다. 중앙교회, 죽교교회, 연동교회 등 목포의 기독교 역사를 잇고 있는 주요 교회들이 이때 생겨났다. 1927년 19회 전남노회장을 시작으로 이후까지 4회씩이나 전남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 통치와 함께 신사참배 강요로 전국적으로 총회와 각 노회들도 배교의 뼈아픈 결정들을 취했으니, 박연세 역시 당시 전남노회장으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목포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요 총회 총대로서, 또 전남노회장으로서 책임 있게 처신하지 못했다. 일제의 강압에 마지못해 한 결정이었으나 신앙의 지조를 상실하고 배교를 선택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 또 일부 뜻있는 신자들의 비판으로부터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 이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과 투철한 민족주의 사고를 회복하고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천황 숭배 강요를 거부하며 곧은 길을 가려 애썼다. 설교를 통해, 천황을 찬양하라는 부탁에는 오히려 일제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기독교단원이 발족하면서 목포 시내 여러 교회를 통합하라는 지시에는 연동교회 이남규 목사와 함께 반대하였다. 이 일로 두 목사 등 교회 신자 30여 명이 일경에 구속, 불경죄, 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박연세는 1년 동안 미결수로 있다 1943년 10월 목포지법에서 1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으로 넘겨졌으며 판사 앞에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천황도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대구형무소 차디찬 감방에서 옥고를 겪다 1944년 2월 15일 동사(凍死)하였다. 자녀로는 외동딸 박지영 권사가 있으며 사위는 광주수피아여고 교장을 지낸 김오봉 장로이다. 1990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김양호)

박태영(朴泰泳, 1967~1987)

민주열사. 1967년 9월 9일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서 박형림, 유수자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목포대성초등학교, 문태중학교, 덕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탐구력이 강하고 진취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성적이 우수하며 명랑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지도력을 겸비한 개성이 뚜렷한 학생”으로 적혀 있다. 생활기록부상의 10대 시절의 박태영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부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쓴 일기장엔 당시의 한국 사회를 ‘위선이 가득한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역겹다’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는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현실을 직시한 그는 1987년 목포대 경제학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목포대 입학 후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목포대 신문에 지원하였다. 그는 신문을 지원하면

서 지원서에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인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젊은 혼을 불사르길 원한다’고 적었다. 군부독재가 계속되면서 사회 모순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열기 넘치는 그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신문사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권력의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관제 언론을 비판하는가 하면 대학 언론의 사회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가 대학생활을 시작한 1987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1986년 계속되었던 개헌 정국은 12월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새해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나왔고 민주화 세력은 다시금 동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정국을 장악하고자 했으나 이어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사건이 폭로되고 6월 항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드디어 시민, 학생들의 손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직선제 쟁취 후 민주화 세력은 다시금 분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후보단일화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후보 단일화’, ‘비판적 지지’, ‘민중 후보 추대론’으로 각각 분열되어 가고 있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는 각각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 등 지역주의에 편승하려 하고 있었다. 일련의 분열 과정을 보면서 박태영은 많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즉각 행동에 들어갔으며, 1987년 10월 29일부터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였다. 피켓에는 ‘이 땅의 민족 지성인에겐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억눌림도, 갈라짐도, 분노도, 저항도, 시행착오도, 피 흘림도, 여기서 끝냅시다. 민주인본(民主人本)’이 적혀 있었다. 이 피켓 시위를 통해 그는 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분열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위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 “민주화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등하굣길에는 정문에서, 수업 시간에는 교정에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모든 수업을 거부했으며, 학생들을 향해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 교육 실시하라.”,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교련교육 철폐하라.” 등을 외치며 동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태영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는 전달되지 못했다. 10월 10일 김영삼이 통일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공식 출마하였다. 이에 항의해 김대중은 10월 18일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였고, 11월 12일 평화민주당 창당 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결국 김대중과 김영삼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만을 남겨놓았다.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던 박태영에게는 큰 상실감이었다. 박태영은 1인 시위를 계속 했으나 민주화 세력은 분열이 확실시되었고, 기말고사와 방학을 앞둔 목포대 학생들의 호응도 크지 않았다. “민주화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아마도 이때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정 한쪽에서 일기장, 노트, 사진첩 등을 불태웠다. 12월 9일 목포교 교사였던 박홍근의 집에서 열린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 참석한 후인 12시 30분

경 목포대 후문 부근에서 ‘군부독재 타도’, ‘제도교육 철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투쟁에 돌입한지 42일째 되는 날이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는 목포시립의료원(현 목포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화상이 심각해 오후 2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쾌차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10일 오후 4시 26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학생과 시민 500여 명은 경찰의 침탈을 막고자 철야 투쟁을 진행하며 분향소를 지켰다. 민주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민주세력은 ‘애국학생 고(故) 박태영 열사 장례위원회’를 결성하고 장례를 ‘애국학생 고 박태영 열사 민주도민장’으로 결정했다. 장례 위원장엔 문정식 목사, 집행 위원장엔 박흥도 목포대 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장례 위원으로 김영진, 홍남순, 조아라, 조비오, 임기준, 장하원, 윤기석, 정상용, 안철, 배종렬, 박석무, 신기하, 문병란, 장만동, 명노근 등이 참여했다. 12월 12일 광주도청 앞 광장에서 ‘애국학생 고 박태영 열사 민주도민장’이 거행되었으며, 망월동 오월묘역(묘지번호 78)에 안장되었다. 박태영의 뜻을 기리고자 목포대학교 학생들은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으며, 추모 문집 『지난 겨울의 죽창가』를 발간하였다. 또 추모곡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가 만들어졌으며, ‘박태영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0일 망월동 묘역에서는 박태영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곽재구)

박화성(朴花城, 1904~1988)

소설가. 1904년 목포시 죽동 9번지에서 박운단의 4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경순이고, 화성은 아호이자 필명이며, 호는 소영(素影)이다. 10세 때 고등과 3학년에 편입하고 월반을 거듭하여 12세 때 정명여학교(현 목포정명여중)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서울숙명여고보(현 숙명여고)를 졸업한 뒤, 1929년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를 수료했다. 1988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9번지 삼호빌라 1동 203호 자택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그녀의 문학적 혈통을 장남 천승준(문학평론가), 차남 천승세(소설가), 3남 천승결(전 서울대 영문과 교수), 만며느리 이계희(소설가)가 잇고 있다. 박화성이 본격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영광중학원 교사 시절 동료교사였던 시조시인 조운에게서 소설을 쓸 것을 권유받으면서부터이다. 그녀는 1923년 21세 때 최초의 단편소설 「팔삭둥」을 『자유예원』에 발표하고, 「추석전야」를 조운이 당시 계룡산에 내려와 요양하던 춘원 이광수에게 보임으로써 『조선문단』에 추천을 받아 1925년 문단에 데뷔하였다. 등단은 1920년대에 했으나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시기는 1930년대부터인데, 그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 춘원의 재 추천으로 1932년에 발표된 「하수도 공사」이다. 그리고 같은 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편소설 『백화』를 6개월 동안 180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장편 작가로서 역량을 보였다. 1933년에는 중편 『비탈』과 「두 승객과 가방」, 「떠내려가는 유서」를, 1934년에는 「혈어진 청년회관」, 「논 갈 때」를 각각 발표

했다. 계속해서 1935년 자전적 소설인 「북국의 여명」과 「눈 오던 그 밤」, 「홍수전야」, 「중국어날」을, 1936년에 「고향 없는 사람들」, 「춘소」, 「불가사리」를, 1937년에는 「온천장의 봄」을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1938년 이후엔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과 일본어 사용의 강요가 노골화되자 절필하고 낙향하여 후배양성에 전념했다. 한편,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한 이듬해인 1927년 그녀는 여성 항일 구국 운동 및 여성 지위향상 운동 단체인 '근우회' 동경지부 창립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살아생전 20여 편의 장편소설과 100여 편의 단편소설, 그리고 500여 편의 수필과 시를 남긴 박화성은 1920년대를 풍미했던 '동반자 작가'로서의 작품 경향과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녀는 초기에 목포를 배경으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고된 삶을 다룬 사회성 강한 소설을 썼는데, 동반자 작가의 경향이 강한 「추석전야」, 「하수도 공사」, 「홍수전야」, 「헐어진 청년회관」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중 「헐어진 청년회관」은 일제 때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의 보금자리였던 목포청년회관(현 남교소극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서 역사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원래 이 작품은 『조선청년』 창간호에 실으려 하였으나 총독부의 검열로 전문 삭제 당하자 팔봉 김기진이 은밀히 복사해 두었다가 광복이 되자 목포에서 발간한 『예술문화』에 발표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다. 박화성은 유독 이 땅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작가로 유명하다. 1925년 목포에 최초로 건립된 방직공장의 여공들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추석전야」로 문단에 데뷔함으로써 '최초의 여성 소설가'가 되었고, 1932년엔 『백화』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최초의 장편 여성 작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15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선생으로 교단에 섰으며,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한 최초의 한국 여성이었다. 또한 그녀는 목포에서 출생하여, 상당 기간 동안 목포에서 활동하였고, 주로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점에서 '진정한 목포 출신 문인'이라고 하겠다. 한국여류문학인회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펜클럽 세계연차대회 한국대표, 대한민국 예술원회원을 지낸 바 있는 박화성은 살아생전 뛰어난 문학적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문화훈장, 한국문학상, 3·1 문화상, 제1회 예술원상, 목포시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박화성이 장편 『백화』를 비롯한 작품들을 집필하였고, 당시 목포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용당동의 '세한루'는 헐어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데, 최근 목포시에서 인근에 박화성문학공원을 조성했다. 현재 그녀의 모교였던 목포정명여중 교정에 문학비가, 목포문화관 입구에 흉상이 세워져 있다. 또한 목포문화관 '박화성관'에는 육필 원고를 비롯한 많은 유품들이 보관·전시되고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s.com/>).]

배치문(裴致文, 1890~1942)

3·1운동 지사, 노동운동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목포로 이주했다. 목포상업학교를 다녔다고 하며 양동교회를 다녔다. 1919년 4월 8일 목포 3·1 운동에 참여하여 구속되었다.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의열단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된 배치문도 본적과 연령이 일치하므로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배치문의 의열단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던 것은 확실하다. 이후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1924년 목포 무산청년회에 참여했으며, 1924년 10월에는 보천교성토연설회 연사로 참여했다. 1925년 1월 무목청년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의장이 되었다. 무목청년연맹은 대중 본위의 신사회 건설과 무산 대중 해방운동의 선구가 되자는 강령을 내세웠다. 1925년 8월 서병인, 조극환, 설준식 등과 함께 사상단체인 목포전위동맹을 결성했다. 전위동맹은 목포 지역 노동자의 실상을 조사하고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조합 설립운동을 추진하여 목포 지역 노동자의 조직화와 파업 투쟁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배치문은 무목노동연맹의 교호부장을 맡았고, 목포 면업노동조합의 이사로 참여했다. 1925년 10월 8개 단체와 1,77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노동총동맹이 창립되자, 서무부 상임위원이 되었다. 대체로 서울청년회 계열이었으나 1926년 3월 김철수의 보증에 의해 화요회가 주도한 2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목포제유공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월 석방되었으며 1927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에 가입했다. 제2차 조선공산당 가입이 발각되어 1년 6개월간 복역했으며 1929년 3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신간회 목포지회장이 되었으며 1930년 2월 상하이에서 잠입한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수와 만나 농민과 노동자의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새로운 당건설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전달받았다. 1930년 4월 이후 배치문은 목포 지방열성자대회를 열어 목포노동연맹을 부활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으나 김철수가 구속된 후 조직이 탄로나 8월에 다시 구속되다가 1931년 2월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이후에도 목포경찰서에 의해 몇 차례 검속되었으며 『조선일보』 목포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목포기자단에 참여했고, 1933년에는 『동아일보』 목포지국 기자가 되었다. 1937년 12월까지 『호남평론』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1941년 3월 10일, ‘소위 일본의 대동아전쟁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니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는 발언으로 체포되어 1942년 5월 20일, 53세의 나이로 목포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직계 가족은 그의 사후에 모두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소식이 끊겼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이기훈, 『일제 하 광주 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

도, 2011: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http://blog.naver.com/baguni11>); 『동아일보』 1924. 02. 14.; 『동아일보』 1924. 02. 16.; 『동아일보』 1929. 03. 8.; 『동아일보』 1930. 09. 19.; 『동아일보』 1932. 03. 10.; 1933. 09. 27.; 권도균(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제공 자료.]

법정(法頂, 1932~2010)

승려, 수필가. 속명(본명) 박재철(朴在喆).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서 태어나 우수영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목포로 유학하여 목포상업중학교(6년제)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전남대 상대에 진학하였으나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4년 출가를 결심하고 오대산에 가다 서울 종로의 선학원(禪學院)에서 효봉(曉峰) 선사를 만나 그의 문하로 출가하였다. 그 전해에 대학을 휴학하고 목포 정혜원에서 학생회 총무를 맡고 있던 중 그곳에 잠시 머물고 있던 효봉 선사의 제자 일초(一超) 스님(시인 고은)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55년 사미계를 받고 통영 미래사, 하동 쌍계사 등에서 효봉 선사를 모시고 생활하였고, 해인사 전문강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1959년 3월 15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었고, 같은 해 4월 15일 해인사 전문강원을 마쳤다. 이후 산사에서 수행하다 1960년 운허(雲虛) 스님의 요청으로 통도사에 가서 『불교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다음해 『불교사전』이 완성된 뒤에는 운허 스님과 함께 서울 봉은사로 옮겨 불경 번역 사업에 동참하였다. 1967년 운허 스님 주도로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을 추진하는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후에는 역경 위원으로 참여하여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등을 번역하였고, 1974년에는 서경수 교수와 함께 주요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집한 『우리말 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불경 번역과 함께 1970년부터는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의 주필과 논설위원 등을 맡아 불교 언론 활동을 주도하며 불교계의 문제점과 개혁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에도 승려의 입장에서 인생과 사회의 문제를 논하는 칼럼을 다수 발표하였다. 1972년 언론에 발표한 글을 모아 『영혼의 모음』을 간행하면서 수필가로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본격화되자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회의회를 결성하고 유신헌법 철폐 운동에 참여하였다. 1975년 인혁당 사건과 장준하의 의문사 등을 겪으며 보다 근원적인 사회 변화의 기반과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효봉 문도들의 본사인 송광사로 돌아와 수행에 매진하였다. 1975년 10월에는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생활하며 불교 본래의 집착 없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다음해 수필집 『무소유』가 간행되면서 그의 소박한 수행자로서의 삶과 결부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송광사에 머무르는 동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단기 수련을 주관하는 수련원장과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선양하는 보조사상연구원장을

맡은 것 이외에는 일체의 보직을 맡지 않았고 일체의 명예와 영향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였다. 1992년에는 아예 강원도 오대산 외딴 산골로 들어가 화전민이 버리고 간 오두막에서 생활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갔다. 동시에 불교 승려로서 불교계가 신자와 일반인들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직접 일반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게 변화해 갈 것을 주장하였다. 철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頓悟頓修)가 불교계를 풍미할 때에는 승려들의 중생에 대한 보살행의 실천 역시 중요하며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와 사상에 대한 집착까지 버리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 모든 인류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의 건설을 추구하였다. 1994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모임을 결성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세상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연을 보존·보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시인 백석(白石)의 연인이었던 김영한이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성북동의 요정을 사찰로 기증하겠다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1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다 부득이 수용하여 이곳에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 도량 길상사를 지어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1997년 12월의 길상사 개원 법회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여 축하하자 다음해 2월의 명동성당 백주년 기념식에 축하 강연을 하여 종교 간 화합의 모범을 보였다. 길상사 창건 이후에도 한 달에 두 차례의 법문을 위해 방문하는 이외에는 줄곧 오대산 오두막에 거주하며 홀로 생활하다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였다. 2010년 3월까지 180쇄를 간행한 『무소유』를 비롯하여 『산방한담』, 『텅 빈 충만』, 『오두막 편지』 등의 베스트셀러 수필집과 많은 기행문, 번역서를 남겼지만, 이생의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간행물을 절판하라는 유언에 따라 모든 저술들은 2010년 연말까지만 판매되고 모두 절판, 수거되었다.(최연식)

[참고자료 : 백금남,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은행나무, 2010; 장혜민,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삶으로 가르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산호와 진주, 2010.]

서병인(徐炳寅, 1896~1948)

노동운동가, 정치가. 전남 무안 출생. 목포상업학교를 다니다 면화 중개업에 종사했다. 1925년 이후 목포 지역 사회주의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목포 전위동맹에 참가하고 목포면업노동조합, 무목노동연맹과 목포노동총동맹 등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1927년 8월 제3차 조선공산당에 참가하였고 1928년 2월에는 조선공산당 전남도책이 되었으나 구속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기 조국환과 극적인 갈등을 빚어 신간회 목포지회의 내분을 가져오기도 했다. 1932년 전남노동협의

회 사건으로 한때 검속되었으며 1933년 잡지 『신세기』를 발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검거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했고,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도 대의원으로 참여했다. 1946년 전농 측 대의원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참여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민전 서울지부 재정 부장을 역임했다. 사회노동당에 참여했다가 1947년 이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인민당 결성에 참여하여 1947년 4월 근로인민당 총무부 책임자가 되었으며, 사무차장으로 5월 창당대회의 사회를 보기도 했다. 여운형의 사망 이후에도 근로인민당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8월 15일 구속되어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1948년 9월 사망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경향신문』 1947. 04. 15.; 『경향신문』 1947. 05. 25.; 『동아일보』 1947. 05. 28.; 『독립신보』 1948. 09. 08.]

서상봉(徐相鳳, 1870~1927)

3·1운동 지사. 목포의 자산가이며 유진 벨 선교사의 전교로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계의 원로로 1898년 양동교회 설립부터 참여한 장로였다. 기견(岐見)이라는 이름도 사용했다. 1907년에는 영흥 학교 후원자 명단에도 올랐다. 1919년 양동교회 신도 곽우영, 서화일, 박여성 그리고 광주와 목포 지역에서 더불어 활동하던 정명여학교 교사 강석봉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남궁혁, 박상렬, 권영례 등 청년 학생들과 연대하여 4월 8일의 시위를 준비했으며 오전 10시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목포간이상업학교 등 학생과 기독교인, 시민들의 만세 시위 행렬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일본 헌병들이 칼을 휘두르며 체포하는 바람에 팔에 부상을 입었고, 수감생활과 고문으로 상처가 악화되어 5개월 후 병보석되었다. 일설에 그 다음해인 1920년에 사망했다고도 하지만 1923년 서기견이 목포양동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선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이기훈)

[참고자료 :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황성신문』 1907. 08. 03.; 『황성신문』 1908. 08. 19.; 『동아일보』 1923. 04. 16.]

서화일(徐化壹·徐化一, 1881~1936)

애국지사. 목포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며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운동을 벌였다. 박복영의

증언에 의하면 1918년 박복영, 배치문 등과 함께 일심회를 결성했다고 한다. 박여성, 곽우영, 강석봉 등 양동교회 교인들과 서상봉 장로의 집에 모여 만세 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목포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석방된 후 1923년 목포양동기독교청년회 종교부장을 맡았고, 1925년 정명여학교 동맹휴교 사건으로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학부형회의 교섭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동아일보』 1923. 04. 16.; 『동아일보』 1925. 09. 14.; 『동아일보』 1972. 06. 17.]

서희환(徐喜煥, 1934~1995)

서예가. 호 평보(平步). 1934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태어났다. 1955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목포유달국민학교로 발령을 받고 10년 동안 재직하다가 무안군으로 이직하였다. 2년 후 목포중앙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에 있는 진도 출신 소전 손재형에게 사사를 받았다. 서예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부터 익히 알려졌는데 당시 학교 강당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서예 실력이 뛰어났다. 어려운 교통 여건 속에서도 서울까지 다니면서 서예 공부에 열중한 결과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1966년, 1967년 2년 연속 특선하였고 노산 이은상의 시 『조국강산』을 한글 전서체로 쓴 작품이 1968년에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 결과로 1969년 봄,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영전되었다가 그 후 다시 수도여자사범대학교 교수로 영전되었다. 국전 초대 작가로서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글 서체 연구에 몰두하여 1974년에 첫 번째 작품집을 출간하였고 1982년에 두 번째에 이어 1988년에 세 번째를 출간하였다. 1995년 4월 향년 63세의 나이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묵은 영산호 준공 기념비, 유달산 입구 조각공원 표지석, 유달산 충혼탑, 4·19학생의거 기념비 등 곳곳에 남아 있다.(강수남)

[참고자료 : 서희환, 『평보 서희환 서예 작품집』, 일지사, 1975.]

손수겸(孫守兼, 생몰년 미상)

언론인. 출생지 미상. 해방 후 목포에서 맨 처음으로 신문을 발간한 언론인이다. 일제 강점기 말엽 수년 동안 『경성일보』 목포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목포에서 해방을 맞아 시류를 관망하던 중 정보에 대한 시민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언론 동지들을 모아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9일에 『목포신보』의 속간호를 발행했다. 그가 새 신문을 창간하지 않고 일제 때 발행된 『목포신보』의 속간호를 내게 된 것은 해방 직후라 신문을 발행할 만큼의 한글 활자와 공무 요원을 구하기가 힘든데다 『목포신보』 사옥이나 시설, 그리고 요원까지도 『목포신보』의 인적 물적 토대를 이용해야 했으므로 요원들 다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목포신보』의 후신인 『목포일보』, 그리고 『목포일보』의 후신인 『호남매일』이 1973년 5월 31일자로 폐간되면서 지령 12,777호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도 해방 직후에 발행된 『목포신보』가 일본어판 『목포신보』의 속간을 자처하면서 지령까지도 계승했던 까닭이다. 손수겸에 의해 발행된 『목포신보』는 활판 인쇄에 타블로이드 4×6판, 내용은 활자 사정 때문에 우리말 기사와 일문 기사를 같이 싣는 형식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한글 활자가 확보되는 대로 차츰 일문 기사를 줄여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비록 미약하고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신문은 발행되면서부터 날개가 돋친 듯 팔려 나갔다. 하지만 손수겸은 목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1946년 3월 초 강대석, 문재철, 김철진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목포신보』인수팀에게 신문 경영을 맡기고 목포를 떠나 광주로 가 명창순, 고광표 등의 도움으로 『조선중보』를 발간했다. 『조선중보』는 고광표, 명창순이 신문사를 떠나고 『호남신문』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신순언(申淳彦)을 명예사장으로, 박철웅을 사장으로 영입, 『광주신보』로 새 출발했으나 그 뒤 손수겸의 활동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장용기)

손양동(孫良銅, 1916~2015)

조각가, 건축가. 호는 호당(湖堂).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림리에서 출생 후 목포로 이주하여 유년시절을 보냈다. 1928년(13세) 석공방에 입문하고, 1934년(19세)에 목포 대성동에서 석공방을 개업하였다. 이후 공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938년 제작한 해태상이 목포(현 문예역사관 뜰)에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에 강제 징용되었고, 해방 이후 가산토건을 설립하여 목포 인근에 많은 석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1951년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239호)이 있다. 그밖에 1951년 완도수산고등학교, 1954년 경동성당(목포시 문화재), 무안성당, 1956년 일로성당, 1958년 북교동성당 등을 축조하였다. 1960~1963년에는 목포성골롬반병원, 산

정동성당 석축기반공사를 하였다. 1960년대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남농 허건, 서양화가 김영자, 서양화가 김암기 등 예술인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90세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이후에는 소조, 한국화, 스케치 작업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2013년 7월 8일 목포시 문화유산 제25호 무형문화재 석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유작 100여 점이 손창식석조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손창식)

손용기(孫容基, 1898~?)

기업가. 남조선미유 주식회사(南朝鮮美油株式會社)를 경영한 기업가였다. 후에 전남석유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한다. 이 회사는 1946년 4월 손용기, 용상봉(龍相奉) 등이 발기하여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창립하였다. 목포부와 주변 9개 군에 유류(油類)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목포 용당리에 유류저장 창고를 설치하고 KOS석유저장회사 출장소를 직할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부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목포 항구로 석유가 들어와 가격을 감하시킬 수 있었다. 손용기는 또한 해방 후 적산이 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를 불하받는 데 앞장섰다. 1947년 5월 15일,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 이사에 선임됐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바탕으로 제3대(1960년 1월 20일~1961년 8월 11일) 및 제4대(1961년 8월 12일~1964년 8월 11일)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였다.(정기영)

손재형(孫在馨, 1903~1981)

서예가. 호 소전(素荃). 1903년 음력 4월 28일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에서 옥전 손병익의 손자이며 손영환의 유복자로 태어나 1920년 18세에 서울 양정의숙(현 양정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 졸업하였다. 그 해에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1930년(제9회), 1931년(제10회)에 특선을 하였다. 1932년 처음 개최되는 제1회 조선서도전에서 특선하였으며 중국의 금석학자 나진옥 선생을 찾아가 사사하였다. 제2회 조선서도전에는 심사를 하였고 조선서화협회의 이사와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활발하게 서예활동을 하였다. 1944년 당시 42세였던 그는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으로부터 추사의 대표작인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찾아 왔다. 1945년 조선서화동연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 조선서화협회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47년 재단법인 진도중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49년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이 생기면서 심사위원, 서예 분과 위원장,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소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충무공벽파진전첩비(진도 벽파진 소재) 비문을 국·한문 전·예로 쓴 것이 1956년이었다.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71년에는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예술활동도 활발하여 1961년 예술원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예술협회 이사(1962년)를 거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제4대, 제5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5·16 민족상 종합심사위원장, 예술원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8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단장, 1970년 8·15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68세). 1977년 6월 4~15일까지 『동아일보』 주최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1981년 79세로 서울 홍재동 자택에서 영면하였다. 서예는 중국에서는 서법 또는 서사, 일본에서는 서도라 하는데,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서예라 칭하게 된 것은 소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 원의는 육예(六藝)의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에서 서(書)자와 예(藝)자를 취한 데 있다. 소전이 '서도' 대신에 '서예'로 한 것은 우선 일제 강점기의 불쾌한 기억을 씻어 보자는 뜻도 있지만, 서를 일종의 수양정심(修養正心)의 도(道)로 보는 일면에 치우친 감이 강하고 본질적인 예술성이 무시된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서예라고 하면 동양적 서예관에서 '서즉화 화즉서(書卽畫 畫卽書)'라는 전통적인 의미와 함께 현대의 예술성을 띠고 새로운 서예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소전의 새로운 발상과 주장에 대하여 서예인들이 찬동하여 통용하게 되었다. (강수남)

[참고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사(韓國現代美術史) -서예(書藝)-』, 1981; 김기승, 「소전 손재형의 서예술」, 『소전 손재형 서화집』, 동아일보사, 1977; 진도균·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진도균지』,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철(安哲, 1946~2003)

민주열사. 1946년 6월 21일 전남 보성에서 안동해, 김병순의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안동해는 약업사로 동아약방을 운영했으며, 후에 한신대를 졸업하고 목포평강교회 목사로 활동하였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1986년 강상철이 분신했을 때 강상철구명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명소식』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안철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안동해라고 말했으며, 그가 기독교를 절실히 믿고 약사를 선택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목포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수감되었던 1981년 9월 23일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버님의 글을 대할 때마다 저를 사로잡는 사랑에 감동되어 마음도 몸도 녹아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아버지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목포중앙초등학교, 목포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동신제약에서 근무하다 아버지의 동아약방을 물려받아 동아약국을 개업하였다. 회고에 의하면 그는 학창시절부터 매우 총명하고 똑똑

하여 공부를 잘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내면적으로는 어린 심성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한다. 안철이 청장년을 보낸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혹했던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이었다. 군사독재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는 제약되었으며 사회의 부조리는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한편으로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장 엄혹했던 시기, 안철은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투신하기로 결정하였다. 1970년대 중반 동아약국을 운영하면서 목포 지역 재야인사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1977년 8월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했으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1979년 10월에는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목포지부를 만들어 총무로 활동하였다. 그가 운영하던 동아약국은 목포 민주화운동의 본거지였으며, 목포를 넘어 전국의 민주인사들이 찾아와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을 모색하던 곳이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일반 시민들까지 도움을 요청하러 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동아약국=안철'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박정희 사후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민주화를 열망하던 광주를 총칼로 탄압하였다. 광주 시민 학살에 분노해 일어났던 1980년 목포항쟁에서 안철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과 계엄군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기의 회수를 제안했으며, 목포의 안정을 위해 민관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위해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서 목포항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목포항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정권모 목사와 함께 27일 오후 4시경 목포를 빠져나와 무안, 영광, 전주를 거쳐 대구 YMCA에 머물렀다. 그러다 다시 부산으로 가서 문헌교회 목사를 찾아가 피신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곳에서 한 달여를 머물다가 7월 3일 목포로 돌아와 자수를 하게 된다. 군법회의의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소 처우 개선 단식투쟁을 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혹독한 고문과 무자비한 구타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1981년 3월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그해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두 번의 옥살이와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의 지병인 당뇨와 합병증을 얻게 되었다. 석방된 그는 정권의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투쟁을 꾀꿉이 이어갔다. 그가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는 수많은 유인물과 당시 금기시되던 김대중을 언급하며 '김대중 사면·복권하라'를 부착하기도 했다. 또 사재를 털어 유인물을 제작하여 민주 인사,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민주 인사들이나 시민들은 약을 사는 척하며 그가 제작한 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얻어갔다고 한다. 1986년 목포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집행위원장을 하던 중 6월 6일 청년국에서 일하던 강상철의 분신 소식을 듣게 된다. 강상철을 살리고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강상철이 죽고 그를 추모하고자

한 영결 예배마저 경찰의 봉쇄로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끝나자 많이 괴로워했다. 평소 멀리하던 술을 자주 마시면서 죽음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탓하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되뇌었다. 189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목포지부의 공동의장을 맡아 6월항쟁을 이끌었으며, 6월항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후 공정선거감시단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6월항쟁의 승리로 인해 정치인들이 해금되었으며, 1987년 7월 9일 김대중 등 공안 및 시국 관련 사범에 대한 대폭적인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로 인해 10일 안철도 사면·복권되었다. 민주화된 공간에서 안철은 현실정치에 참여하였으나 1988년,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이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연의학에 심취하여 ‘자연의학연구소’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 한 여성지에서 ‘본지가 발굴한 향토명의’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안철은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금동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의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던 중에 2003년 6월 20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 함평군 나산면 선산에 묻혔다. 2015년 망월동국립묘역(묘지번호8-47)으로 이장하였다.(곽재구)

안향련(安香蓮, 1944~1981)

판소리 명창. 광주시 광산구 송정리에서 태어나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37세의 불꽃같은 인생이었다. 7세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목포국악원 장월중선의 첫 제자가 되어 판소리를 배웠다. 10대에는 아버지 안기선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10대 후반부터 대략 24세까지 보성에서 정권진, 정응민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김소희와 연을 맺은 것은 1968년 전국국악경연대회다. 이를 통해서 보면 장월중선/안기선→보성소리(정응민, 정권진)→장영찬→김소희→안향련으로 소리 계보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자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안향련의 소리를 잇는 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후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올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안향련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장월중선, 김소희 외 몇 사람의 남성들이 있다. 사이에 아들이 있는 무안의 임씨, 박경식, 판소리 명창 장영찬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눴던 화가 모씨 등이다. 장영찬에게서 1963~1965년에 소리를 배웠다. 세간에 익히 알려진 안향련의 「심청가」는 장영찬을 통해 배운 소리이면서 보성소리 「심청가」이기도 하고 김소희를 통해서 배운 박동실 바디 「심청가」이기도 하다. 「흥보가」는 김소희의 바디, 즉 만정제 소리다. 1970년~1980년대 온 국악방송을 휩쓸며 국악계의 스타로 군림했다. 1981년 12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다. 첫 후원자이기도 했던 임씨가 주검을 모셔와 고향 무안의 임씨 선산에 모셨다. 이후 국악협회 전남지부를 중심으로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비석을 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안향련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미화된 부분이 많다.(이윤선)

유진 벨(Eugene Bell, 1868~1925)

선교사. 한국 이름은 배유지. 미국 캔터키주 스코트에서 태어났다. 센트럴대학교와 루이빌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189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목포와 광주 등 전라남도 기독교를 개척했다. 1898년 5월 15일 목포교회(양동교회)를 열고, 1903년 남녀 기독교 학교(영흥, 정명)를 설립했으며, 1904년 12월 광주로 옮겨, 25일 성탄절에 광주교회(금정→광주제일)를 시작했고, 1908년에 광주 남녀 기독교학교(송일, 수피아)를 설립했다. 평양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였으며, 1914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맡았다. 1924년 광주 금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양림교회를 분립하였으며, 1925년 9월 28일 57세로 사망,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두 번째 부인 마가렛과 함께 묻혀 있다. 그는 1894년 로티 워더스푼(1867~1901)과 처음 결혼했다. 로티는 미국 명문가 워더스푼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루이빌신학대 총장이었으며, 할아버지는 미국 독립운동을 이끈 존 워더스푼이었다. 로티 벨은 목포교회에서 남편을 도와 주일학교와 여성 사역에 헌신하던 중 1901년 4월 12일 심장병으로 일찍 사망하여 서울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었다. 유진 벨과 로티 사이에는 아들 헨리(1896~?)와 딸 샬로트(인사레, 1899~1974)가 있었다. 첫 부인을 잃고, 1904년 마가렛 휘테커(1873~1919)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들 사이의 자녀로는 윌리엄 유진(1906~1933), 홀랜드 스코트(1911~1912), 윌리엄 포드(1914~?)가 있었다. 마가렛은 광주 송일, 수피아학교에서 영어와 성경교사로 교육 선교에 주력하다 1919년 3월 26일 서울에 다녀오는 길에 경기도 병점에서 그만 자동차 사고로 숨졌다. 세 번째 부인으로 줄리아(배추니아, 1872~1952)와 1921년 결혼하였다. 그녀는 1872년 미주리주 출신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07년에 조선에 왔다. 전주와 광주에서 독신으로 교육 선교를 하다 49세에 유진 벨(53세)과 결혼,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김양호)

윤기현(尹基鉉, 1900~?)

노동운동가.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관련되어 러시아로 망명하여 모스크바 동방노동자대학을 수료하고 귀국했다. 목포로 들어와 스스로 지게꾼이 되어 노동하며 목포 자유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목포 자유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목포 지역 노동자와 청년들을 규합하여 각각 활동 분야를 정하고 목포 지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1932년 8월 지역 노동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비밀결사를 만들었다. 윤기현, 김상만, 임종술 등이 지도부를 구성한 이 조직은 목포부청 위생인부들의 동맹파업을 지도, 지원했으며 목포 선하노동조합의 파업도 주도했다. 윤기현은 목포 외에도 보성, 별교는 물론 전남북 일대에 대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 열성

자협의회를 조직하려 했으나 목포항 부두 노동자 파업 이후 체포되어 1922년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한국사연구』74, 한국사연구회, 1991.]

윤치호(尹致浩, 1909~1951 실종)

사회사업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모는 소작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부친의 사망으로 12세에 다섯 식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그러다 옥동교회를 설립한 미국 선교사인 줄리아 마틴 여사와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 신앙관을 확립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목포부 호남동 18번지에 나사렛목공소를 차려 선교자금을 충당한다. 하지만 1년 만에 나사렛목공소를 정리하고 1928년 부모 없는 7명의 아이들과 함께 대성동에 ‘함께 산다’는 의미의 공생원을 설립한다. 줄리아 마틴은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여 서울피어선고등성경학교(현 평택대) 입학권을 권유한다. 이 당시 그는 종로 YMCA에서 한용운의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였고, 특히 선교사와 유대관계가 깊어 일제 경찰의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33년 피어선고등성경학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 전도사가 되어 전라남도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목포양동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공생원은 1932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용당리에 어렵게 마련한 숙사를 태풍으로 잃고 1937년 4월 3일 유달산 뒤편인 죽교동 473번지 현 공생원 자리로 이전하게 된다. 1951년 6·25전쟁 기간 중 전남도청으로 공생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식량지원을 요청하러 광주에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좌우명은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다’이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85~86쪽; 『국민일보』 2017. 02. 24. 「‘거저대장’ 전도사와 총독부 관리 딸 비전 담긴 목포 공생원」.]

윤학자(尹鶴子, 1912~1968)

사회사업가. 일본 시고쿠 고치현 출신. 일본 이름은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이다. 1919년 조선 총독부 목포부청 관리인 부친을 따라 여덟 살 때 목포에 온다. 정명여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다 질환으로 퇴직하고, 정명여학교 선배 교사의 권유로 공생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공생원에서

설립자인 윤치호를 만나게 되고,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라 개명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1951년 공생원의 식량조달을 위해 전남도청으로 간 윤치호가 행방불명되었지만, 그녀는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 6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1963년 대한민국문 화훈장 국민장과 1965년 제1회 목포시민상을 수상하게 된다. 1967년 일본 황실에서는 그녀에게 남 수포장을 수여하였다. 1968년 56세 나이로 타계하였고, 장례는 목포역 광장에 시민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회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이후 1994년 윤학자의 생애를 조명한 한·일공동영화 「사랑의 묵시록」이 만들어졌고, 1997년 일본 고치현에 그녀의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이어 온 공생복지재단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일본에 재일동포를 위한 노인 복지 등 다양한 복지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85~86쪽; 『국민일보』 2017. 02. 24. 「『거지대장』 전도사와 총독부 관리 딸 비전 담긴 목포 공생원.」]

이기동(李琪同, 1906~?)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추자도 출신으로 중앙고보 4학년 재학 중이던 1927년 동맹 휴교를 주도하고 격문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졸업 후 목포에서 위탁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해남 출신으로 와세다대학 유학 중에 체포되었다 귀국한 김정수(金正洙), 목포에서 계속 활동 중이던 조점환과 함께 1931년부터 3인 그룹을 결성하여 지하 활동을 시작했다. 전남노동협의회 등 기존 조직이 발각되어 운동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음에 유의하여 전선의 병사와 같은 긴장감을 지니고 생명을 걸고 비밀을 유지할 것 등을 서약했다. 노동자 농민을 혁명적으로 지도할 것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 8월 하순 명칭을 레닌주의자동맹으로 결정했으며, 1933년 3월 공산주의자동맹으로 개칭했다. 당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노선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결성, 공산주의자 그룹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조직부, 선전부, 자금부를 두고 이기동, 김정수, 조점환이 책임자가 되었다. 지식인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목포 시내 노동 현황을 조사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주요 공장과 직장, 학교 등을 나누어 책임을 맡았다. 노동운동과 반제운동, 연락과 재정을 나누고 이기동이 전체 조직을 총괄하여 운동을 전개했다. 1934년 전남노동협의회 사건의 여파로 조직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경성종로경찰서, 「京鍾警高秘 제11029호의 2 -중앙고보맹휴생 불온비라 살포자 검거에 관한 건-」, 1927. 11. 20.]

이난영(李蘭影, 1916~1965)

가수. 본명은 옥례(玉禮)로 알려져 있으나 호적에는 옥순(玉順)이라 적혀 있다. 1916년 6월 6일에 목포 양동에서 출생하여 1923년 현 북교초등학교(당시 목포공립여자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9년 인 4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는데, 사유는 ‘거주지 이전’이었다. 이때 모친이 있는 제주도로 가서 약 2년 정도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932년에 태양극장(단)에 입단하여 막간 가수로 무대 활동을 시작했다. 1933년 9월에 태평음반회사에서 「시드는 청춘」과 「지나간 옛 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 오케음반회사에서 「향수」를 발표했다. 음반회사 사이의 암투 끝에 오케음반회사의 전속 가수로 1943년까지 활동했다. 1935년에 노래한 「목포의 눈물」이 큰 인기를 얻었고 같은 해에 잡지 『삼천리』사에서 주최한 레코드 가수 인기투표에서 여자 가수 부문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193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영화인 「노래 조선」에 출연하는 한편, 일본 테이치쿠음반회사에서 오카 란코(岡蘭子)라는 예명으로 「하루노 칸키[春の歡喜]」(테이치쿠 50287), 「와가래노 후나우타[別れの船歌]」(테이치쿠 50344), 「아리랑노 우타[アリランの唄]」(테이치쿠 50344) 등을 발표했다. 이 노래들은 각각 「봄맞이」, 「목포의 눈물」, 「아리랑」의 일본 음반이다. 이난영은 당시 오케음반에서 가수 겸 작곡자로 활약하던 김해송과 결혼했는데, 호적에는 결혼한 날이 1937년 11월 4일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난영은 1939년에 ‘조선악극단’의 일원으로 일본에서 영화, ‘변덕스런 부인’이란 뜻의 「오모히쓰키 후진[思ひつき夫人]」(조선에서는 「의견 좋은 부인」이란 제목으로 개봉)에 출연해 이화자 등과 함께 「아리랑」등을 불렀다. 일본의 도호[東寶]영화사에서 1939년에 제작한 이 영화에는 ‘조선악극단’의 공연 장면이 들어가 있어 당시 일본 내 조선악극단의 공연 내용과 구성원들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0년경에는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결성된 ‘저고리시스터’의 일원으로도 활약했다. 오늘날 이른바 ‘결그룹’의 효시로도 볼 수 있는 ‘저고리시스터’에는 이난영을 위시하여 장세정, 이준희, 김능자, 서봉희 등이 참여했고 때때로 홍청자나 박향림 등이 합류하기도 했다. 1941년에는 오케음반회사에서 이난영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한편 기념 공연도 열어 주었다. 그리고 1943년에는 도쿄 영친왕 저택에서 ‘조선악극단’의 단원들과 공연을 했는데, 이때 김정구가 노래한 「낙화삼천」을 듣고 영친왕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이난영은 1943년에 김해송과 약초가극단으로 이적했고 1944년에는 약초가극단의 일원으로 만주 순회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어서 1945년에는 김해송이 조직한 만타악극대를 거쳐 K.P.K악단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1948년에 김해송의 여자 문제에 상심하여 춘천 소양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1950년, 서울 수복 이후에 남편인 김해송이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해에 어머니 박소아마저 사망했다. 1951년에는 K.P.K악단과 현대가극단 등에 출연하였고, 1952년에는 전옥이 이끌던 백조가극단 공연에 특별 출연하였다. 1953년에는 김해송이 이끌던 K.P.K악단의 후신으로 ‘이난영 악단’을 창립했다가 1955년에 해산하였다. 이후, 자신의 활동보다는 자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난영은 생전에 12남매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7남매가 생존했고 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김해송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다. 이난영은 7남매 중에서 김애자와 김숙자 자매, 그리고 오빠 이봉룡의 딸인 이민자를 ‘김시스터즈’로 키워냈고, 이들을 미국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시스터즈는 1958년 12월에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1959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서 공연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난영의 아들들은 ‘김브라더즈’를 결성하기도 했다. 김시스터즈와 김브라더즈를 통해 볼 때, 가수에서 시작한 이난영을 초창기 여성 기획자이자 연출가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녀는 동료가수 고복수의 은퇴 공연이 있던 1957년경부터 동료 가수였던 남인수와 본격적으로 친해져서 1962년에 남인수가 사망할 때까지 그와 함께 생활했다. 1962년에 김시스터즈는 남인수가 사망한 후에 상심에 빠져 있던 어머니를 미국으로 초청했다. 미국에 간 그녀는 김시스터즈와 함께 시카고와 하와이 등에서 공연을 했고, 1963년 6월에는 김시스터즈와 함께 ‘에드 설리번 쇼(The Ed Sullivan Show)’에 출연하기도 했다. 1963년에 하와이 공연 이후에 그녀는 귀국했다. 1965년에 시공관에서 열린 3·1절 기념 공연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른 것이 그녀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1965년 4월 11일 서울 회현동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자살로 추정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1964년에 개봉한 「님은 가시고 노래만 남어」와, 그녀가 타계한 후 1969년에 개봉한 「이 강산 낙화유수」가 대표적이다. 1969년에는 이난영의 팬이자 목포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던 박주오가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유달산 입구에 건립하였다. 지금까지 이난영은 목포의 가수이자 민족의 가수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다만 2016년 현재, 이난영이 광복 이전에 노래한 군국가요 두세 편이 발굴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 그리고 평가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난영이 광복 이전에 발표한 노래는 200곡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불사조」(1933), 「봄맞이」(1934), 「신아리랑」(1934), 「오대강타령」(1934), 「목포의 눈물」(1935), 「봄 아가씨」(1935), 「호이타령」(1935), 「아버지는 어데로」(1936), 「명량한 젊은 날」(1936), 「알아 달라우요」(1936), 「고향은 부른다」(1937), 「아 글썸 어찌면」(1937), 「해조곡」(1937), 「님 전상서」(1938), 「미소의 코스」(1938), 「산호빛 하소연」(1938), 「신접살이 풍경」(1938), 「목포의 추억」(1939), 「달 없는 항로」(1939), 「남행열차」(1939), 「다방의 푸른 꿈」(1939), 「울어라 문풍지」(1940), 「흘겨 본 과거몽」(1940), 「고향」(1941), 「열일곱 낭낭(낭낭제)」(1941), 「진달래 시첩」(1941), 「희망」(1941), 「목포는

항구」(1942), 「목화를 따며」(1942), 「인생가두」(1943).(장유정)

[참고자료 : 장유정, 「행(幸)과 불행(不幸)으로 보는 가수 이난영의 삶과 노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이남규(李南圭, 1901~1976)

목사, 정치가, 교육자. 1901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태어났다. 한문을 수학하다 광주 숭일학교 보통과, 서울 중등학교 중등과를 다녔으며, 평양신학교 졸업 후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백칼리 선교사의 조사로 무안의 지도와 복길교회에서 시무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참여했으며, 1942년 일제의 목포 시내 모든 교회의 통폐합 지시에 반대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8·15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 위원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목포지부 명예회장단·전남지부 총회장 등을 역임했고, 특히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서 민선의원(한독당)으로 활동했으며, 반탁결의안 대표 제안자로 나서기도 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로 목포부 선거구에 출마하여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관선 전라남도지사에 임명되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1년 7개월(1948년 10월 18일~1950년 4월 21일) 동안 초대 전라남도지사로 재임했다. 1950년 4월 21일 제2회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목포시 선거구에 국민회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대한노동총연맹 임기봉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참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2년 목포영흥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이사 등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장을 5회에 걸쳐 역임한 것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1976년 목포 양동에서 별세했다.(김영태)

[참고자료 : 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대한민국 의정총람』,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매방(李梅芳, 1926~2015)

한국전통무용가, 인간문화재. 호는 우봉(宇峰). 본명은 규태(圭泰). 1926년 부친 이경률과 모친 조병림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목포시 대성동에서 출생했다. 1935년 중국 다롄정포소학교를 입

학하고 1939년 목포북교소학교로 전학을 하여 다음 해 1940년 2월 졸업했으며 1943년 목포공업학교를 졸업했다. 어려서부터 목포의 권변에서 진도 조도 출신의 예기(藝妓) 함국향을 통해 춤과 가락을 접하고 1935~1948년 이대조, 박영구, 이창조 등 당대의 예인들로부터 승무, 검무, 살풀이춤 등 전통 무용을 사사받았다. 집안 어른이기도 했던 이대조 문하에서 승무를 배웠는데, 당시 이대조는 유명했던 예인으로 미남인데다 허우대도 좋고, 춤과 소리에 뛰어난 스승이었다. 이후 춤을 배우기 위해 광주 권변, 전주 권변, 목포 권변을 돌아다녔다. 광주 권변에서는 화순 능주 출신의 박영구에게 북을 배우고, 어깨너머로 이창조에게 검무도 배웠다고 한다. ‘매방’이란 이름은, 초등학교 때 스승이었던 중국 경극 배우 매란방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스승 매란방과의 인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살던 중국 만주 다렌의 정포소학교로 전학했을 때였다. 이매방은 매란방의 학원에서 춤을 배웠다. 당시 매란방은 중국 최고의 경극 배우였으며, 그에게서 장검무, 등불을 물지게처럼 어깨에 메고 추는 춤, 평 털을 튕기며 추는 춤 등 다양한 춤의 일면을 접하게 됐다. 5학년 때 이매방은 다시 목포로 이사하고 목포공업학교에 다녔으며, 방학 때는 서울로 올라가 서울조선성악연구회에서 공부했다. 이 때 스승은 한성준이었으며, 안비취, 한산월, 한영숙, 강선영, 강산월 등과 동문수학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1987년 지정되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 1990년 지정됐다. 한국무용협회고문과 한국국악협회 고문을 지냈으며 용인대학교 무용학과 대우교수로 1996~2000년 역임했다. 1941년 목포에서 열린 ‘명인명창대회’에서 「승무」공연으로 데뷔를 해 권변에서 춤 지도와 공연, 임춘앵 여성국악단 무용지도, 대구에서 군예대 활동, 군산에 무용연구소 개설 활동을 거쳐 1953년 광주에서 문하생들과 첫 발표회를 가졌다. 당시는 6·25 전란기였지만 전쟁에 지친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군예대를 조직하고 공연활동을 하였으며 이것이 발판이 되어 1955년 ‘이매방 무용발표회’를 광주극장에서 했다. 1957년 ‘이매방 승무발표회’를 부산 대영극장에서, 1959년에는 ‘이매방 무용발표회’ 「원각사」를, 1967년에는 ‘이매방 무용발표회’ 「꽃신 짚신」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그 후 1970년대 ‘3·1절 기념 국악대공연 아아! 그 날의 함성!’ 「승무」(왕자극장) 출연부터 1980년 7월 ‘한일친선 무용공연’(일본 아야미 공원), ‘전 일본 총리대신을 위한 축하공연’(청와대 영빈관) 등 33여 차례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쳤으며, 1981년 4월 ‘이매방 전통무용의 밤’(한국 유네스코)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 「승무」 공연과 1983년 7월 이태리, 영국, 스위스, 서독,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6개국 순회공연, 1985년 ‘미국 한국문화센터 개관 기념공연’(미국 LA), 1986년 ‘86 아시안게임 축전 공연’ 참가, 1988년 ‘88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참가,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공연 참가(북경) 등 무수히 많은 공연과 활동으로 무용계의 대부다운 활동을 보였다. 1991년 대한민국 국제연합(UN) 가입 기념 미국 LA 슈라인 오디토리엄, 뉴욕 카네기홀 등 공연, 1992년 ‘UN 가입 기념공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순회공연, 1994년 6월 ‘이매방 춤 인생 60년 북소리 4’ 공연, 199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한국 주간 참가공연, 29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2000년 ‘우봉 이매방 춤인생 65년 기념 대공연’ (국립극장 대극장), ‘새천년맞이 무용대공연’(세종문화회관 대극장)등 쉼 없는 공연과 제자 양성, 활동 등이 계속되었다. 2001년 8월 ‘명인명창 대제전 살풀이춤 출연’(운현궁), 9월 ‘중요무형문화재 우봉 이매방 전통무용 대공연 2001’(목포문화예술회관), 2002년 ‘한국천년의 소리’(일본 교토), ‘이매방 지성자의 세계’(일본 동경 스파이라루홀), 2004년 ‘점 하나로 여는 새해 「승무」’(국립국악원 예약당), 2005년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 개관 기념공연’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08년 ‘우봉 이매방선생과 함께하는 목포아리랑’(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10년 12월 ‘외길인생 우봉 이매방 전통춤 대공연’(국립국악원 예약당) 외 많은 국내 공연과 국외에서의 무수한 공연 활동이 가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용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매방은 현대화의 시류 속에서도 전통춤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의 춤은 거칠고, 굵으며 우격다짐 같은 육담과 패설을 담아 삶의 매듭을 풀어왔다. 그의 승무는 힘이 있고, 선이 굵어 시원스럽다는 평을 받는다. 삼현승무·보현승무, 살풀이, 검무, 산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주요 상훈으로는 1977년 부산시 놀원문화상, 1981년 예술대상(한국전총무도예술협회), 1984년 육관문화훈장(대통령), 1992년 예술문화대상(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1995년 성옥문화상, 1998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2001년 제1회 세종국악대상, 2002년 무용대상(한국무용협회), 2004년 임방울국악상, 2008년 한민족 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이숙진)

이방호(李方浩, 1914~1993)

사회사업가. 목포 출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그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1945년 8월 목포산정교회를 설립하고, 1950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산정교회 장로를 임직하였다. 1950~1960년대에는 춘궁기(보릿고개)에 사재를 털어 지역민의 식량, 치료비를 지원하던 중 1961년 11월 25일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정신에 기반하여 노인, 고아, 장애인, 부랑인 등을 위해 애증원을 설립한다. 애증원이 위치한 목포시 연산동은 당시 섬이었던 관계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자신의 집으로 시설을 이주하고 시설을 확장하기까지 10여 년간 수용자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1963~1978년에 새마을지도자로서 축산과 영농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노력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영농과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애중어린이집(현 셋별유아원)을 설립하고, 무료로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을 보육하였다. 그리고 신영마을 청년회와 4H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이 자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원조했다.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

이 인정되어 1972년 목포시민의 상을 수상하고 국무총리, 보사부장관,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등의 표창을 받았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이복주(李福柱, 1919~1997)

사회사업가, 교육자. 목포시 북교동 2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33년 목포북교초등학교 졸업 후 1936년 목포상업전수학교를 거쳐 일본 오사가 약제학교와 일본대학교 상학부를 졸업(1943년), 1948년 덕인학원을 설립하였다. 1954년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1964년 다시 학교법인 덕인학원으로 변경하였다. 3대 이사장(1970.6.25~1988.11.18)과 덕인학원 산하 목포덕인중·고등학교, 목포혜인여자중·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62년 목포시 초대 시의원을 지냈고, 육아사업 재단법인 성덕원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목포 순성교회 초대 장로를 시작으로 목포 YMCA 회장에 8선하였고 목포시 변영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69년 목포시민의 상과 1982년 사학육성공로장 봉황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였다. 1997년 11월 5일 별세 후 선영에 안장되었다.(권효)

이생연(李生淵, 1938~2005)

시인, 향토사가.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서 출생했다. 1950년 현경북초등학교, 1953년 목포중학교, 1956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무안군 지방공무원에 공채 임용돼 1998년 목포 시청 지역경제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했다. 1991년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하였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흑조시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흑조시인회에서 1982년 발간한 『흑조(黑潮)』 제8집 육필 시지에는 특집으로 이생연 근작 시초가 실렸는데, 여기에 실린 9편의 시 가운데 하나인 「청호(靑湖)의 아침」은 시작 노트에서 그가 밝힌 대로 처음으로 써 본 일종의 서사시이며, 그의 향토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1890년대 개항 이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목포 사회의 변화상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데, 관해동, 산정, 쌍거리, 샘거리, 비녀산 등 목포의 정겨운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향토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 나중에 그를 향토사가가 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향토사 연구의 1세대로, 광주·전남사료조사연구회 감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목포문화원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포

관련 자료들을 발굴해 목포에 소개하여 향토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87년 11월 11일 초판 발행된 『목포시사(木浦市史) -인문편-』의 감수(監修)로 이름을 올렸고, 제2편 역사 중 제3장 「고지도로 본 목포」를 직접 집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포관련 고지도는 20여 장에 이르는데, 향토사 연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0년 12월 28일 발행된 『목포시사 -사회·산업편-』의 편집을 담당하였는데, 스스로를 ‘향토사 연구인’이라 하였다. 1997년 12월 20일 발행된 『목포시사 Ⅲ(1980~1994)』에서는 ‘향토사가’란 직함으로 감수·장정·편집·교정을 맡았고, 역사편의 ‘목포의 땅이름’, ‘목포문화원사’를 집필하였다. 특히 당시 동별로 정리한 ‘목포의 땅이름’은 목포문화원이 2003년 발간한 『목포의 땅이름』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또한 중앙과 지방에서 발간된 잡지의 창간호를 수집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서로는 공저로 흑조시인회 동인시지 24권, 『목포시사』 1, 2, 3차분, 보정편 외 여러 권이 있으며, 2회의 도지사상, 4회의 장관상을 수상하였다.(조상현)

이승모(李承模, 생몰년 미상)

사진작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6·25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기에도 증명사진을 비롯한 인상 사진은 늘 존재해 왔다.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명함판 사진으로 각인돼 있을 때 소형 카메라 한 대 들고 다니면서 자유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멋쟁이로 평가 받던 시대에 이승모는 목포에서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1953년 4월 5일 ‘목포사진예술 연구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를 만들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사진예술이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을 때인데 1954년 7월 5~7일 ‘이승모 사진전’이라는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다. 목포에서는 최초의 개인전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목포사진예술연구회의 회원전을 개최했을 때도 지역의 사진계는 물론 문화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이승모는 당시 토건업을 하면서 유달산 노적봉 뒤 한옥에서 살았으나 1957년 이리(현 익산시)로 옮겼다. 이리철도청 광성회(현 흥익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리사우회(현 익산사진협회)를 창립해서 사진 보급에 힘썼으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어 익산 지역의 사진예술 분야에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박종길)

이영원(李永院, 1919~2011)

사진작가. 신안군 안좌 출신으로 고창고등보통학교를 나왔다. 당시 고창고보는 목포공립상업학교(현 목상고등학교)와 함께 호남의 명문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미술전문학교를 다녔다

고는 하지만 학교 이름은 알 수 없으며, 1946년 목포시 측후동 2번지(일제 강점기 흥간지 절터) 적산 가옥을 불하받아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한 사람들의 모임인 ‘목포미술원’을 창립하였다.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하면서 익혔다는 사진술에 심취해 해방 이후 사진 활동을 많이 했다. 사진 활동을 하는 한편 무안동 오거리 부근에 모던사진관을 개업하고 후에 예식장까지 겸하며 영업을 했다. 1953년 창립한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955년 10월 23~25일 미네르바다방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고, 1956년과 1958년, 1959년 잇따라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네 번째 개인전은 1959년 11월 20~27일 길다방에서 열렸는데 전시가 끝나는 날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등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원 사진작품에 대한 합평회(合評會)를 열었다. 합평회는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 이영원의 작품 시각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다.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 의견을 나누는 가장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다방가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작품은 사회 저변의 생활과 환경을 표현한 사진이 많았는데 전시 도중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밝고 행복한 면을 표현하지 않고 판자촌이나 어두운 생활면이 표현된 작품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듯 추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작가의 자유적 표현이 아닌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성토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뒤 광주로 이주를 했고 사진작품 활동에 대한 소문도 없었지만, 초창기 목포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사진예술이 어두웠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박종길)

이인형(李麟炯, 1914~1934)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담양 출신으로 1929년 목포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독서회에 참여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11월 9일 독서회의 대표로 5학년 최창호와 함께 진상 파악을 위해 광주로 파견되었다. 사태를 파악하고 장재성과 면담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와 독서회원을 소집, 목포상업학교의 모든 한국인 학생을 규합하여 구속 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인형은 「이천만 피압박 민중 제군이여」 등 세 종류의 격문을 기초했고 독서회 학생들은 약 1,500매를 인쇄했다. 11월 19일 이인형은 등교한 학생들에게 오후 12시 30분부터 광주학생운동 검거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1~4학년 학생 50여 명이 정명여학교 앞에 집결했다. 이인형은 박종식, 임춘성, 박상준 등과 함께 대열 선두에서 “피감금 학생 즉시 탈환, 총독부 폭압통치 절대 반대, 피착취 민중은 일제히 시위운동을 하자, 피압박 민중 해방 만세,

무산계급 단결 만세.” 등 구호를 적은 큰 붉은 깃발들을 선두에 내세우고 각자 붉은 깃발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목포역까지 행진하며 격문을 배포했다. 1930년 만기 출옥한 이후 부산으로 가서 노동운동에 종사했다. 1931년 박귀선, 강갑영과 함께 부산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적색노동조합 전국협의회, 부산최고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노동자」라는 제목의 격문을 인쇄하여 배포하다 발각,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5; 광주지방법원, 「이인형 등 판결문」, 1930(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1987); 대구복심법원, 「박귀선 등 판결문」, 193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844); 『동아일보』 1931. 11. 15.]

이훈동(李勳東, 1917~2010)

기업가. 조선내화와 『전남일보』 명예회장.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에서 이영률과 이백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2년 16세에 일본 전기공업이 운영하던 해남군 황산면 성산의 쇼와광업소 견습사원으로 특채됐다. 이는 나중에 이훈동이 내화물 사업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1946년 성산광산을 불하받은 그는 노화도의 광산까지 인수해 납석과 고령토, 점토 등을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측의 권유에 따라 상무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1953년 조선내화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조선내화의 전신은 1938년 일본인 사토가 설립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로, 1947년 손용기 등이 미군정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새 이름으로 출발한 회사였다. 이훈동은 조선내화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포항 1, 2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1986년 광양공장을 세워 국내 제철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조선내화 중국 합자회사를 세워 국내외에 19개 공장을 둔 세계적인 내화물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967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후 21년간 7선을 역임하며 대불공단 조성, 목포공항 유치, 유달산 공원화 추진 등 갖가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1978년에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목포 최초의 법인 문화재단인 ‘성옥문화재단’을 설립해 성옥문화상과 성옥장학금을 시상하고 있다. 1987년에는 차남인 이정일(제16·17대 국회의원)과 함께 『전남일보』사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이훈동의 88세 미수를 기리기 위해 자녀들이 ‘성옥기념관’을 지어 그가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유달동 4-2번지에 위치한 성옥기념관은 안쪽의 ‘이훈동 정원’과 함께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되었다. 기업가로서 언론과 교육·문화 사업에도 앞장섰던 그는 은탑산업훈장(1982)과 국민훈장 모란장(1984)에 이어 2008년 제22회 인촌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정기영)

임광행(林廣幸, 1919~2002)

기업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양조산업에 투신하여 호남에 기반을 둔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으며, 주류업계 1세대로 소주와 매취순 등을 생산하였다. 1935년 목포의 잡화도매점인 야마모토 상사의 견습사원으로 입사, 24세 때 독립, 목포시 대안동 15번지에 10여 평 규모로 ‘광림상회’를 창립하였다. 광림상회는 자신의 성과 이름 첫 글자를 뒤집어 작명한 것이다. 이 광림상회는 각종 건어물, 소금, 김 등을 취급했다. 임광행은 일본인들이 김을 즐겨 먹는 것에 착안하여 품질 좋은 김만을 취급하였다. 광복 후 1950년 청주와 탁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인수하여 ‘광림주조장’이라고 명명했는데 현재 보해양조의 전신이다. 1956년 4월 광림주조장을 법인체로 변경하였다. 법인 설립 자본금은 1200만 원으로 목포시 대안동 15번지에 공장 대지 4,628.12㎡, 건평 3,169.93㎡의 건물을 갖추었다. 1955년 9월 삼화양조 주식회사, 12월 보화양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31일 보화양조는 상호를 보해양조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1967년 연간 순 매출액 7억 6천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 국내 주류업계 3대 메이커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나 1968년 3월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1976년 12월 정리 계획에 의거 모든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은행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1978년 3월 연간 7,500ℓ 생산 규모의 매실주 공장을 설립했고 원료의 적기 공급으로 창립 30주년인 1982년 매실주 ‘매취(梅翠)’를 생산, 판매했다.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부 부의장, 목포대 기성회장 등을 역임했다.(정기영)

임기봉(林基奉, 1905~1982)

목사, 정치가, 사회운동가. 1905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사에 재직하다 일본인과의 차별 대우에 저항, 노동운동을 하다 일본으로 도피했다. 일본에서는 칸사이학원(關西學院)과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에서 신학을 수학하였다.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카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로부터 세례를 받고 전도인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영유읍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해남으로 낙향하였다. 해방 후 목포에서 교회 재건운동을 펼쳤으며, 1946년 제주도 성내교회 위임 목사로 활동하다가, 1949년 목포 산정리교회의 초빙을 받고 목포로 왔다. 목포에서는 목회활동을 하면서 해상 선원과 부두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대한노동총연맹 목포지부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노동총연맹 목포해상위원장, 대

한노총중앙본부 부위원장, 자유당 목포시당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노동총연맹 후보로 출마하여 목포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에서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관계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조선방직쟁의 때 전진한 당시 사회부 장관 등과 함께 대한노동총연맹 조방쟁의대책위원회에 합류하여 이승만 권력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1954년 목포에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국민당의 정중섭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1956년 창당한 진보당 중앙당 노동부장과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1960년 창당준비위원으로 사회대중당 창당에 참여했고, 사회대중당 공천으로 1960년 목포 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목포공생원, 목포덕인중학교, 노동병원 등을 설립하였으며, 『노동신문』도 창간하였다. 1982년 9월 26일 서울 자택에서 별세했다.(김영태)

[참고자료 : 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대한민국 의정총람』, 1994;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독교대백과사전』.]

임종기(林鍾基, 1926~2007)

정치가. 1926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태어났다. 목포제일보통학교를 다닌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으로 목포상업고등학교(현 목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으로 유학하려 했으나 형편상 이를 접고 1943년 만주 여순고등학교 유학을 위해 만주에 머물다 낙방하여 목포로 귀향했다. 해방 직후 경성경제전문학교(서울대 상대)에 입학하여 1950년 5월 졸업하였다. 부산에서 제4회 행정과에 1차 합격하여 도청국장과 국회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재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낙선 당시 최고 하루 1천 장, 매달 3~4천 장의 엽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3선 의원이 되었으며, 1982년 민주한국당 원내총무로 임명되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직후, 민주한국당을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1986년 신한민주당의 '계파 정치'와 '당내 독재'를 비난하며 창립된 당내 신보수회의 고문을 맡았으며, 신보수회 회장 유한열 의원 등과 탈당하여 민중민주당을 창당하고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87년 민중민주당이 신한민주당에 흡수 통합되어 신한민주당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신한민주당에서 정무위원으로 활동

했으며, 1987년에는 민정당과 당대당 개헌 협상을 위한 4인 정치회담에 신한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1988년 3월 21일 신한민주당을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으나,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공천에 탈락하자 정계를 떠났다. 서울고미술경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장을 맡았으며, 1995년 12월 고미술 연구 및 감정 기구인 사단법인 동산문화재진흥원의 창립 멤버로 참여, 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임종기는 이철승 의원의 숙부인 제헌국회의원 이석주의 사위(부인 이경숙)로, 2007년 11월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김영태)

[참고자료 : 『매일경제』 1991. 02. 03.; 『매일경제』 1995. 12. 01.; 『동아일보』 1983. 07. 22.; 『동아일보』 1987. 08. 04.; 『동아일보』 1990. 12. 28.; 『동아일보』 2007. 11. 03.]

장덕(張德, 1910~1976)

초명은 장운봉(張雲峰)이고 해방 후에 장덕으로 개명하였다. 매화와 비파를 좋아하던 동양화가로 1920년대 후반 이당 김은호의 화숙인 낙청헌(洛淸軒)에서 그림을 배웠다. 1935년 낙청헌 제자들이 조직한 후소회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 태평로 조선실업구락부에서 열린 제1회 후소회전을 시작으로 1941년까지 참여하였다.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야포(野圃)」로 입선하였는데, 김용준은 1930년 『중외일보(中外日報)』에 쓴 「제9회 미전과 조선화단」에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필치다. 바위돌을 실패하지 않았던들 훌륭한 작품이 될 걸 그랬다.”라고 평하였다.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귀국한 후 1936년 선전에 「교외만추(郊外晩秋)」로 입선하였다. 한편 1931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휘문고보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서화협회전에서 「어린 양」으로 특선을 차지했다. 1930년대 후반 전남 목포로 이주하였다. 해방 후에는 호분을 쓰는 공필 채색화를 버리고 수묵을 사용한 화훼나 기명절지, 화조화를 주로 그렸다. 1957년에 백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62년 5월 23일에 동화백화점 내에 있는 동화화랑(東和畫廊)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66년 1월부터 1968년 12월까지 제2대 목포예총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에 전남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72년에 목포시민의상을 수상하였다. 다목동 차재석은 동양화가 취당 장덕편에서 “취당 선생은 음풍영월(吟風詠月)의 동양화가라기보다 모던한 양화가의 인상을 주지만 실상은 음풍을 그리는 동양화가다. 맑고 차디찬 열굴에 무엇인지 울분이 흐르는 듯한 눈을 가진 달콤한 고독보다는 가을 하늘의 고독을 지킨다.”라고 기술했다. 남농과 쌍벽을 이룰 정도였지만 목포예총 초대 회장 남농의 명성과 위세에 가려 목포에서는 늘 2인자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1976년 4월 21일 타계하였는데 향년 67세였다.(김병고)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운봉(張雲峰)」]

장병준(張炳俊, 1893~1972)

민족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정치인. 아나키스트이며 제헌국회의원인 장홍엽의 형이다. 장산도에서 태어나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니혼대학 법학과를 다니다 1917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1919년 3월 18일 장산도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으며 상경하여 국민대표회의 조직과 한성정부 결성 과정에 참여했다.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전라도 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국내와 만주, 상하이 등지를 오가며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지하 조직의 결성과 연락을 담당하여 1919년 여름에는 서울에서 이동욱, 박기영 등과 함께 대한국민회를 조직했고, 1920년 서울과 대전, 대구, 마산, 목포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 투쟁을 시도했다. 장병준은 표성천, 서태석 등을 통해 목포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단을 살포하도록 했다. 이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2년까지 수감되었다. 1927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가 결성되자 조사부 총 간사로 참여했으며, 목포지회의 내분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28년 목포지회 총무 간사가 되었으며 1929년에는 신간회 북대표대회에 목포구 대표로 참가했다. 1930년 신간회 목포지회 집행위원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한민당 광주지부장과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반탁운동에도 참여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1959년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이끌었으며 4월혁명 이후 참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1972년 사망하자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이기훈)

[참고자료 :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이기훈, 「장병준의 생애와 민족운동」, 『도서문화』42,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3.]

장월중선(張月重先, 1925~1998)

국악인, 판소리 명창. 본명이 장순애다. 전남 곡성군 오곡면 묘천리 출생이다. 전통 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 가야금병창, 거문고, 아쟁, 전통무 등에 두루 뛰어난 만능 예인이었다. 조부 장석중은 판소리 명창이자 거문고 명인으로 순릉참봉의 직첩을 받았고, 부친 장도순은 이름난 소리꾼으로 경성구파배우조합의 일원이었다. 큰아버지 장판개는 어전에서 소리하여 혜릉참봉의 직첩을 받은 동편제 명창이고, 고모 장수향도 기악과 무용의 명인이었다. 이러한 예인의 피를 물려받은 장월중선은 일찍부터 재능을 발휘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임방울 협률사를 비롯하여 국극사, 조선창극단 등

창극단체와 여성국극협회, 임춘앵과 그 일행 등 여성국극단체에서 배우로 출연하는 한편 여러 작품을 작곡하고 안무를 맡아 예술적 기량을 발휘했다.

장월중선은 24세 때 단체생활을 청산하고 시택이 있는 목포로 내려왔다. 목포에서 한갑득에게 1개월간 거문고 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배웠다. 한갑득과 조선창극단에서 같이 수행했다. 이때 약 1년여쯤 산조를 재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 경기도 화성 출신 이동안(李東安, 1906~1995)을 목포로 모셔왔다. 「진쇠춤», 「승전무», 「심불로», 「한량무», 「태평무», 「신칼대신무」 등 여러 가지 춤을 여기서 배웠다. 이동안은 장월중선이 신숙과 함께 자신에게 잡가를 배우기도 했다고 말한다. 장월중선이 광주와 전국 유랑에서 돌아와 목포에 정착하게 된 것은 남편 정우성이 목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2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 슬하에 정순임(1942~)과 정경호, 정경옥을 둔 처지라 살림이 막막했던 장월중선은 그간의 명성을 살려 국악 강습을 해보고자 찾아간 곳이 산정동 노인당이었다. 이때가 1952년이다. 노인당 방 한 칸을 빌려 그간 연마해 왔던 다방면의 국악을 가르치게 된다. 장월중선의 첫 제자가 당시 7세였던 안향련이었다. 이후 진도의 신영희, 오비연, 안애란, 오지오, 박계향, 박소연, 백인영 등 많은 제자들에게 판소리, 무용, 가야금, 아쟁, 연극, 농악 등을 가르쳤다. 정순임은 장월중선의 딸로 목포가 낳은 소리꾼이지만 목포에서의 활동이 없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명절에는 제자들과 목포양조장이나 옥천양조장 등을 돌며 걸립 농악을 했다. 여기서 쌀과 돈을 얻어와 악기와 의상을 마련했다. 손수 재단과 바느질을 하여 제자들에게 의상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창극 「춘향전」 등을 목포 평화극장 무대에 올렸다. 목포국악원을 4~5년 운영하다가 노인당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 시내 다른 장소에 유달국악원(목포시립국악원의 전신)을 세웠다. 장월중선은 1952년부터 1962년까지 10여 년 목포 생활을 했다. 이후 목포를 떠나 광주, 곡성, 전주 등지를 돌아 대구, 최종적으로 경주에 자리를 잡고 제자 양성과 국악 공연에 헌신하였다.(이윤선)

장종기(張宗基, 1924~2010)

사진작가.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잠시 광주시청에 재직했다. 목포에서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던 친구를 만나 그 친구의 사진관에서 사진관 일을 도와주다가 결국 그 사진관(연우사진관)을 인수한 후 동보사로 상호를 바꾸어 사진 영업을 하였다. 1961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로 바뀐 후 부지부장직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였다. 1963년부터 1986년까지 회원전에 출품을 했는데 1970년대 말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목포지부에 소속을 두면서 회원전에 출품했다. 1972년부터 1974년까

지 사진협회 목포지부장을 수행하면서 유달산, 홍도 전국사진촬영대회를 종래의 사진촬영대회가 아닌 1박 2일의 대규모로 개최했다. 해군함정까지 동원된 대 행사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군함정으로 촬영대회를 한 예는 없었던 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후에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한국 사진작가협회 본부 부이사장직을 맡아 많은 활동을 했다. 1986년 11월 15~20일에 사진작가의 모태가 된 목포에서 초대전을 개최하여 이 고장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공모전 등에 심사를 다니며 사진예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강산과 황산(黃山)의 영(影)'이라는 작품전을 위해 여러 차례 중국에 갔는데 심장쇼크로 인한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촬영을 완성하기도 했다.(박종길)

전태홍(全泰洪, 1937~2005)

기업가, 제35대 목포시장. 1937년 2월 20일 전남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에서 부 전규성, 모 최귀물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슬하에 1남 4녀로 아들 전훈 장로는 치과병원을 운영한다. 그의 초등학교 시절은 부친의 선박사업과 정미소 운영으로 부유한 환경이었지만 문태중학교 2학년 때 6·25 전쟁으로 재산몰수와 부친을 잃는 불행으로 어려운 소년시절을 시작했다. 그의 성장기 롤모델이었던 숙부 전규택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전태홍의 할아버지를 따라 도일하여 일본 컨트리클럽 이사장에 오른 일본 굴지의 대기업가로 성공한 일본 경제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태홍은 『전남매일신문』 기자로 일하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광주 YMCA에서 민족자주통일연맹 통일 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조선대 학장을 역임한 오지호 화백과 같은 방에서 시국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광주교도소 내에서도 급식 상태가 형편없어 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으로 급식 형편을 개선하게 하는 등 교도소 내의 부조리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다 오지호 화백과 함께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된다. 출감 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완도, 진도 등으로 스테인레스 식기, 방한복 등을 판매하는 행상을 시작으로 가마니 수집 판매상, 염업상 등을 통해 겸손, 정직, 신뢰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그러다가 한국운수주식회사(대한통운) 목포연안하급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면화, 쌀, 소금, 제주 밀감 등 물류 운송사업을 확장시켰고 남경자동차운전학원, 남경자동차경매장, 남경기아판매점, 남경예식장 등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사회 운동가로서의 역할도 돋보인다.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목포지역협의회 초대 회장이던 1999년 『중앙일보』 시행 범죄예방봉사상 본상을 수상, 상금 전액을 협의회 내의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봉사정신으로의 재무장 운동에 앞장섰다. 1979년 운곡장학회를 설립,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전남화물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남도정 자문위원 6년,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면서 전국학원연합회 초대 회장·부회장 역임, 목포개발위원회(위원장 최향춘) 부회장 12년, 목포체육회 부회장 2회, 목포YMCA 이사장, 제17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그는 목포YMCA 이사장을 역임한 성산교회 하대희 장로의 권면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여 김해동 목사가 시무하는 중앙교회에 정착, 1984년 장로임직을 받았다. 본격적인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신행합일(信行合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목포 극동방송 설립에 앞장서는 등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해 앞장섰고 아내 김정자 권사와 공동으로 집필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찬했다. 1995년 제1대 목포연합장로회 회장, 1997년 기독교장로회 전남장로회 회장을 역임했다. 추운 겨울이면 거택 보호자들에게 연탄과 성경책 전달, 수재민 위로, 여름 복날이면 남경문화회관에 양로원 노인들을 초청하여 위로와 접대를 아끼지 않은 정성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목포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민선 3기 제35대 목포시장에 취임하여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정을 펼쳤다. 시장 재임 시의 주요 업적으로는 해수풀장과 한옥숙박시설을 갖춘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 목포국제축구센터 유치, 노적봉예술공원 조성, 부주산 체육공원 조성, 호남선 폐선부지의 도로 녹지공간화, 중앙식료시장·동명어시장·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목포대교 건설 가시화,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 자연사박물관·시민문화체육센터·무형문화재전수관 완공,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반찬 줄이기·자기 그릇 사용하기 운동 전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대성지구 등 1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이다. 2005년 1월 12일 아침 과로로 순직, 수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하여 목포시장(木浦市葬)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 추서.(박병욱)

[참고자료 : 전태홍,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은혜기획, 2000.; 전태홍 가족 구술; 네이버 인물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정병조(鄭炳朝, 1879~1970)

사업가. 일제 강점기 목포부협의회 의원, 목포학교평의회원, 목포양주, 목포제빙냉장 주식회사 취체역(이사), 동양물산 사주 등을 역임했다. 1929년 발간된 『전남사정지』에 따르면 본적은 경성부 중학동 107번지이고, 당시 거주지는 호남정 12번지였다. 원래 부산에서 생활하다 목포가 개항되자 18세의 나이에 일거리를 찾아 이주해 왔다. 주로 간척사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증식하였다. 그 과정에서 숭한 일화를 남겨 목포의 기인(奇人) 중의 한명으로 회자되고 있다. “자기 이름을 새긴 말목을 세

워 목포 유달산을 일본인에게 팔아먹었다.”, “조선총독부에 금 명함을 뿌리며 마음대로 출입하였다.” 등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병조는 유달산에 올라 목포의 광활한 갯벌 지역을 막아서 간척을 하면 많은 땅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 모리다상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간척사업 아이디어를 말하고 투자금을 얻어 처음 간척사업에 손을 대었다. 그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척사업을 도와줄 인맥과 자금줄을 찾아 나섰다. 이때 정병조는 나주 공삼면의 농민들을 악용하였다. 나주 공삼면 농민들은 잃어버린 농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정병조가 이 사건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다. 나주 농민들은 정병조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으로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그는 사건의 해결보다는 일본의 고위층을 만나 인맥을 쌓는 데 활용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인 배정자를 만나 의남매를 맺었고, 이후 배정자를 자기 사업의 뒷배경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정병조는 하의도의 농지를 일본인에게 팔아먹은 경력도 가지고 있다. 하의도 농민들은 300여 년에 걸쳐서 농지 탈환운동을 전개해 왔고, 구한말에 겨우 그 문제가 해결 될 조짐이 보였는데 정병조에 의해서 그 토지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1949년 3월 20일자 『호남신문』에는 정병조가 하의도 땅을 일본인들에게 팔아먹었던 내용이 톱기사로 실려 있다. 정병조는 일본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목포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전개했다. 연동과 뒷개쪽에 제방을 쌓아 약 80만 평의 토지를 조성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정병조 사기사건’으로 목포가 떠들썩했다. 정병조는 사문서 위조, 「조선공유수면령」 위반, 횡령 등 복잡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처음에 5년 형이 내려졌다가 나중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백 원을 언도받았다. 증인만 300명에 이르렀던 희대의 대사기 사건이었다. 광복 후 정병조는 반민특위에 체포된 기록이 있다. 이 때 죄목은 목포에 주소를 둔 부호로 친일 사기 혐의였다. 반면 지역유지로서의 활동 내력도 남아 있다. 목포 지역의 학교 설립 운동, 피병원 설립 등에 기부자로 참여하였고, 고아원인 공생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는 자신의 땅과 재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하였다. 신익희가 국민대학을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정병조는 1970년 2월 17일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 산정동 중앙하이츠 인근에 정병조가 살았던 석조 2층으로 된 근대식 건축물이 남아 있고, 정원의 한쪽 모서리에는 「거산(巨山) 처사(處士) 정병조 씨(鄭柄朝氏)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라고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경인문화사, 『전남사정지』, 2000; 『전남매일신문』 ‘목포 정병조’연재기사; 『동아일보』 1949. 03. 11.

「정병조 등 체포」]

정인영(鄭仁永, 1920~2006)

기업가. 한라그룹 명예회장. 본관은 하동, 1920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마을에서 6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현대그룹 명예회장인 정주영이 형이다. 정인영은 1977년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뒤 인천조선, 한라시멘트(주), 한라자원(주) 등을 설립하여 한라그룹의 기틀을 닦고 1988년 한라그룹 회장에 올랐다. 한라그룹은 1990년 계열사인 인천조선의 이름을 한라중공업으로 바꾸고, 1992년 한라중공업의 본사를 인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으로 옮겼다. 1996년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는 첫 호선 2척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1997년 한라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한라중공업도 부도가 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라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이 위탁경영하였고, 1999년 한라중공업을 삼호중공업으로 상호 변경한 후 2002년 현대중공업 그룹사로 인수하였다. 이듬해인 2003년 삼호중공업은 회사 이름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바꿨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삼호읍 일대 330만m²(약 100만 평)의 부지에 세계 4위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한 조선 전문기업으로 목포 지역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정인영은 1997년 1월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뒤 한라그룹이 부도를 내고 해체되자 재기를 도모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6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 경기도 양평 선영에 묻혔다.(정기영)

[참고자료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현대삼호중공업); 두산백과(정인영); 현대삼호중공업 홈페이지]

정재현(鄭宰賢, 1906~1998)

사회사업가. 경상북도 낙동군 낙동면 낙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부친을 일찍 여의고 형 정도현의 도움으로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민족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였고, 적성에 맞질 않았지만, 형의 요청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자 경찰관이 되었다. 그는 목포경찰서 경부로 부임하면서 당시 부랑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결혼이 부랑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 이들의 결혼을 주선하였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그날로 경찰관을 사직하고, 본격적인 자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선활동으로 인해 일제는 그의 사상을 의심하게 되고 정신이상자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특히 목포 사람들은 그를 ‘거지대장’이라 하였고, ‘각설이 타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는 부랑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법조인, 기업인 등의 독지가를 찾아 모금한 돈으로 구례도(九禮島, 당시 목포 관할 섬, 약 2만 평)를 매입하고, 사재로 이웃한 섬 용출도(龍出島, 약 3만 평)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섬에서 구도재생원을 건립하였다. 이곳에서 임

야 개간, 벽돌 공장, 염전을 건설하여 부랑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조극환(趙克煥, 1887~1966)

청년운동가, 노동운동가. 전남 영암 출신으로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08년부터 영암보통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호남학회 회원으로 계몽활동을 벌였으며 1919년에는 영암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구속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1년 출옥한 이후 영암청년회, 영암노동야학회 등 영암 지역의 청년운동을 주도했으며 이 무렵 송내호가 주도한 항일결사 수의위친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목포로 이주할 즈음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청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목포청년회에 가입했고 목포무산청년회를 창립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전남청년대회 준비위원이 되었다. 1925년 1월 무목청년연맹을 결성하고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8월 목포청년회의 사회주의적 방향전환을 주도했다. 서병인 등과 함께 사상단체 전위동맹을 결성하고 지역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후원했다. 무목노동연맹, 자유노동조합, 목포노동총동맹의 집행위원, 대표 등으로 활약했으며 무안농민연맹의 집행위원이기도 했다. 목포항운노조의 결성과 1926년 1월 목포제유노조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3차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자 1927년 7월 가입하여 목포 지역 조직의 책임자가 되었다. 1927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가 결성되자 상무간사를 맡았으나 김영식, 서병인 등과 회원 자격을 놓고 대립하여, 목포 사회운동 전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1928년 목포노동연맹 집행위원이 되었으나 조선공산당 사건이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32년 출옥한 이후 1934~1937년에 동아일보 진도지국을 운영했으며 이후 영암군 군서면으로 이주했다.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 영암지부를 조직,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자 영암인민위원장을 맡았다. 미군이 진주하자 충돌하여 1946년 1월 조극환을 비롯한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모두 구속되어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출옥했다. 이후 은거하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혁신운동에 참여하여 11월 사회대중당 전남도당과 1961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전남 지부 결성에 관여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조미미(曹美美, 1947~2012)

가수. 본명이 조미자(曹美子)인 조미미는 1947년 1월 17일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하였고, 전라남도 영광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1964년에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 남녀가요콩쿠르대회'에서 1등하여 가수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공식 데뷔곡은 1965년에 발표한 「떠나온 목포항」으로 알려져 있다. 1969년 발표한 「여자의 꿈」이 인기를 얻었는데, 이후에 「바다가 육지라면」, 「선생님」, 「먼 데서 오신 손님」 등이 대중의 호응을 받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그녀는 '민요 가수' 내지는 '뽕짝조의 가수'로 동시에 불렸다. 주로 오아시스레코드의 전속으로 있으면서 많은 음반을 냈다. 1967년에는 작곡자 손목인을 단장으로 하여 신카나리아, 오정심, 양석천 등과 함께 파월장병 위문공연을 했다. 파월장병 위문공연에 동행했던 오정심은 그녀가 수줍음이 많은 순진한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1970년에 조미미는 일본에 진출하여 1970년 2월 15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그곳에서 교포 위문공연 등을 하고 돌아왔다. 1971년에 조미미는 나훈아, 남진, 이상열, 김상진, 최희준, 이미자, 김상희, 하춘하, 펠시스터즈와 함께 MBC 10대 가수에 올랐고, 1972년에는 김상희, 문주란, 정훈희, 하춘화 등과 더불어 MBC 10대 가수상 여자 부문에 선정되었다. 그녀는 1973년에 재일동포 실업가와 결혼하여 서울에 살면서 가수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74년 6월 16일에 딸을 낳았다. 그해에 그녀는 「진부령아가씨」와 「생각나는 사랑」을 대표곡으로 한 독집 음반을 발표했다. 『매일경제』 1974년 11월 15일자에는 그녀의 신보에 대해, “통기타 부대에 식상한 사람들에게 들려 줄 전형적인 가요로 알맞은 시기에 생산되었다는 점과, 첫 딸을 얻은 후 더욱 기교와 목소리가 좋아진 조미미의 신곡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히트가 예상된다.”라고 소개했다. 조용필이 노래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1977년에 다시 불러 본인의 인기를 새삼 확인한 그녀는 1978년에 「참사랑」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동아일보』 1978년 12월 16일자에 의하면, 3대 음반 제작사가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음반 2개씩을 선정했는데, 조미미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산울림의 「아니 벌써」, 전영의 「서울 야곡」, 김미성의 「먼 훗날」, 정종숙의 「달구지」, 산울림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와 더불어 가장 많이 팔린 음반에 올랐다. 1979년에는 오랫동안 전속으로 있던 오아시스레코드를 떠나 박춘석과 함께 작업하여 기존의 히트곡과 「떠나가지 말아요」와 「여객선」 등의 새 곡을 합쳐 12곡이 담긴 독집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1985년에 조미미는 트로트인 「타인의 정」을 비롯해서 「한산섬」, 「사랑과 추억」 등의 새 노래와 기존에 유행했던 「실버들」, 「앵두」, 「오동잎」 등을 함께 실은 새 앨범을 발표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임진각에서」를 발표했다. 이미자, 하춘화 등과 더불어 1960년대와 1970년대 트로트의 계보를 이어갔던 조미미는 애수 어린 음색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녀는 2012년 9월 9일 서

울시 구로구 오류동의 자택에서 간암으로 별세하였는데, 당시에 유족으로는 두 딸인 안애경과 안애리가 있었다. 현재 경주 나정해수욕장에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래비가, 서산 왕산포구에는 「서산 갯마을」 노래비가,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서귀포를 아시나요」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아울러 그의 막내 동생인 조미정도 1986년 작사에 참여한 노래 「거울 속의 소녀」와 「사랑했던 당신」 등이 수록된 음반으로 데뷔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신봉승 극본, 최인현 감독의 영화 「친구야 친구야」에 출연하기도 했다. 전영록이 주연과 음악을 맡은 이 영화에서 극중 무명가수로 등장한 조미정은 영화 주제가인 「바람인줄 알았지」와 「사랑의 단풍」 등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배우 김수현의 이복동생인 가수 김주나가 조미미의 조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미미의 대표곡으로는 「떠나온 목포항」, 「여자의 꿈」, 「바다가 육지라면」, 「서귀포를 아시나요」, 「동창생」, 「이별의 김포공항」, 「남해바다 내 고향」, 「선생님」, 「먼 데서 온 손님」, 「약혼녀」, 「임진각에서」 등을 들 수 있다.(장유정)

조점환(趙點煥·趙占換·趙松熙, 1907~1940)

노동운동가. 목포 출신으로 1928년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니혼대학 경제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목포로 돌아와 1929년 10월부터 목포상업학교 독서회를 지도했다. 1929년 11월 목포상업학교 독서회가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를 일으킨 이후 조점환도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으로 기소되었다. 절망한 어머니가 1930년 3월 우물에 투신자살했다. 출옥한 이후 목포청년동맹, 목포노련 등에서 활동했으며, 1931년 김정수가 목포로 이주하자 김정수, 이기동과 함께 사회주의운동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32년 노동자, 농민을 혁명적으로 지도할 사회주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레닌주의자 동맹'(이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개칭)이라 했다. 조점환은 자금부의 책임을 맡아 1932년 10월 경성에서 양복점과 칠기상을 경영하며 조직의 자금을 조달했다. 공산주의자동맹은 1934년에는 자금조달 중심의 운동을 청산하고 직접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조직하는 직접적 실천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나, 곧 조직이 발각되어 대규모 구속사태가 벌어졌다. 조점환은 1934년 검거를 피해 간도로 도주, 간판업을 하다 1935년 8월 체포되어 징역형을 언도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동아일보』 1930. 03. 04.; 『동아일보』 1930. 03. 10.; 『동아일보』 1931. 09. 17.; 『동아일보』 1932. 09. 25.]

조효석(趙孝錫, 1922~1998)

언론인. 1922년 7월 29일 목포시 죽동 44번지에서 아버지 조규진(趙圭珍), 어머니 유광매(柳光妹)의 8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옥천이고 자는 효훈(孝勳), 아호는 일관(一觀)이다. 8세 되던 1929년 4월에 목포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35년 3월 같은 학교 제26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6년 동안 우등생으로 학업 성적이 뛰어났으나 집안이 어려워 더 이상의 진학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 변호사 예비시험과 고등고시 예비고시(제3회)합격,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연수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목포부청 촉탁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금의 민방위 분야에서 종사한 적도 있었다. 1946년 광주 소재 동광신문사 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하였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에는 호남지구 전투사령부 종군기자로 활약했으며, 1950년 6·25전쟁 기간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 국방부 정훈국에서 선무공작대 전남담당 정보부장을, 그리고 9·28 수복 후에는 『전남일보』와 『호남일보』에서 편집부장과 주필을 각각 역임 한 후 1957년에 『목포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추대되어 11년 만에 환향하였다. 그 뒤 목포신문사의 부사장 겸 주필과 전남언론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다 4·19 혁명이 일어나자 특별검찰부 전라남도 반민주행위자조사위원으로 피선되어 3·15 부정선거 관여자 색출 기소에 나섰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군부는 그를 전남북지구 계엄사령부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면서 협조를 부탁했었다. 그러나 인권 옹호 측면에서 일할 것을 선약하고 응낙했었기 때문에 남에게 원망 사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1973년 5월 31일 『목포일보』의 자진 폐간과 더불어 현역 언론계에서 물러났으나 『전남일보』 상임 논설 고문으로 추대되어 타계하던 날까지 예리한 필봉을 멈추지 않는 등 목포가 낳은 영원한 기자로 불리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1992년 7월 6일 고회기념으로 펴낸 『서석대(瑞石臺)』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 30여 년간 언론생활 중 중요 기사와 논설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 내용 등 목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장용기)

조희관(曹喜灌, 1905~1958)

수필가. 1905년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72번지에서 태어났다. 호는 소청(少靑)이다. 1920년 경성의 배재고보(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2년을 중퇴하였으며, 1927년 중국 북경호스돈대학교에 유학하였다. 1935년 귀향하여 유치원 원장과 동아일보 영광지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육과 언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1946년 목포상업학교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근거지를 목포로 옮긴 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장, 조선대학교 강사 등을 역임했다. 1958년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목포로 이주하면서부터 수필을 쓰기 시작한 조희관은 등단 과정 없

이 문학에 입문한 자족적인 향토 문인의 전형이었다. 살아생전 『철없는 사람』, 『다도해의 달』, 『새날이 올 때』 같은 수필집을 출간했다. 그의 수필의 특징은 한글과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유려한 문장에 있다. 영광에서부터 각별한 문우였던 박화성에 따르면 그는 ‘주옥같은 문장을 누에가 비단실 토해내듯이 뽑아내던 뛰어난 수필가’였다. 김지하는 자서전 『모로 누운 돌부처』에서 “우리의 토박이말과 미묘한 전라도 사투리의 매력을 처음 깨달은 것도 조희관 선생의 그 무렵의 수필집 ‘철없는 사람’에서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난으로 인해 일찍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그는 ‘불행한 문학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조희관은 한글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닌 교육가였다.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향도여중 교장으로 전임하면서 빛을 발휘했다. 부임과 동시에 한자로 된 학교 간판을 한글로 고치고 “한 송이 들꽃을 보라 / 남을 시새워 하지 아니하고 / 힘껏 제 빛을 나타내나니.”라는 교훈을 손수 지어 걸은 일은 아직도 목포 지역 교육계에서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목포여고, 목포유달중, 목포해양고등학교(현 목포해양대학교) 등의 교가를 한글로 작성했으며,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특이함을 일상용어에서 찾아내고 어원을 밝혀 나가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부용산 오리길」을 작사한 박기동과 작곡한 안성현 같은 유능한 예술인을 길러내는 데도 힘썼다. 이렇듯 조희관은 유능한 수필가요, 교육가였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전후 황폐한 목포의 예술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산파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6·25 직후에 향도여중 교장직을 그만 둔 그는 차재석과 함께 향도출판사 사장을 맡아 당시 목포의 출판문화를 주도했고, 문예지 『전우』, 『갈매기』 등의 주간을 맡아 목포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당시 향도출판사는 목포문화의 산실과 같은 구실을 한 바, 대부분의 목포 출신 문학도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예술적 자양분을 얻었다. 1956년에는 미네르바다방에서 박화성의 소설집 『고개를 넘으면』의 출판기념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전라남도문화상과 제1회 목포시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83년 작고한 조희관을 기리는 ‘소청문학상’이 제정됐다. 그러나 1994년 제12회 시상을 끝으로 중단됐다. 2009년 목포예총에서 세운 추모비가 목포문학관 앞에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김병고, 『목포예술인의 빛과 그림자』, 뉴스투데이, 2008;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 사이트(<http://historycontents.net/>) 「서해안인물열전 31-남도의 숨은 별 조희관-」.]

차남수(車南守, 1903~1990)

의사. 우리나라 외과 전문의 면허 제1호이다.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에서 차성술(車成述)의 4남 5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들은 개항 이후 상업도시로 성장한 목포로 거주지를 옮겼다. 목포공

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가 도쿄에 있는 게이카중학교에 진학했다. 이때 도쿄의 호남 출신으로 구성된 호남다화회(湖南茶話會)에 참여하면서 민족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야마구치현에 있는 야마구치고등학교를 다니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큐슈제국대학 의학부에 진학하였으며, 1930년에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 큐슈제국대학 의학부에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대구의학전문학교에 교수로 근무하면서 부속병원에 무료 병실을 개설하였고, 의료 사각지대인 제주도에 도립제주의원이 개설되자 제주도로 일터를 옮겨 1936~1937년 근무하였다. 1938년에는 경북 안동에 있던 도립안동의원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부산재활원 등에서 일하다 1941년 목포시 대안동 12번지에서 ‘차남수외과의원’을 차리고 고향 목포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목포에 있던 일본 의료기관이 모두 문을 닫게 되어 의사로서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목포중, 문태중, 목포여중, 정명여중 등 여러 학교의 교의(校醫)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1947년 8월 19일자 『중앙신문』에 ‘축 해방(祝解放)’ 광고를 게재한 기록도 남아 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차남수는 병원을 돈을 버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의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여겼다. ‘의술은 인술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환자들을 정성으로 치료해 준 존경받는 의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유학 시절 결혼한 부인 김사라와 함께 신앙 전파에도 힘을 쏟았다. 광복이 된 후 1945년 남부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목포제일교회 장로로 활동했으며, 1955년에는 목포복음교회를 설립하였다. 정부로부터 1957년 목포해항검역소장, 1961년 국립재활원장으로 임명된 신문기사가 남아 있다. 지역에서 목포시의사회장, 적십자사 전남상임위원, 전라남도교육위원 등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1990년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고별인사 편지를 남겼다. 그의 편지 마지막에는 “본인의 간절하고도 마지막 기도와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 목포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요, 또 한 가지는 의사님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꼭 지켜 주시라는 간곡한 소망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사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최정환)

[참고자료 : 목포문화원, 『마파지』(목포향토지 10), 1994, 249~250쪽;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차남수 장로의 고별사」; 『동아일보』 1930. 03. 26. 「금년 졸업하는 일본 유학생」; 『한국장로신문』 2011. 07. 30. 「목포복음교회를 창립했던 차남수 장로」.]

차남진(車南鎭, 1893~1970)

기업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1917년 일본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했다. 1919년 해동물산 주식회사 감사를 시작으로 1920년 목포소비조합 발기인, 설립위원 그리고 목포청년회 총무를 지냈다. 특히 김상섭이 경영했던 회사들의 취체역과 호남은행 이사를 거쳤으며 194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구체적 이력은 목포창고금융 감사(1922~1931), 호남은행 이사 및 감사(1920~1939), 동아고무공업 이사(1935), 목포양주 사장과 전무이사(1929~1942), 전남신탁 이사(1929~1931), 전남백화점 이사(1933), 목포곡자(麴子, 누룩)합동주식회사 이사(1933~1941), 동아약업 이사(1937~1942), 호남제탄 사장과 호남정미 사장(1938~1941), 목포해운 이사(1940~1942) 등을 역임했다. 1926년 7월 28일과 8월 27일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안군 일대 간석지 개간을 허가받는 특혜를 얻기도 했으며, 목포부회 의원, 전라남도회 의원, 목포상공회의소 부회두 등을 역임했다. 외과의사 차남수의 큰형이자 극작가 차범석의 부친이기도 하다.(정기영)

차범석(車凡錫, 1924~2006)

극작가, 연출가. 1924년 목포시 북교동 184번지에서 차남진의 3남 3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서중학교를 거쳐 1944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45년 목포북교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일본군에 소집당해 복무 중 해방을 맞았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목포로 피난하여 5년간 목포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66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천수(82세)를 누린 후 타계했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밀주」가 가작,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귀향」이 당선되어 극작가로 등단한 차범석은 2003년 「옥단어」에 이르기까지 70여 편의 희곡 작품을 발표한 다산 작가로 유명하다. 20대에는 6·25전쟁을 겪은 전후문학 세대로서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이 강한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특히 전쟁의 상처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불모지」(1957)와 이념의 허구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산불」(1962)은 6·25의 비극을 부각시키고 반전의식을 일깨운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대표 희곡집으로 『겹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1961), 『대리인』(1969), 『환상여행』(1975), 『학이여 사랑일레라』(1982), 『식민지의 아침』(1991), 『통곡의 땅』(2000), 『옥단어』 등과 연극 이론서 『동시대의 연극인식』(1987)이 있다. 이밖에 수필집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했노라』(1984), 『예술가의 삶』(1993), 『목포행 완행열차의 추억』(1994)과 자서전 『떠도는 산하』(1998)가 있다. 이들 중 『학이여 사랑일레라』와 『옥단어』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특히 『옥단어』는 일제 강점기 말에서 해방 정국에 이르는 시기에 목포의 4대 명물 중 하나였던 ‘옥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급박한 근대사를 살아갔던 민초들의 애환을 소개한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차범석은 극작가로서의 작품 활동 외에도 1956년 김경옥·최창봉·오사랑 등과 ‘제작극회’를 창단해 소극장 운동을 주도했으며, MBC 창립에 참여해 방송극 창작에도 관여했다. 1963년에는 김유성·임희재 등과 극단 ‘산하’를 창단하고 대표(1963~1983)로 활동함으로써 한국의 현대극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1951년 처녀작 「별은 밤마다」를 비롯하여 「사형인」(1956), 「말팔랑이 길들이기」(1964), 「세일즈맨의 죽음」(1975), 「도미부인」(1984), 「고려애사」(1990) 등의 공연을 맡아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1983년 「옛날 옛적 휘이 휘이」의 작업을 끝으로 그는 20여 년간 리얼리즘 중심의 창작극과 다양한 번역극을 소개하며 중견 극단으로 성장한 ‘산하’의 막을 스스로 내리기로 결정해 당시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후작가로 분류되는 극작가이면서도 전쟁이라는 주제에 고착하지 않고 철저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대적 서민 심리를 추구한 작품을 써 온 차범석은 이해랑·유치진의 뒤를 잇는 한국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대표적인 작가이자 연출가로 평가된다. 또한 김우진의 대를 이어 목포의 근대극을 활짝 꽃피운 문인이기도 하다. 차범석은 1981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984년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장, 1989년 서울예술전문대학 극작과 교수로 활동했고, 1998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02년 대한민국예술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70), 성육연구비(1980), 대한민국연극제회극상(1981), 대한민국예술원상(1982), 동랑연극상(1984), 대한민국문학상(1991), 이해랑연극상(1993), 금호예술상(1996), 서울시문화상(1998), 한림문학상(1998), 삼성문학상(2000) 등을 수상했다. 2007년 ‘차범석 희곡상’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목포문학관에 ‘차범석관’이 들어서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com/>)]

차재석(車載錫, 1925~1983)

수필가. 1926년 목포시 북교동 184번지에서 차남진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다목동(茶木童)이며 극작가 차범석의 동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앓은 관절염 증세로 일정한 직업 없이 평생토록 불편한 삶을 살았던 그는 1983년 57세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차재석은 「삼학도 가는 길」, 「악인의 매력」 등을 쓴 수필가이지만, 문학 창작보다는 평생을 목포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문학인들을 지원하는 후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목포의 예술인들은 그를

서슴없이 ‘목포예총의 터줏대감’으로 부른다. 그의 삶은 ‘예향 목포의 산파’였던 선배 수필가 조희관과 겹친다. 그만큼 두 사람은 명콤비였다. 소설가 백두성은 ‘소청 조희관 선생과 다목동 차재석 선생이 서로 만났기에 더욱 목포 문학예술에 빛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술회하였다. 그는 6·25 직후 서울에서 귀향하여 향도출판사를 차리고, 조희관을 사장으로 모시면서 자신은 편집장을 맡았다. 목포 여중 앞에 있었던 향도출판사는 시설은 비록 허름하였지만 목포 문학예술의 산실이였다. 목포의 모든 문예지와 단행본을 도맡아 출판했다. 당시 대부분의 문학 지망생들이 이곳을 거쳐 나갔다. 월간지 『갈매기』, 주간지 『전우』 등을 통해 목포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문예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6년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 서정주, 이동주 등과 함께 시 전문 문예지 『시정신』 창간을 주도한 것은 차재석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수화 김환기의 표지화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화려한 필진의 글을 실어 전후 황폐화된 이 땅의 시문학을 꽃피우는 데 크게 공헌한 이 문예지는 1964년 5집을 끝으로 폐간됐다가 1986년 서정주에 의해 잠깐 복간되기도 했으나 곧 사라졌다. 1958년에 남농 허건 등과 함께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 창립을 주도했으며, 1960년 『목포문학』(현 목포문인협회 기관지) 창간을 발간·주도했고, 1969년 제3대 한국예총 목포지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차재석은 문학 창작보다 외적 활동에 주력했지만, 종종 ‘예총 무용론’을 후배 문인들에게 펴며 “진정한 예술가라면 언젠가는 협회에 소속됨이 없이 홀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달산 유선각 앞에 시비와 예술의 거리 언덕에 목포예총이 세운 문학비가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김병고, 『목포예술인의 빛과 그림자』, 뉴스투데이, 2008.]

천귀례(千貴禮, 1903~?)

여성운동가, 근우회 집행위원. 전남 해남군 출신으로 정명여학교 재학 중이던 1921년 11월 13일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종이와 대나무로 태극기 수십 장을 제작하여 학생 10여 명과 함께 14일 수업이 끝난 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남교동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이 합류하여 행진하다 11명이 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천귀례는 재판정에서 만세 시위를 통해 1921년 개최 중이던 태평양회의(워싱턴 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고자 했으며, 실력을 양성하면 독립은 자연히 될 줄 믿는다고 당당히 밝혔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암태사립학교(일제 기록에는 암태보통학교라고 되어 있으나 암태공립보통학교가 아닌 암태사립학교일 것이다.) 교사로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1924년 무안청년회가 주관하는 여자 야학의 강사로 활동했다. 1925년 10월 전남 완도부인회에

서 ‘여자 해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1927년 11월 근우회 목포지회 설립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7년 12월 3일 창립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1월 목포사회운동 분규의 조사위원이 되었으며 신간회와 연합위원회 대표위원이 되었다.(이기훈)

[참고자료 : 윤선자, 「호남 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 『매일신보』1922. 03. 02.; 『시대일보』 1924. 11. 19.; 『동아일보』 1925. 10. 22.]

천독근(千篤根, 1905~1959)

기업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일본 도쿄공대를 졸업하고 1934년 목포직물회사를 창업한 목포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었다. 유학 시기에는 신간회 동경지회 재정부 간부를 역임, 1930년 졸업 후 귀국한다.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이른바 만주 특수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일어나던 방직공업에 발맞추어 1934년 목포직물회사를 창업한다. 당시 천철호, 천길호 등과 함께 창업한다. 연동에 자리잡은 이 회사의 공장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5대 견직 공장의 대열에 들어 있었다. 부지 2,800평으로 건물이 독특하며 당시 최신의 직조기를 설치하였다. 노동자는 80명, 직기는 80대, 생산 능력은 하루 2천 마 정도였다. 또한 목포부회와 전남도회 의원으로도 활동한다. 1937년 박화성과 결혼한다. 박화성은 1926년 동경 유학 당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후 북한에서 들어오던 원료가 끊겨 가동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한다. 1955년에는 대한해운조합연합회 전무 등을 역임한다.(정기영)

최병우(崔秉宇, 1924~1958)

언론인. 당시 호남은행 목포지점장을 하던 최건홍(崔健洪)과 어머니 허길도(許吉道)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목포북교보통학교 4학년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교동보통학교에 전학하고, 1937년에는 제일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고)에 수석 합격하였다. 1942년 일본으로 유학, 시코쿠고치고등학교[四國高知高等學校]에 입학하고 1944년에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법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인 1945년 6월에는 일본군에 징병당하였다. 1945년 9월 광복으로 귀국한 그는 미군정청 외무처에 들어갔고, 1947년에는 외무처 도쿄 공관의 섭외담당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주일 대표부 서기관으로 봉직하였다. 1950년 5월 재일교포 김남희(金南姬, 경북 고령 출신, 재일교포,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졸업)와 결혼한다. 결혼 후 주일대표

부 생활을 그만두고 1950년 당시 한국은행 조사부장이던 장기영을 도와 한국은행 도쿄지점 개설에 공헌하였으며, 장기영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를 외신부장으로 기용하게 되는데 최병우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그는 본사에서 외신의 정리나 편집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중군기자를 지원하여 전선 취재에 열중하였다. 1954년 6월 장기영이 『한국일보』를 창간하자 다시 『한국일보』 외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955년에는 편집부국장으로 승진한 후 1956년 6월에는 영자(英字)지 『코리아타임즈』 편집국장으로 발탁되었다. 1957년 1월 11일 평소에 젊은 기자들과 함께 추진해 오던 한국 언론의 권위 있는 친목·연구 단체인 관훈클럽을 발족하고 신문 주간을 창설해 그 행사의 주체로 같은 해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탄생시키고 이날을 ‘신문의 날’로 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편집국장(『코리아타임즈』)이면서도 일선 취재를 희망하여 1958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내란을 취재하고 곧이어 9월 11일에는 중국과 대만(당시 자유중국)간에 전쟁이 한창이던 때, 대만 해협(金門島)에 중군하여 취재 중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동월 16일 치료 중이던 부상의 몸으로 다시 진먼섬에 상륙하려다가 조난당해 35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가 6·25전쟁 기간 중 일선 중군기자로 활약하던 때 남북 간에 휴전회담 성립과 휴전협정 체결 과정을 취재하였으며, 휴전협정이 한국 대표의 참여 없이 조인된 사실에 서글픔과 울분 섞인 논조로 기사를 썼던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평소에 “독자의 지식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독자의 정보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신조 아래 꼼꼼하면서도 왕성한 패기와 열정으로 역량부약하는 언론정신을 보여 주었으며 그래서 그는 동료 언론인들 사이에 최고위원으로 불렸다 한다. 그가 남긴 불멸의 업적인 관훈클럽과 신문의 날이 존재하는 날까지 최병우는 모범 기자로서, 또 목포 출신 한국 최초의 순직 중군기자로서 기억될 것이다.(장용기)

최섭(崔燮, 1905~2000)

의사, 미군정기 목포부윤, 교육자. 1937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행림계(杏林界)에 거성(巨星)’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행림계는 의원 사회를 뜻한다. 목포시 죽동 49번지에 거주했으며, 세브란스의전(醫專)을 졸업한 후 목포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의술과 인격을 갖춘 의사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목포 개항 이후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부란취(富蘭翠)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부란취병원은 목포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남장로교회의 의료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9년 봄 오웬(C. C. Owen, 한국명 오원 또는 오기원)에 의해 현대식 의료가 처음 목포에 보급되고, 10년 후인 1909년 건평 191평의 규모를 갖춘 번듯한 석조 양옥의 병원이 만들어졌다. 이 병원은 미국인 의학박사 윌리 해밀톤 포사이드가 ‘프렌치 메모리얼’의 기부를 받아 만들었다. 그 때문에 ‘부

란취'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에 의해 시작된 부란취병원은 이후 조선인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 중심에 의사 최섭이 있었다. 후에 제중의원으로 이어졌다. 일제 강점기 목포부립병원이었었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개항장 지역에 설치되었고, 일본인 의사들이 진료를 했다. 그에 반해 부란취병원은 조선인을 위한 병원이었다. 매년 7~8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최섭은 미군정기 목포부윤(木浦府尹)을 역임했다. 목포에 진주한 미군 제55군정중대는 의사 출신이자 양동교회 장로로 사회적 덕망이 높은 최섭을 부윤으로 지명하였다. 1947년 3월 25일 목포방송국 존폐문제와 관련 협회장을 맡아 방송 청취자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48년에는 목포지구 선거위원장을 맡았다. 최섭은 또한 교육계에 몸담아 정명여자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된 정명여학교가 1947년에 복교되자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최성환)

[참고자료 : 대한연감사, 『대한연감』1955년판, 1957;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동아일보』 1937. 11. 17.; 『동광신문』 1947. 07. 01.; 『동광신문』 1948. 05. 16.;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mpjm.hs.jne.kr/>) 「학교연혁」.]

최진열(崔振烈, 1926~2012)

현대무용가. 전남 목포 출신. 호는 백주.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목포에서 살았다. 1948년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사범학교 체육학과 3학년을 중퇴하였다. 1950년 11월 목포사범학교 준교사로 부임해 근무하다가 1958년 사임하였다. 1957년 목포무용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25년간 회장을 역임하면서 목포 무용의 기반을 닦았으며, 개인 발표회를 수회 열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57년 5월 9일 제1회 '최진열 무용발표회'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수년 동안 꾸준히 '최진열 무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58년 목포문화협회(예총 목포지부 전신) 창립 멤버로 오랫동안 목포예총을 위해 헌신하였다. 1960년에는 제자들을 이화여대 주최 '제6회 전국 여자중·고등학생 무용콩쿨'에 참가시켜 안무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어 '제7회 전국 여자중·고등학생 무용콩쿨'에서 안무공로 및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1983년 목포예총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92년 목포예총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피선되어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무용협회 목포지부 고문으로 활동했다. 1993년 목포예총 부설 '주부대학'을 설립하여 '주부예술대강장'으로 목포 지역민들의 예술 대중화에 힘썼다. 최진열은 춤뿐만 아니라 서예와 그림까지 섭렵했던 예술인이었다. 전시 등을 통하여 작품 발표회를 열었으며 예술에 대한 다양한 '끼'를 보여주었다. 목포에서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무용인들을 길렀으며, 대표적인 제자로는 오랫동안 목포 지역

무용교육을 담당해 온 전충자,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로 불리는 세종대학교 교수 최청자, 목포시립무용단 초대 단장으로서 목포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한 정영례 등이 있다. 그의 무대는 시대를 앞선 내용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현대무용 「박테리아」 등이 있다. 남농예술문화상, 대한민국사회교육문화상 금상 등을 수상했다.(이숙진)

[참고자료 : 김미숙, 『광주 근·현대 무용사』, (사)한국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 2013.]

최찬열(崔燦悅, 1906~2006)

여성운동가, 사회사업가. 강원도 영양군 영양읍 임천리에서 출생하였다. 서울배화여고, 1958년에 서울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본과를 졸업하였다. 1932년 결혼 후 강진군 작천면에 야간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사업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야간학교가 반일운동의 일환으로 몰리면서 목포로 이주하게 된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조국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목포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취임하였다. 부인회의 첫 사업은 목포 시내 6개 교회에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한글교실 등의 운영이었다. 이외에도 목포여자청년단(1946), 목포YWCA(1947)를 창립하였고, 20년 동안 목포YWCA 회장을 지냈다. 특히, 목포 지역 여성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여성회관 건립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였고, 자금을 모금하여 여성회관을 준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목포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47년 목포십자원(현 목포아동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다. 40대에는 전라남도 공보과 부녀계장, 미국공보원 목포지원 문화과장, 대한적십자사 목포지사 부지사장 등의 공직에 종사하였다. 그 외에도 인권옹호위원, 목포시정 자문위원, 방위협회 위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66년 제3회 용신봉사상 본상, 1967년 동아일보사(『신동아』)가 선정한 ‘한국의 사회사업가 11인’의 한 사람이 되었고, 1979년 전남매일신문사가 수여하는 지역대응상(복지부문)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최하림(崔夏林, 1939~2010)

시인. 1939년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그의 집안은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드러난 학력이 없

다. 6세에서 11세까지 수화 김환기의 고향 신안군 안좌면 기좌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목포로 나와 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문학 청년기를 보냈다. 1962년 김현, 김승옥 등과 함께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동인지 『산문시대』를 5집까지 발간하는 데 기여했다. 박석규·원동석·김소남·양계탁 등과 「고도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리는 등 연극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나중에 『문학과 지성』 창간에 관여하기도 했다. 1965년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다가 1988년 광주로 내려와 10년 동안 『전남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은퇴한 후에는 충북 영동과 경기도 양수리를 전전하다가 2010년에 질병으로 타계했다.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하던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빈약한 울폐의 회상」이 당선되어 시단에 나온 최하림은 우리 시단의 균형주의자 혹은 중간주의자로 잘 알려진 시인이다. 그는 목포에서의 문학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김현이 아폴로였다면 김지하는 디오니소스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두 사람을 합친 이미지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초기 모더니즘에서 중기에 리얼리즘으로 바뀌었다가 후기에 다시 이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적 사유도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적당히 혼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색깔로 말하면 회색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문단의 주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최하림의 시에 나타난 목포는 첫 시집 『우리들을 위하여』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문학청년 시절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말라르메, 발레리 등에 경도되어 있었다. 특히 발레리의 시집 『해변의 묘지』는 불박이 텍스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첫 시집에는 지중해의 몽환적 이미지가 넘실거린다. 「황혼」 등 초기 시의 주요 무대는 목포의 해안통과 대반동 바닷가이다. 그는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면 늘 혼자서 해안통을 거닐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목포 해안통과 대반동 일대는 그의 초기 시가 태어난 산실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바다와 관련된 시편들은 구체적인 삶이 살아있는 건강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둠·불안·공포에 휩싸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1976), 『작은 마을에서』(1982), 『겨울꽃』(1985), 『겨울 깊은 물소리』(1987),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1991), 『굴참나무숲으로 아이들이 온다』(1998), 『풍경 뒤의 풍경』(2001),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2005) 등 8권과 2010년 작고 직전에 발간한 『최하림 시 전집』이 있으며,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 미술 에세이 『한국인의 멋』, 김수영 평전 『자유인의 초상』, 산문집 『멀리 보이는 마을』 등을 펴냈다. 조연현문학상, 이산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문학부문 최우수상(2005)을 수상했다. 최하림은 김지하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포 출신 시인이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고향 목포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현재 그를 기념하는 문학비도 전무하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하동현(河東鉉, 1903~1969)

제5대(관선), 제7대(민선 간선 2대), 제8대(민선 직선 초대) 목포시장. 진주 하씨. 전남 강진 병영에서 출생. 부 하도일(河道一)의 3남 1녀 중 장남. 1918년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목포공립간이상업학교를 입학하여 1920년 졸업하여 1922년 목포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1928년 교원을 그만두고 1929년 목포부 학교비사무원에 임명되었고 1932년 목포부 재무과 서기, 1941년 재무과 징수계주임, 1943년 재무과 부과계장, 1945년 총무과 내무계장, 1946년 총무과 비서계장, 12월에 목포부 재무과장, 1948년 목포부 산업과장을 하다가 1950년 4월 목포부시장에 임명되었다. 그해 11월에 순천시장에 임명되었고 1952년 4월에는 제5대 목포시장으로 임명되었다. 1952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목포시의회에서 초대 민선시장이자 제6대 목포시장으로 박재우 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해직되었다가 박 시장이 사임하면서 1952년 10월 24일 목포시의회에서 제2대 민선 목포시장이자 제7대 목포시장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7월에 임기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선 선거에 출마하여 1956년 8월 8일 당선됨으로써 직선에 의한 민선 초대 목포시장이자 제8대 목포시장이 되었다. 1961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목포시 교육감을 역임하였으며, 1962년 12월에는 재건국민운동 전라남도 무안군지부장에 임명되어 약 20개월 근무하였다. 행정관료로서의 오랜 경력과 능력으로 1963년 목포시행정자문위원회, 1964년 무안군행정자문위원회, 1964년 영산강유역간척추진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하동현 시장은 재임 중에 약 30여 년을 두고 식수에 시달린 목포 13만 시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주 황룡강으로부터 송수해오는 상수도공사를 1957년 5월 11일 착공하였다. 이 공사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실시되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같은 수원을 쓰는 나주시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나주읍을 방문하여 읍의원과 자유·민주 양당 책임자 및 읍의회 의장 등을 설득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 앞에는 하 시장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전 시장 하동현 선생은 인의로 십년 시정을 펴고 장장 삼백 리 영산강수를 이끌어 들이니 물이 넘치는 곳에 덕이 흐르고 만인이 어진 이의 뜻을 노래하여 이비를 세우다.”라고 새겨 식수 문제 해결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1957년 7월 29일~9월 17일, 약 50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국(미국) 지방행정시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행정책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으로 하여 지나친 우월감이나 집행부의 독단을 막는 제도의 연구,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채발행제도의 사용, 사무 간소화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학계와의 교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 시장은 평소 서예에 조예가 깊

고 한시에 능하여 목포시장 재임기간에 ‘목포 8경’을 명명하고 편액의 한자를 친필로 썼으며, 1965년에 발간된 『목포 풍아집(木浦風雅集)』에 한시 작품을 싣기도 하였다.(김병록)

[참고자료 :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하동현 「외국(미국) 지방행정시찰보고서」, 지방행정, 1957; 『전일신문』 1956. 07. 13. 「하 목포시장 사표 본격화 될 선거운동」.]

허건(許健, 1908~1987)

한국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호가 남농(南農)이다. 허선문(許宣文)의 33세손으로, 남농의 가계는 조선 중기에 진도로 낙향하였다. 남농의 조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 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서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영락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소치 허련이 후에 사귀게 되는 경향의 내로라하는 인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데 손색이 없을 만큼 시(詩)·서(書)에도 능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문 교양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비록 집안 형편은 보잘것없이 되었지만 그 저류에 흐르고 있던 선비 가문으로서의 뼈대와 가통은 면면히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회화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소치는 진도에 윤림산방(雲林山房)을 개창하였다. 그 뒤를 이은 미산(米山) 허형(許潁, 1862~1938) 또한 아버지 소치에 버금가는 서화가로서의 재능을 타고나,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쳐 남종화(南宗畵)의 태두로 추앙받았다. 목포 최초의 전업화가이기도 하다. 그의 호남 남종화단에서의 위상을 가리켜 평자는 “추사(秋史) 없는 소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미산 없는 의재(毅齋)나 남농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남농은 1908년 음력 6월 12일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209번지 소허암(小許庵)에서 미산의 5남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9살 때까지 이곳에서 자랐다. 1916년 미산이 참척(慘慼)의 아픔으로 심화를 이기지 못해 방랑길에 오르자 그런 아버지를 찾아 남농은 어머니와 함께 부친이 우거(寓居)하는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40번지로 이거한다. 이후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익히다 1920년 강진군 병영면 세류공립보통학교(현 병영초등학교) 1년에 입학했다. 1923년, 보통학교 4학년 때 목포시 북교동 232번지로 이사해서 이듬해인 1924년 목포공립보통학교 4학년으로 전입학했다. 5학년 때 조선총독부 학무국 주최 전국 초등학교 서화작품전에 「상림(霜林)의 풍경」으로 2등상에 입상,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때부터 회화 수업에 정진하였다.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가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 남종화를 부지런히 가꾸라는 뜻으로 남종화의 ‘남’과 농부의 ‘농’을 따서 호를 ‘남농(南農)’이라 지어주었다. 6학년 때는 목포 개항 기념 전라남도물산공진회에 남화풍의 산수화 2폭을 출품하여 2등상에 입상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단념했다가 1928년(21세), 중학 3년 과정의 목포중학원(후에 목포상공학원이란 명칭을 거쳐

목포상업전수학원으로 개칭)에 입학하였다. 2년간 목포중학원에서 수학 후 가세가 어려워 학교를 중퇴하였고, 1930년 5월에는 제9회 선전(鮮展)에 출품하여 처음으로 입선하였다. 작품은 「산고수장(山高水長)」과 「추(秋)」이다. 1934년(27세)을 전후하여 목포시 죽교동 138번지로 이사했다. 1935년 제14회 선전에는 신병으로 출품하지 못했는데, 이해부터 골습(骨濕)이 발병하여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에도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다. 1938년 부친이 타계하였고, 1942년에는 동생 임인(林人) 허림(許林)이 26세로 영면하는 아픔을 겪었다. 1942년 9월, 일본 대동남중원(大東南宗院) 공모전에 「잔설(殘雪)」을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년 뒤에는 「만일암(挽日庵)」으로 남중원전에서 입선하였다. 1943년 10월 「운문암(雲門庵)」을 생애 처음으로 일본 문전(文展)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44년(37세) 일제 마지막 선전이 된 제23회 선전에 출품하여 특선하여 최고상인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은 「목포의 일우(一隅)」이다. 12월 29일에는 그동안 차츰 도를 더해 가던 골습이 더욱 악화하여 서울 육병원(현 연세대 의료원)에서 왼쪽 하지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1946년 5월,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화실인 죽동장에 남화연구원(南畵研究院)을 개설, 이후 약 30년 동안 문하생을 가르쳤다. 남화연구원을 거친 이름 있는 화가로는 아산(雅山) 조방원(趙邦元), 도촌(稻邨) 신영복(辛永卜), 우남(又南) 이옥성(李沃城), 청당(靑堂) 김명제(金明濟), 백포(白浦) 곽남배(郭南培), 전정(田丁) 박항환(朴亢煥) 등이 있다. 1950년 9월에 5년 전부터 틈틈이 써 오던 『남종회화사(南宗繪畫史)』를 탈고하였고, 이 원고는 1994년에야 후손에 의해 서문당에서 출간되었다. 1953년(46세) 2월, 죽교동에서 모친을 여윈 후 죽동 250번지로 이사했다. 10월에는 제2회 국전에 국전 추천(推薦)작가로 출품하였다. 1954년 9월 국전 초대(招待)작가로 위촉되어 작품 「성지(城址)」(국전 제3회)를 출품했다. 이후 국전 초대작가 또는 추천작가로 1978년 제27회 국전까지 연속 출품했다. 1957년 6월,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후진 양성을 위해 설립한 백양회(白陽會) 창립회원(김기창, 이유태, 이남호, 장덕, 박내현, 김영기, 김정현, 천경자, 허건)이 되어 백양회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1977년 제26회 백양회 회원전까지 계속 출품하였다. 1960년 9월 제9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1965년(제14회), 1966년(제15회), 1970년(제19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82년(75세) 4월 3일 진도 윤림산방을 복원 준공하였고, 10월 20일 대한민국 문화훈장(은관)을 수훈하였다. 1983년 2월 2일, 대한민국 예술원 원로회원이 되었다. 7월 1일, 목포시에 윤림산방 3대(소치, 미산, 남농)의 회화 작품, 목물(木物), 도자기와 2,000여 점의 수석(壽石)을 기증하였다. 1985년 10월 남농기념관을 준공 개관하고 작품 제작실을 죽동장에서 남농기념관으로 옮겼다. 1987년 11월 5일, 80세로 타계하였다. 장례는 11월 9일 목포시민장으로 치러졌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봉수산 남록에 안장되었다.(오홍일)

[참고자료 : 허건, 도미자 옮김, 『남종회화사』, 서울당, 1994; 허희경 편, 「남농 허건화백 개인기록 카드」, 남농기념관 소장 자료; 허씨종친회, 『허씨대종보 십권지팔 양천허씨편』, 1980; 목포부, 『목포부사』, 1930; 예총목포지부 편, 『목포예총소사』2, 1985;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창간호, 1988; 목포북교초등학교 총동문회, 『북교백년사』, 1997; 박찬승 편,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상, 목포문화원, 2002; 남농기념관, 『남농기념관소장품선』, 삼성 이데아, 1998; 남농기념관 소장 『남종회화사 원고』, 2002; 문순태, 『소치일가사대화집』, 양우당, 1990; 남농 화백의 장남 허경(許頌)의 증언;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9번지 거주 김정식의 증언.]

현준호(玄俊鎬, 1889~1950)

기업가. 전남 영암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기봉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성산(星山), 호는 무송(撫松)이다. 현준호는 중추원의 참의를 지내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한 지역 유지로, 그의 집안은 호남 지방에서 유명한 거부 가문이었다. 9세에 아버지를 따라 목포로 이주해 담양군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서 수학하고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공부했다. 1917년 귀국하여 1919년 7월 주식회사 호남은행의 발기인이 되어 은행 창립에 힘썼다. 1920년 8월 광주에 호남은행을 설립하고 취체역 겸 전무취체역에 취임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동아일보가 설립되자 이 신문사의 감사에 위촉되었다. 1924년 4월 전라남도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다. 1926년 5월 전라도시제사(全南道是製絲) 주식회사 취체역,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감사에 취임하였다. 1930년 1월 호남은행 두취(은행장)에 취임했다. 호남은행은 일본의 식민자본 이식에 맞서 광주와 목포를 기반으로 한 지주자본과 상업자본의 규합으로 설립된 순수 민족계 은행이었다. 처음에는 광주에 본점, 목포에 지점을 두고 발족했으나 전남 각지와 경상남도 지역까지 지점이 설치되어 대은행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민족계 금융기관에 대한 일본인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자 1942년 4월 강제로 호남은행을 동일은행에 매각시켜 버렸다. 현준호는 광주·목포·영암 등지에서 금융인·기업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 못지않게 친일 행위도 많았다. 1949년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6·25전쟁의 와중에 광주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정기영)

[참고자료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홍순기(洪舜基, 1929~2012)

기업가, 교육자. 1929년 목포에서 출생, 목포 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상과대를 졸업하고 1954년

어망제조회사인 남양을 설립했다. 남양은 어망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초로 수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남양을 세계 최대의 어망제조회사로 키우며 1966년 대한어망공업협회 이사장, 1967년 한국무역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어망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로 어구자재의 국산화에 앞장섰으며 편상기, 해태 건조기 등 각종 기계류 제품 등도 개발해 왔다. 1990년 이후 중국투자 실패와 원양어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19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03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나 2004년 상장 폐지된다. 1980년 영흥중·고등학교를 인수하고 자신의 아호를 딴 유집(裕集)학원을 설립하면서 2008년까지 영흥중·고등학교 이사장을 맡았다.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도 전남수영연맹 회장,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생전에 새마을훈장 근면장과 금탑산업훈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다.(정기영)

홍정희(洪禎禧, 1934~1997)

무용가. 전남 목포 출신. 아버지 홍주표와 어머니 김이순의 3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시작, 목포여자중학교 무용교사 정춘혜에게 본격적으로 무용지도를 받았다.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 장학생으로 무용과에 입학하여 박외선에게 사사했으며,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졸업생으로 특출한 두뇌와 춤 재능을 발휘하였다.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여 무용 「사슴호의 전설」로 석사학위를 받아 최초의 석사 무용가가 되었다. 그해 제1회 무용발표회를 이화여대 강당에서 갖게 되었고 「사슴호의 전설」, 「승무」, 「탈춤」, 「월요일의 기도」 등의 작품으로 무용계에 커다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1959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첫 부임하여 1991년까지 재직하였다. 한국 발레 개화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 무용계의 대모라고도 불렸다. 그의 발레는 민족적 정체성과 시적 감수성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데뷔작 「사슴호의 전설」이나 「코리아 환상곡」 등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신시」에서 그의 시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제3회 무용발표회에서 애달픈 그리움의 존재인 어머니의 죽음을 표현한 「조용한 대답 '70」을 국립극장에서 발표하였다. 1971~1974년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방 순회공연, 1981년에는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자선공연 등을 통하여 개척자로서의 발레 보급과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1년 제4회 무용발표회 '코리아환상곡'(국립극장)을 창작 발레화하였으며, 한국적인 발레를 향한 뜨거운 집념이 그의 예술세계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선구자 역할과 더불어 후진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으로는 「조용한 대답 '70」·「코리아환상곡 '71」·「청물 '74」·「아가 '78」·「어떤 쾌적 '82」·「원화 '83」·「십자 '84」·「50흔적 '85」·「신시 '88」·「장생도 '88」·「녹색의 불길 '90」 등이 있다. 1984년 한국발레연구회를 창립하여 국립극장에서 창단 기념 공연을 가졌고 이사장으로

서 한국 발레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85년부터 한국발레연구회지 발간을, 1987년부터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학문적인 이론 정립에도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1988년 『무용역사를 통해 본 그의 예술성과 교육적 기능』을 번역 발간하였으며, 1988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여 「백조의 호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8년까지 15회의 개인 발표회를 가졌으며, 1994년 국립극장에서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이 마련한 '홍정희 발레 35주년 기념' 공연에서 「코리아 환상곡」에 출연하여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였다. 1977년 외국 무용부 공로상과 1984년 프랑스 깔까손시장 문화메달, 1984년 11월 제3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198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이숙진)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홍정희」.]

다섯 마당 목포시사

4권 터전 목포

집필위원 (가나다순)

강 수 남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고 정 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곽 유 석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곽 재 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권 효 목포장학재단 이사
김 경 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김 동 규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김 병 고 (사)한국예총 목포신안지회 고문
김 병 록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선 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정 섭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 양 호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대표

김 영 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박 병 옥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 종 길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박 혜 영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손 창 식 손창식 석조전시관 관장
오 홍 일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 경 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기 훈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이 숙 진 (사)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장
이 유 리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윤 선 남도민속학회 회장

장 용 기 목포MBC 편성제작부 부국장
장 유 정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교양학부 교수
전 호 문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정 경 진 KBS목포방송국 작가
정 기 영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 미 영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정 태 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조 상 현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최 연 식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 정 민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4권 터전 목포

발행처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편저	목포시사편찬위원회(각유석 외 34명)
총괄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고석규
기획·편집	고석규, 나선휘, 조미은
교정·교열	나선휘, 조미은
행정지원	임진택, 정혜림
발행일	2017. 12. 31
디자인·편집·인쇄	이문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20 / 061-333-991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422 / 062-225-9913

다섯 마당 목포시사 ISBN 979-11-87136-00-2(전5권)

4권 터전 목포 ISBN 979-11-87136-04-0

〈비매품〉

다섯 마당 목포시사 전5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목포시와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木浦市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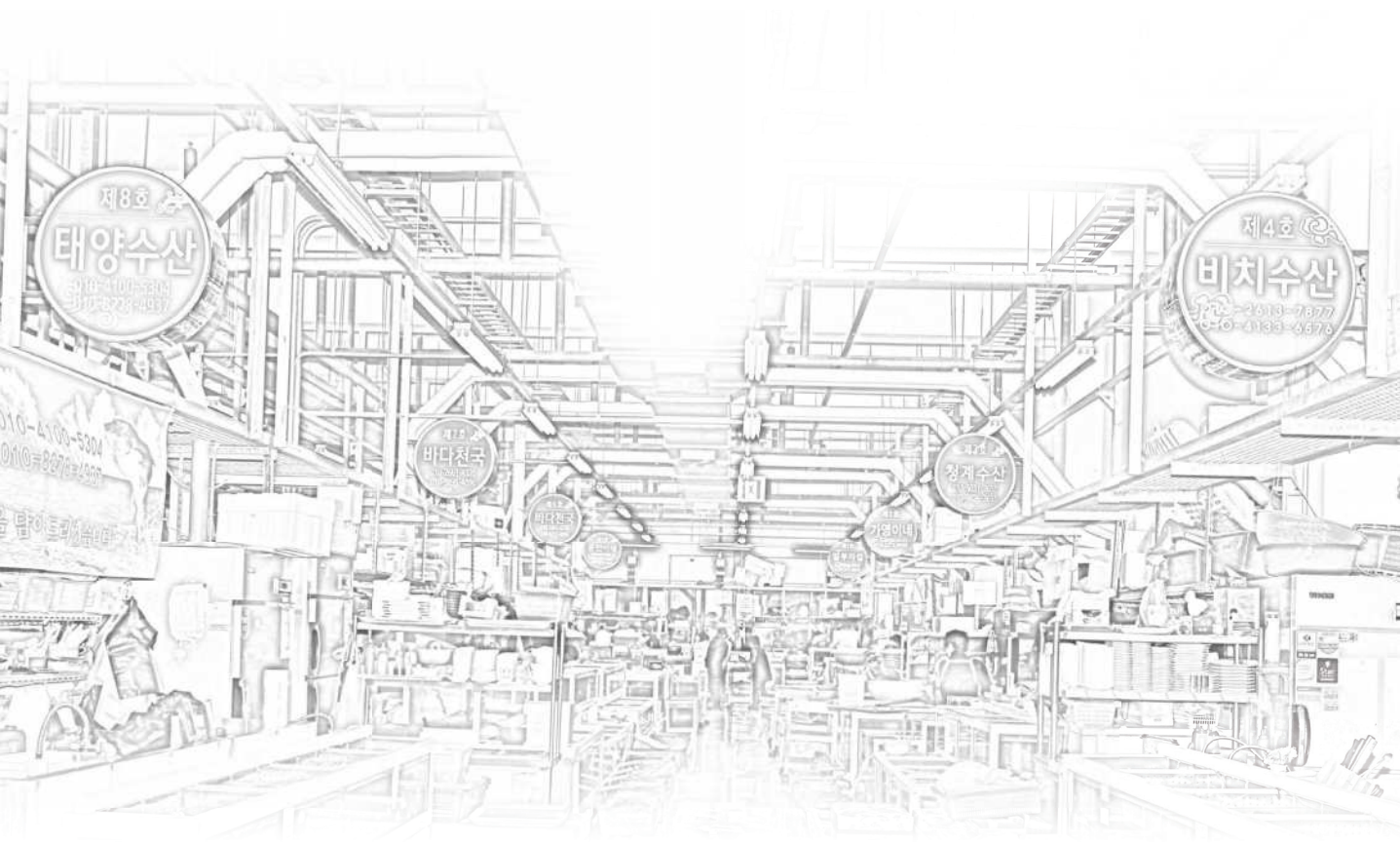
제1권 항도 목포

제2권 예향 목포

제3권 일등 목포

제4권 터전 목포

제5권 기록 목포



9 791187 136040

ISBN 979-11-87136-04-0

ISBN 979-11-87136-00-2 (세트)